



여성이 살리는 세상  
2017년 제5호



004 **퍼내는 글** | 기독교여성주의의 눈, 그리고 실천  
곽지영

007 **총론** | 한국의 기독교 개혁과 페미니즘  
한국교회는 왜 페미니즘이 필요한가  
이숙진  
기독교 개혁의 또 다른 지평, 여성 응시를 바꾸라  
백소영

035 **특집** | 페미니즘 물결과 한국교회, 그리고 기독교여성들  
한국의 기독교여성들, 빛을 찾아 달리다  
김신애  
페미니즘과 YWCA운동  
최만자  
교회 성폭력,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채수지

나는 '참자매'도 '사모감'도 아니다  
김수진

새로운 변화의 물결, 페미니즘 청년목회  
나연수

101 **좌담** | 교회안팎 성차별주의 넘어서기  
기독교여성들은 어떻게 교회안팎의 성차별주의를 넘어설 것인가  
김은선 손은정 양희송 최선화 최유진

119 **YWCA 현장이야기** | 2017년 한국YWCA 활동가 성평등 인식 조사  
한국YWCA연합회 생명비전연구소

131 **편집후기**  
이숙진 이은영 최선화 최형미

# 여성\*시대

## 페미니즘 물결과 한국교회, 그리고 기독교여성들

Cotents 2017  
5호

여성이 살리는 세상 『여·세』  
2017년 제5호

발행일 2017년 11월 2일  
발행처 한국YWCA연합회  
주소 서울시 중구 명동길 73  
전화 02-774-9702~4  
팩스 02-774-9724  
홈페이지 www.ywca.or.kr

발행인 이명혜  
편집인 유성희  
편집위원장 곽지영  
편집위원 이숙진 이은영 최선화 최형미  
편집 박은실 이윤숙 최지영  
편집디자인 굿플러스커뮤니케이션 02-6080-9858  
인쇄 (주)신사고하이테크  
ISSN 2289-0254  
정가 12,000원

# 기독교여성주의의 눈, 그리고 실천

곽지영

『여·세』 편집위원장

미국의 리서치 그룹 '바나 리서치'는 신앙이 있지만 교회에 가지 않는 '가나안 성도'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바나 리서치는 보고서에서 가나안 성도를 '예수는 사랑하지만 교회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하였고, 이들은 지난 6개월 동안 교회를 출석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2004년에는 4%에 불과했던 가나안 성도가 최근에는 10%로 증가했고, 이런 현상은 남성보단 여성이, X세대와 베이비 붐 세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문화선교연구원은 "가나안 성도들은 교회에 대한 상처나 제도에 대한 불신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의 영적 성장에 교회의 행태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서 떠나게 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YWCA 기독교여성주의 연구모임'을 통해 우리는 교회 내의 성차별로 인한 젊은 기독교여성들의 탈교회 현상과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교회 안에서 불기 시작한 페미니즘의 열풍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YWCA를 비롯한 기독교여성조

직들이 성차별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여왔는데, 최근에는 '믿는페미' '갓페미' 등 SNS상의 새로운 흐름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젊은 기독교여성들이 예수는 사랑하면서 교회는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할 책무가 YWCA에 주어졌는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현재 교회 안의 여성주의 확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여·세』의 주제는 '페미니즘 물결과 한국교회, 그리고 기독교여성들'입니다. 기독교(교회)에 부는 페미니즘 열풍 속에서 생명비전연구소가 진행한 'YWCA 기독교여성주의 연구모임'을 통해 고민하고 토론한 교회에는 '왜 여성주의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통해 구체화된 문제의식과 관점, 대안들을 이번 『여·세』를 통해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번 호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기독교여성주의'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곁에서 함께 하며, 한국사회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공헌해 왔던 우리 YWCA이지만, 활동의 내용과 방향이 여성 개개인의 '여성주의 의식'을 깨우치고 삶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힘으로 영향력을 크게 미치지 못했다라는 것이 우리가 당면한 현재에 대한 분석입니다. '기독교여성주의'를 토대로 성차별주의와 혐오를 넘어설 실천 방법과 과제들을 젊은 기독교여성들과 함께 모색해 나간다면, 예수를 사랑하면서 교회는 사랑할 수 없는 고민이 더 이상 우리 교회와 사회에서 사라질 수 있는 그 날을 꿈꿀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과 한국YWCA 95주년을 동시에 맞는 뜻깊은 2017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전 예수께서 가르친 윤리대로 배제된 약자의 외침을 경청하고 연대에 적극 나서야 할 역할과 사명이 우리 YWCA에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한국YWCA가 우리 사회와 기독교 내에서 '기독교여성주의'를 토대로 성평등 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주체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감당하는 것은 종교개혁 정신의 실천이자 완성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 한국의 기독교 개혁과 페미니즘

한국교회는 왜 페미니즘이 필요한가 • 이숙진

기독교 개혁의 또 다른 지평, 여성 응시를 바꾸라 • 백소영

# 한국교회는 왜 페미니즘이 필요한가

이숙진

한국YWCA연합회 아카데미 위원, 한국여성신학회 회장

## 1. 한국교회 여성들은 왜?

풍경1

24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 정문 앞. 차가운 가을비가 흩뿌린 곳은 날씨였지만, 아스팔트 위론 수천 명의 시위대가 모여들었다. ... 한국기독교총연합이 주최한 <KBS 기독교 탄압 방송 철회 촉구대회>가 이틀째 열리고 있는 자리다. ... ‘선교 120주년, 한국교회는 위기인가’편 방송을 막아내겠다며 모인 이들이다. 대다수가 40~50대 여성이고, 더러 젊은 남녀가 눈에 띄었다. ... 한기총에서 만들었다는 80개의 펼침막이 집회장 곳곳에 펼쳐져 있었다. ... “중교탄압 월권하는 KBS 사죄하라”, “주여! 기독교를 살려주소서”, “KBS 뒤의 마귀를 심판해 주소서”라고 잇달아 외쳤다.”

1. <한겨레신문>, 2004년 10월 1일.



출처: <한겨레신문>

풍경2

예배당 안팎에는 31절에 열리는 탄핵반대집회를 홍보하는 포스터가 붙어있었고, 교회 사무처에서는 신도들이 집회에서 사용할 태극기를 무료로 나눠주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교회 건물 밖에는 20여 대의 전세 버스가 ... 집회 현장으로 신도들을 실어 나를 버스였다. ... 차에 탄 사람들은 대부분 60~70대 여성들이었다. ... 버스에 탄 한 60대 여성은 “원래 우리 목사님이 시국 설교 절대 안 하시는 분인데, 이번에는 진짜 나라가 어려워져서 매 주일 예배 때마다 말씀을 하신다”면서 “이 분(목사님)이 떳떳하게 살아오신 분인데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면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집회에 안 나갈 수 없었다”고 집회 참여 동기를 밝혔다.



출처: <뉴스앤조이>

**풍경1**은 2004년 가을, 대형교회의 담임목사 세습과 불투명한 재정문제, 목회자의 비윤리적 행태 등을 보도하려는 한 지상파 방송국의 시사 프로그램에 압박을 가하는 집회다. **풍경2**는 지난겨울, 태극기집회를 독려한 어느 대형교회를 취재한 기사다.

초대형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나의 어머니는 언제부터인가 구역모임의 여신도들과 함께 시청 앞 광장으로, 여의도로 매년 열심히 집회에 참석하신다. 매서운 겨울바람으로 꽁꽁 언 아스팔트에서 추위에 떨고 있을 것에 염려하며 만류했지만, 목사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믿는 자의 소명으로 배운 어머니에게 그까짓 날씨 따위는 문제가 아니었다. 어머니와 교회 친구분들이 동원된 집회는 다양했다. 카리스마 넘치는 당회장 목사님의 은퇴 번복을 종용하는 기도회, 교회재정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반교회세력(?)의 저항에 맞서는 집회, 사학법 개정 반대 집회, 주한미군철수반대 기도회, 인권조례 폐지 집회를 비롯하여 심지어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 이르기까지 무더위나 맹추위도 아랑곳없이 교회권력의 총동원 지시가 있을 때마다 어머니와 같은 교회여성들은 거리로 나가 열성적으로 응답하였다.

교회여성들이 동원되는 집회의 대부분은 교회 권력이나 우파 정치세력의 이익과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자신들을 억압해온 가부장적 교회권력을 지키기 위하여 교회여성들은 왜 ‘자발적’으로 동원될까. ‘자발적 동원’이란 말은 형용 모순이지만, 한국교회 여신도의 집단무의식을 설명하는 데는 적절한 개념이다. 지난 세월동안 교회여성들은 가부장제의 단순한 수동적 희생자가 아니었다. 여성사학자 거더 러너가 말했듯이, 역사 속의 여성들은 가부장제와 협력하기도 하고, 그 토대를 침식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속에서 목숨을 부지하기도 했다. 그러하기에 가부장 사회에서 여성들은 단순한 희생자로만 산 것이 아니라 그 사회에서 능동적인 행위자로 살아왔다고 보아야 한다. 여성들의 협력과 지지가 없었다면 가부장제가 이토록 오랫동안 지속될 수 없었을 것이다.

한국교회 여성들은 왜 자신들을 부차적이고 종속된 성(性)으로 폄하하고 공공연히 배제하는 가부장적 교회권력에 자발적으로 협력할까? 현재 한국교회는 가

부장적 교회문화와 이에 근거한 성차별적 위계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가르치고 있다. 기독교계 여러 기관의 설문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다수의 교회여성들은 남성지배문화가 만들어낸 남성의 우월성과 여성의 종속성을 ‘창조의 질서’로 받아들이고 있다. 심지어 이러한 가부장적 질서에 순종할 때 ‘구원’과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한국 교회여성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는 핵심적인 덕목은 ‘순종’이다. 순종의 덕목이 여성의 몸과 정신에 각인됨으로써 순종의 태도가 자연스럽게 표출되며 이러한 교회여성들의 일상이 한국교회의 가부장적 에토스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겨울 국정농단에 항거하며 정의와 민주주의를 외치는 시민들의 끊이지 않는 행렬이 있었다. 이들과는 정반대의 주장으로 모인 일군의 무리도 있었다. 일명 태극기 집회에는 태극기와 십자가, 심지어 성조기와 이스라엘 국기까지 동원되는 기이한 풍경이 펼쳐졌다. 태극기 집회의 참석자 중 다수는 교회여성들이었다.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 보면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집회에 안 나갈 수 없었다”는 위의 인터뷰를 통해 집회에 동원된 교회여성들의 동기를 짐작할 수 있다. 박근혜정부 탄생의 주역이었던 보수 언론까지 무능과 부패의 국정농단 사태를 보도할 정도였는데도, 교회여성들에게는 ‘목사님 말씀’이 그 어떤 정보나 뉴스보다도 중요하고 확실했던 것이다.

교회여성들이 동원요청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교회권력에 협력하고 공모하는 과정에는 ‘순종’의 이데올로기가 작용한다. 언제부터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영성’이 가부장적 ‘순종의 이데올로기’로 굴절되었을까.

## 2. 교회여성과 순종 이데올로기

순종은 전통교회의 핵심 덕목의 하나다. 순종의 본래적 의미는 예수의 삶과 가르침에서 잘 나타나 있다. 특히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예수의 순종을 오롯이 보여준다. 기독교인들이 따라야 할 모델인 예수님의 순종은 그저 ‘아멘,

아멘' 하는 차원이 아니다. 불의한 권력에 저항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예수를 따르고 순종하는 길이다.

한국교회는 의심없는 순전한 믿음을 가르치고 칭송해왔지만, 맹목적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는 무궁무진하다. 최근 누리꾼들 사이에 회자되었던 뉴스가 있다. 4년간 모은 천만 원을 분실한 할아버지와 그 돈을 주워간 기독교인에 대한 이야기가 보도되었다. 있을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뉴스가 주목받은 이유는 “나는 기독교 신자인데 너무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줄 알았다”는 피의자의 진술 때문이었다.<sup>2)</sup> 피의자의 코미디 같은 고백은, 남의 불행 ‘덕’에 누리게 된 자신의 행복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고백하는 간증이 넘쳐나는 한국교회에서 그리 낯설지 않다. 더 심각한 문제는 맹목적 믿음과 순종이 코미디에 그치지 않고 엄청난 악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은 맹목적인 믿음이나 권력에 대한 순종이 아니다. 인류의 역사를 지배해 온 가부장제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 지배/복종의 관계구조로 유지되어왔다. 불의한 권력을 지탱해 온 대표적인 이데올로기가 가부장제이다. 가부장제가 불의한 것은, 특정 집단을 체계적으로 통제하고 배제하는 방식으로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라면 이러한 가부장주의에 대해 저항해야 맞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순종은 불의한 질서와 권력에 대한 불순종으로 나타나야 한다.

문제는 우리 삶에서 무엇을 순종하고, 무엇에 불순종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에 있다. 이미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는 예배는 물론이고 성경 속에도 깊이 스며들어 있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며, 무엇이 가부장적 문화의 구성물인지 모를 정도로 뒤엉켜있다. 일반 사회에서는 이미 년센스가 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목회자에게 복종하라’,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라는 말이 21세기 한국교회에서는 아직도 작동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교회는 처음부터 여성에게 순종을 강조한 것은 아니었다. 수용 초기의 교회를 보면, 전통사회의 가치에 대한 저항의 영성이 교회여성들에게서 자주 발견

된다. 그 시절 교회로 찾아온 여성들은 극도의 빈곤과 어둠의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이 강했다. 교회는 억눌린 이들에게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불어 넣어 주었다. 부유한 노인의 첩으로 살고 있는 여인들에게는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기생으로 팔려가야 하는 소녀들에게는 미션계 여학교에서 공부할 기회를 주었다.<sup>3)</sup> 남편의 외도, 폭행, 시부모의 폭행과 구박, 지독한 가난 등과 같은 가부장적 사회의 온갖 억압을 인내하며 살아야만 했던 이 땅의 여성들은 “만물을 내시사 가장 귀한 자 사람이라 … 남녀의 분간이 없이 자유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sup>4)</sup>라는 ‘복음’을 만나 기독교인으로 거듭나면서 억압으로부터 벗어난 해방의 삶을 살 수 있었다.

이 여성들이 한국교회의 토대를 닦고 기틀을 세웠다. 한 전도부인은 가가호호 방문하여 연간 6,730명의 여성에게 복음을 전하고 4,491권이 되는 성서를 팔았다. 현금할 돈이 없었던 가난한 여성들은 먹을 쌀을 한줌씩 성미로 모아 교회 재정을 꾸렸다. 성미마저 낼 수 없었던 여성들은 ‘시간의 십일조’를 내어 전도하고, 직접 흙과 돌을 져 나르면서 예배당을 세우는 데 보탬이 되었다. 이렇듯 각자의 형편에 맞게 각자의 은사에 따라 설교자로, 교사로, 지도자로, 전도자로 일하면서 교회를 확장시켰다. 교회여성들의 열성은 한국교회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을 뿐 아니라 여성 자신들의 잠재력과 능력을 개발하고 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여성들의 공헌에도 불구하고 1907년 창립된 독노회는 “목사와 장로는 세례받은 남자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로 인해 교회 안에서 여성의 역할은 제한되고 핵심적 정책 결정, 설교 및 각종 지도력 행사에서 여성은 배제되었다. 1912년 조직된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는 좀더 노골적으로 여성을 배제하여 여성교역자의 사역을 ‘전도’하는 일에만 한정하였다.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과 공동체를 이끌고 치리(治理)하는 자격은 허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점차 교회가 제도화되면서 새로운 정책을 기획하거나 결정하고, 설교권을 행사하는 것은 남성들의 몫이고 여성들은 교역자의 뒤치다꺼리나 하는 보조자 역할에 머물게 되었다.

3. Louise B. Hayes, "The Korean Bible Woman and Her Work," *Korea Mission Field(O/하 KMF)*, vol. XXXI, no. 7 (July, 1935), pp.151~152.

4. <그리스도신문>, 1901년 1월 3일.

2. 「길에서 1000만 원 주워 '꿀꺽' 70대 女 "하나님이 상 주신 줄"」 <동아일보>, 2017년 9월 27일.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거쳐 어느새 저항과 해방보다는 ‘순종’이 한국교회 여성의 지배적인 덕목으로 부상했다. 가부장적 교회권력은 순종의 ‘덕목’을 설교, 교리교육, 예배와 같은 다양한 장치를 통해 순종의 ‘이데올로기’로 변질시켰다. 예를 들면 교회여성들은 아브라함의 순종과 마리아의 순종, 바울의 순종 이야기에서 순종을 신앙인의 최고의 덕목으로 배운다.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은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린 이야기를 통해 순종의 교훈을 얻는다. 십자가의 흔적을 확인하려 했던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 믿음 없는 자의 원형을 배운다. 그리고 의심이 들어간 믿음은 ‘순도(純度)’가 떨어진 나약한 믿음으로 폄하된다. 의심을 제거하고 순종의 결의를 다지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리’라는 찬송을 부르며, 찬송을 부를 때마다 순종의 영성을 몸에 각인한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더 기뻐하신다는 구절은 자연스레 맹목적 믿음으로 해석된다.

목사님의 설교라면 아무 말 대잔치를 벌여도 ‘아멘’이란 추임새가 남발되는 곳이 우리의 예배 현장이다. 남발되는 ‘아멘’에는 스스로 서지 않고, 스스로 생각지 않고, 의심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가 담겨있다. 어느덧 순종은 지체 없이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는 것으로 그 뜻이 변질되었다. 아무 이의도, 불편도, 내적인 갈등도, 조금의 의심도 없이 기쁜 마음으로 따름으로 순종의 의미가 타락되었다.

### 3. 대표적 여성혐오 공간, 교회야말로 페미니즘이 필요하다

최근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의 하나는 교회 내에 만연된 성범죄이다. 한 교계 신문의 기자는 목회자의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기사작성을 위해 심각한 정도의 사례를 수집한 결과 K목사에서 H목사에 이르고도 남을 정도로 많았다고 한다. 구체적인 통계도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간 성폭력 범죄 검거자 1,258명 중 종교인이 450명이다. 전문직업군 중 종교인이 성범죄자 1위인 셈이다. 깊은 신뢰관계로 형성된 교회의 특성을 고려하면, 통

계로 잡힌 사건보다 드러나지 않은 범죄가 몇십 배 많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여성주의가 규정한 성폭력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접근 또는 성적 행위’를 뜻한다. 가부장적 문화가 강한 교회에서는 성폭력 피해자를 목회자를 실족시킨 자로 비난하는 것이 일반적 분위기다. 피해를 당한 교회여성에게서 범죄의 원인을 찾는 태도는 교회가 얼마나 성차별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교회 내 성범죄의 심각성은 소수의 일탈적 개인에 의한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데 있다.

요컨대 목회자를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거룩한 종이라는 인식, 목회자에 대하여 절대순종을 강조하는 공동체 분위기, 성범죄 사건을 피해자가 유혹한 탓이라며 피해자를 원인제공자로 몰아가는 분위기, 공동체 내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전도사업을 핑계로 은폐하려는 분위기, 성범죄를 성경해석을 통해 정당화하려는 것 등이 교회 내 성범죄의 특징이다.

교회 내 성범죄가 만연한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교회 안에 존재하는 불균등한 권력과 그 권력에 대한 순종 이데올로기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목회자가 과도한 권력을 행하면서 이를 사역에 필요한 권위라고 합리화하고 정당화할 때 교회는 성범죄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기독교성폭력상담소를 찾은 한 상담자는 목회자에게 성폭력을 당하면서도 저항할 수 없었던 자신을 자책하며 “당회장의 말은 안 된다’는 말을 저희가 할 수 없게끔, 죽으라면 죽는 시늉까지 하는 것이 순종이라 배웠기 때문에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본다 생각하며 순종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sup>5)</sup> 순종의 이데올로기가 파생시킨 악의 뿌리는 이토록 깊다.

**풍경3** 한달 동안 방문했던 로마에서의 매일 매일은 놀라운 것이었다. ... 언론인들에게 지정된 구역에 앉아서 나는 멀리 추기경들과 주교들의 무리를 보았다. 크림슨 빨강색의 노인 남성들이었다. 대성당의 또 다른

5. 김경자(가명), 『피해자 증언』 『한국여성신학』 1999 여름호, p.74.

구역에 '청중들'이 있었다. 소수의 가톨릭 여성집단이었는데 대다수가 머리에 베일을 쓰고 길고 검은색 옷을 입은 수녀들이었다. 거만하게 보이는 화려한 색깔의 '교회의 왕자들'의 복장과 초라하고 자기격하적 태도와 침울한 의상을 입은 소수의 여성들의 대조는 소름이 오싹 끼치는 것이었다. ... 연설문들이 회의에서 읽혀졌으나 모두 남성의 목소리들이었고, 연로한 빨간 옷의 남자들이 푸념하는 소리였다. 소수의 여성들, 수녀들은 유순하게 앉아서 ... 문서들이 읽히는 것을 듣고 있었다. 그 후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자 그 여성 청중들은 거기에 참석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던 것에 대한 고마움을 반복해서 표현했다.<sup>6)</sup>



출처: <뉴스앤조이>

여성신학자이자 수녀였던 메리 데일리가 묘사한 1965년의 가톨릭 공의회 모습이다. 2017년 한국교회 유수 교단 총회의 모습과 무엇이 다른가? 회의장 안과 밖에 배치된 남성 교회지도자와 여성 청중·보조자, 회의장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모두 남성의 목소리. 다른 것 하나는 가톨릭교회의 남성지도자의 화려한 의상과 총회 도우미로 동원된 여성신도들의 빛깔 좋은 한복뿐이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21세기에도 한국교회는 이러한

추세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듯 남성이 의결권과 집행권을 독점하고 여성은 제도적으로 배제당하고 있다. 교인의 과반수를 웃도는 여성들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교단의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 본회의에는 참석도 하지 못하고 회의의 보조역할이나 봉사, 식사 담당 등 감정노동에만 치중되어 있다. 2017년 총회의 풍경은 교회구조에 있어서 여성을 예속시키며, 교회사역에 있어서 여성을 배제하는 한국교회의 고질적인 남성중심주의를 그대로 드러내었다.

오랫동안 한국기독교는 한국여성을 해방시킨 대표적인 공간으로 평가되어왔다. 그러나 오늘날 현실은 어떠한가? 해방적 공간이기는커녕 대표적인 성차별적 공간으로 전락한 지 오래이다. 교회의 여성인권 상황을 보면, 성차별에 관한 그 어느 사회 영역보다도 더 심각함을 알 수 있다. 교계 기관의 한 조사에 의하면, 교회출석 기간이 짧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성평등 의식이 높은 반면, 교회에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여성의식이 약해지고 비민주적인 가치관을 지니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7)</sup>

2016년 9월 말, 각 교단의 총회 현장을 자세히 들여다 보자. 여성위원회가 제안하는 것들은 발언이 채 끝나기도 전에 무조건 “아니오”로 응대했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그 철용성에 직접 대면한 듯 깊은 무력감에 빠졌다. 총회는 끝났고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예장고신 교단은 같은 커리큘럼으로 공부한 신대원 재학 남성에게는 목사 안수가 가능한 법을 새로 제정했지만, 신대원 졸업 여성에게는 권도사(勸道師, Exhorter) 자격 청원을 부결시켰다. 같은 교단 신학대학원에서 동등하게 등록금을 내고 동일한 커리큘럼으로 공부했는데 재학 중인 남자 신학생에게는 목사안수 자격 취득을 가능하게 한 반면 졸업한 여자신학생에게 목사자격도 아니고 권도사 자격을 해달라고 했는데도 부결시켜 버렸다. 믿기지 않지만 이것이 21세기 한국교회 풍경이다.

예장통합 교단의 경우도 여성목사의 수는 2,007명(2016년 봄 노회 자료)으로 전체 목사의 9% 남짓이다. 게다가 여목사의 경우 부목사, 전도목사가 과반을 넘

6. 메리 데일리, 『교회와 제2의 성』 여성신문사, pp.262-264.

7. 김상임, 『기독교인 성, 성평등의식 실태조사 보고』 『한국여성신학』 한국여성학자협의회, 1999.

고 무임목사도 13% 가까이 된다. 당회가 조직된 교회에서 정년까지 시무할 수 있는 여성 담임목사는 1.6%(총 27명)에 불과하다. 전도사의 42%가 여성인 것에 비해 턱없이 낮은 이러한 여목사 비율은 교회공동체에서 차지하는 여성의 위상을 잘 보여준다. 예장통합은 고신보다는 조금 낮지만 여전히 여목사는 전체 목사의 9%이고 담임목사는 1.6%이다. 부목사라든가 무임목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진보교단으로 알려진 기장은 어떠한가? 여신도 비율은 60.3%이지만 여성지도력인 총대 비율은 7.9%, 총회 실행위원회에서의 여성 비율은 4.5%이다. 이번 총회에서 여성위원회가 상정한 안건들(총대 참여 비율 증대,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여성 2명 이상 공천 할당, 여성장로 30% 배정)은 부결되었다고 한다. 기장도 여성 안건에 대해 진보적이지만 여신도가 60% 이상인데, 여성 총대는 7.9%이다. 여성장로를 30%를 확보해 달라고 했는데 부결되었다. 이러한 지표들은 교회가 얼마나 여성차별적 공간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력과 권리를 빼앗은 것이다. 여성은 대표성을 가질 수 없는 무능하고 열등한 존재라고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공동체를 공정하게 꾸리는 데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와 절차는 핵심 요소이자 조건이다. 누가 의사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가,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은 권위적인가 민주적인가, 정의의 원칙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의 장에는 누가 참여하는가 등은 그 공동체의 젠더정의의 감수성의 지표이다. 신앙공동체의 생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여성이 소외된다면 공동체 내부에서 여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며 겨우 할당된 자리 역시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 노회나 총회에서 발언권을 갖지 못한다면 젠더정의의 실현은 요원하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여성혐오와 무관함을 주장해왔다. “교회가 왜 여성을 혐오하겠는가”라고 반문한다. 오히려 교인의 60~70%를 차지하는 순종적인 여성교인이야말로 교회성장의 주역이라고 치켜세우고 여성들의 무릎기도가 자녀와 가정을 지킨다고 칭송하면서 교회가 여성친화적이라고 강변한다. 자세히 보면 한국교회의 여성혐오는 동성애, 공산주의, 이슬람에 대한 노골적인 혐오와는 달리

이중적인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 여성혐오는 물리적 폭력성으로 드러날 뿐만 아니라 호의적인 방식으로 나타날 때도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칭찬하는 것같이 보이는 찬양·열광은 여성혐오의 정서와 반대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뿌리 깊은 여성혐오의 한 양상이다. 특히 젠더정의가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교인들에게 보내는 칭송과 찬사는 서구가 동양을 신비화하면서 착취하는 오리엔탈리즘의 구조와 닮았다. 남성연대에 의해 독점된 교회에서 교육받고 성장하며 신앙생활을 한 교인들은 가부장적 가치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받아들이게 되며 그 과정에서 여성은 열등한 존재이거나 유혹하는 존재라는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게 된다. 이처럼 왜곡된 젠더관과 만연된 여성혐오를 자각하고 성찰하지 않는 한국교회는 여성혐오의 사회와 문화를 공고화하는 원동력인 셈이다.

교회는 여성을 타자화·대상화하는 유무형의 폭력에 대하여 무력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폭력에 대해 사랑과 인내와 순종의 덕목으로 대할 것을 권면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폭력을 조장해왔다. 교회에 깊이 뿌리내린 남성중심적 관행들은 결코 남성들이나 목회자들의 책임만은 아니다. ‘순종’을 내면화함으로써 의존적 관계에 안주하고, 부차적 역할을 수동적으로 행함으로써 불의한 구조에 공모한 여성의 책임도 간과할 수 없다. ‘남성보다 열등한 여성’이라는 가부장적 지배담론의 영향을 받은 여성들은 자신들은 물론이고 다른 여성들에게도 이러한 표상을 적용하여 여성의 지도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 여성목회자에 대한 불신임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듯 여성지도력을 부정함으로써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형태로 가부장적 헤게모니를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은 올해 각 교단의 총회에도 그대로 스며 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전통적으로 행해져 온 여성들의 ‘고유한’ 교회 활동에 대한 여성들의 불만이 나날이 증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회의 주요 정책 결정 등 논의구조에 참여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봉쇄당한 고학력의 여성들이 점점 교회 일에 대해 무관심해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인내와 순종, 희생과 봉사 정신을 강조하는 신앙교육으로 성차별적 교회구조가 유지되어 왔지만, 성평등이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알파걸’이 등장하고 각종 전문분야에서 여성들의 도약이 눈부신 이 시대에는 불가능할 것이다. 여성의 잠재력이나 다양한 은사를 사

장시키는 총회나 교회구조가 변화하지 않고서는 교회는 존립조차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평등의식을 교육받은 고학력의 여성들이 성차별적 교회와 교단에서 희망을 발견하지 못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를 증명하듯 근래 젊은 여성들의 교회 이탈현상은 심상치 않다. 2011년부터는 젊은 여성들이 교회에서 줄어들고 있고, 새로 유입되는 젊은 여성도 적다. 초기부터 교인의 70%를 상회하던 교회여성의 비율은 현재 거의 모든 교단에서 50% 후반~60% 초반대로 집계된다.

한국교회사에는 교회여성들이 순종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며 교회권력에 부단히 저항한 역사가 있다. 특히 1960년대부터 시작된 민주화와 인권운동의 영향을 받은 교회여성들이 저항적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주체적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으로서 ‘한국교회 여성연합회’(1967년)를 발족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YWCA가 그러했듯이 교회여성들은 이 조직을 통해 경제성장 정책의 희생자인 성매매여성의 인권 보호와 기생관광 철폐 운동을 전개하고, 더 나아가 반전·반핵·평화운동을 주도하면서 남성지배 문화와 결탁한 군사문화에 강력하게 저항하는 주체로 등장하였다.

19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에 걸쳐 소개된 서구 여성신학은 가부장적 교권에 대항하여 투쟁하던 교회여성들의 저항적 정체성 형성에 큰 힘이 되었다. 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와 한국여성신학회는 다양한 방식으로 남성헤게모니의 폭력성을 드러내고 비판하며 해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은 기존의 남성 공간을 점령함으로써 기존의 공간적 위계질서를 깨뜨리려는 노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보수적인 한 교단 여성들이 60여 년에 걸친 투쟁 끝에 획득한 여성안수 합법화는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제도적 차원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차별 문화를 인식하고 여성주의적 감수성을 함양하는 것도 교회권력에 저항하는 하나의 길이다.

지금 한국교회 여성들에게 여성주의는 ‘해방의 동아줄’이 될 것이다. 여성주의는 우리 안의 내면화된 순종 이데올로기와 같은 잘 드러나지 않는 억압적인 현실까지도 분석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이다. 또한 억압의 현실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과제는 성차별과 성범죄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사결정권을 가져야 하고 결국 제도적인 참여로 이

어져야 한다.

여성주의는 여성의 권익 신장만을 꾀하는 협소한 이념이 아니다. 또한 여성을 가부장제의 피해자로만 보지도 않는다.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보면, 억압과 차별의 양태는 다르지만 여성과 남성 모두 남성지배문화에 의해 왜곡된 삶의 경험이 있다. 물론 여성이 가부장주의적 가치관에 의한 우선적인 피해자라는 인식은 가부장적 교회권력에 균열을 가하는 데 중요한 자원이자 현실개혁의 출발점이 된다. 내면화된 가부장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을 통해 여성주의가 또 하나의 억압담론이 되지 않도록 경계하는 성찰성이 필요하다. 이것이 여성주의가 지향하는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이다.

### 글을 쓴 이숙진은

이화여대에서 여성신학과 기독교윤리를 전공했으며, 현재 기독교 여성윤리, 종교와 페미니즘 등을 강의하고 있다. 한국여성신학회와 한국YWCA연합회 아카데미 위원이다. 저서로는 『한국기독교와 여성정체성』, 공저로는 『민중신학의 여정』, 『종교는 돈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미디어와 여성신학』, 『한국 여성종교인의 현실과 젠더문제』, 『21세기 자본주의와 대안적 세계화』, 『민족과 여성신학』 등이 있다.

# 기독교 개혁의 또 다른 지평, 여성 응시를 바꾸라<sup>1)</sup>

백소영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교수

## 들어가며

“어떤 남자 집사님이 저더러 ‘그렇게 입으면 형제들이 어떻게 시험을 이기 나며, 성폭행은 그렇게 일어나는 거다.’라고 이야기 했어요.” “기도하는데 전도사님이 와서 묻길래 인생이 안 풀려 기도 중이라고 했더니 나이를 묻더라고요. 20대 후반이라고 했더니, ‘아 그럼 이제 슬슬 빠지게 해야겠네! 슬슬 자궁 말라비틀어질 나이잖아!’라고 하셔서 황당했던 기억이...” “여성신학생들은 교회가 아닌 특수목회를 해라. 이 나이 들어서 여자에게 머리 숙이는 것도 그렇고, 교회에는 남자 목회자가 있어야 본이 선다.” “여자는 아이를 많이 낳아야 전도와 포교에 도움이 된다. 경력단절에 대한 염려는, 하나님이 알아서 도우실 문제이니 그저 믿고 아이들 낳으라고!” “남편이 바람피우는 이유는 집에서 아내가 스스로의 역할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네요.”<sup>2)</sup>

1. 이 글은 <성서한국> 2017년 전국대회, 『복음과 상황』 2017년 8월호 등 올해 ‘종교개혁과 여성’ 관련하여 발표와 글쓰기를 하며 언급한 내용들을 수합, 수정, 정리한 글이다.

2. 청어람 2017년 청년사역 컨퍼런스 『청년사역과 페미니즘』 자료집에서 이은혜 기자의 「교회 내 여성혐오의 민낯」 발표 내용 중 선별 인용, pp.39~44.

이게 다 무슨 소리인가? 남의 나라 이야기도, 한 세대쯤 전의 이야기도 아니다. 2017년 3월 <뉴스앤조이>에서 353명의 2030 청년들에게 묻은 설문지 내용들이다. 교회 안에서 들었던 성 편견에 대한 말들을 적은 것이다. 그러나 고상한 표현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지 교회 청년들이 들었다는 저 말들은 모두 ‘개신교 여성 응시’를 그대로 담고 있다. 아니, 정말로요? 근현대 문명을 여는 데 사상적 기반과 운동성을 가진 시민들을 양성했다는 ‘그’ 개신교가, 저런 여성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맞다. 막스 베버(Max Weber)가 “이 세상적 금욕주의(thisworldly asceticism)”라고 명명했던 바, 개신교도들은 세속 사회에서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부여하신 특별한 부르심대로 ‘살아내려’ 노력했던 사람들이다. 그 열심 때문에 경제, 정치, 교육, 소위 사회 제도 안에서 역할도 컸다. 무엇보다 여성 응시에 있어서도 전근대적 가톨릭의 여성관과는 사뭇 다른 ‘개혁적’ 태도를 보였다.

그런데 딱 ‘저기까지’였던 거다. 여성의 ‘부르심(소명)’은 조신한 여성, 사랑받는 아내·현명한 엄마, 돕는 2인자의 역할이라고. ‘적어도’ 16세기 이래 몇 백년간은 ‘다수’의 개신교 여성들에게 ‘나름’의 의미가 있었을 이 여성 응시는, ‘분명히’ 21세기 후기-근대적 상황에서는 ‘어렵없는’ 시선이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후기-근대(late-modern) 사회는 이제 바야흐로 ‘재능사회(meritocracy)’로 진입해 가는 중이다. 초기와 중기까지의 ‘관료제적 자리’(bureaucracy)는 점점 효율성 면에서 통치 정당성을 잃어가고 있다. 한 번 배운 지식으로 평생을 사용할 수 있는 세상도 아니요, 전문성을 중심으로 빠르고 유동적인 이합집산의 네트워크가 오히려 효율적인 세상이다. 그리고 이런 전문성은 남성들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근현대의 초기 기획이었던 ‘일하는 남편, 집 지키는 아내’의 성별분업적 핵가족 모델은 이미 달라진 외부환경 속에서 구성원들에게 의미나 만족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시절에 중세를 끝내고 근대를 열던 시점에서 생겨난 개신교적 여성 응시의 공허와 한계를 짚어보는 일,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 근거하여 다시 개혁적 여성 이해를 시도한다면 우리는 우리 전통의 어느 부분을 붙잡고 시작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시의적이고 유의미한 작업일 것이다.

## 1. 종교개혁의 여성 응시, 무엇이 새로웠나?

종교개혁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나는 ‘권위 나눔’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왕과 귀족들, 사제들만 독점했던 성서 해석이나 신앙 고백의 권위를 평신도에게 부여한, 아니 돌려준 사건이었으니까. 신민(臣民)에서 시민(市民)으로! 물론 종교 개혁 당시부터 전면적으로 실행된 것은 아니었지만, 개혁 신앙은 근현대적 시민을 낳는 촉발점ियो 바탕이 되었다. 개혁 신앙은 더 이상 꿋고 복종하는 신민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라고 촉구했다. 종교개혁의 모토인 ‘오직 믿음(sola fide), 오직 은총(sola gratia), 오직 성서(sola scriptura)’는 특권층이 존재의 위계를 주장할 수 없게 만들었다. “모든 신자들은 사실상 성직자인 것이다. 따라서 그들 간에는 어떠한 차이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세례, 복음,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누구에게나 성직자의 신분이 주어지는 것이다.”<sup>3)</sup> 사실 루터는 ‘독일 그리스도인 귀족들에게’ 고했지만, 그 원리는 보편적일 수밖에 없었다. ‘루터가 인정했는가’와는 별개로 그의 외침은 농노를 비롯하여 신분제 사회에서 ‘꿋고’ 지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사람들에게 ‘만인제사장’의 권위를 주장할 근거가 되었다.

특히나 중세 말기 상인, 공인, 행정가들을 중심으로 자유독립도시를 형성하고 살아가던 수많은 부르주아(Bourg(城)으로 둘러싸인 독립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이란 뜻으로 당시는 ‘시민’과 동의어였음)에게 종교개혁의 외침은 큰 호응을 얻었다. 사실 제 아무리 훌륭한 사상이라도 호응하는 이가 없고 이를 유지해갈 만한 물질 토대가 없으면 지속되기 힘든 법이다. 개신교 종교 사상이 유럽을 거쳐 미국, 그리고 한국에까지 이르는 동안 힘을 키울 수 있었던 것은 근현대(modern)라는 새로운 사회를 일구어갔던 부르주아들의 의미 추구하고 맞닿아 있었기 때문이다. 종교개혁은 하나님 앞에 만민이 평등함을 외쳤고, 부르주아들은 근대 법치 민주 사회를 만드는 데 이 사상을 주요한 근거로 삼았다.

혁명, 맞다. 적어도 위 아래로 보던 인간관계를 신앙적, 법적 평등권을 갖는 수

평적 존재로 응시하게 했으니까. 인간 사이에는 언제나 마주 보아라. 이것은 성서가 창세기로부터 증언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점에서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지어졌던 문명을 제대로 돌려놓는 혁명적 사건이었다. 하지만, 근현대 역사를 돌아볼 때 우리는 ‘만인’이 언제나 ‘만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음을 안다. 만인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많았다. 인종적으로는 흑인을 비롯한 유색인종들이, 산업 사회에서는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노동자들이, 국가적으로는 경제수탈의 대상이 되었던 피식민 국가들이 결코 ‘만인’의 범주에 들지 못했다. 하물며 가장 오랫동안 배제되어왔다는 ‘여성’은 어떠했을까.

종교개혁은 여성 응시에 있어서 분명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사실 유대-기독교의 형성과 전개는 가부장제도의 역사 가운데 펼쳐졌다. 때문에 문화적 전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이들은 남성중심적 시각에서 여성을 응시했다. 물론 하나님의 계시는 보편적이다. 그러나 이를 받아 전하는 ‘유한자’ 인간의 제한성은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를 전하는 주체가 전적으로 남자일 경우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 “똥자루, 오물자루, 탐욕스런 암늑대, 덧없는 파리들, 남편의 완벽하고 순수한 정액을 담는 봉지 같은 여자들”<sup>4)</sup>, 앞서 인용한 내용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강력한 여성혐오적 언어들이 중세 기독교 텍스트와 컨텍스트를 가득 채웠다. 필시 한스 니더의 『개미집』(1435)이나 하인리히 크래머와 야콥 슈프랑거의 『마녀들의 망치』(1487)는 그 절정이었을 거다. 생각해 보라. 예닐곱에 엄마 떨어져서 수도원에서 금욕적인 신앙생활을 하던 수도자 집단에서, 그러니까 건강하고 친밀하게 여성들과 자연스러운 인간관계를 해보지 못한 남성들의 여성 응시가 어떠했는지. 독신서약을 하고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살기 위하여 금욕을 신앙적 경건으로 동일시하던 이들에게 ‘여성’은 열등의 기호요 위협의 징표였다. 그러니 멸시하고 경계하고 심지어 저주할 밖에.

물론 중세 수사들만이 이런 여성혐오적 발언을 했던 것은 아니다. 인류 문명사에서 가부장제의 역사는 약 오천 년이나 지속되었다. 히브리경전(구약성서)이나 기독교 교부들의 여성 응시가 부정적인 것은 당연했다. 고대 교회의 권위 있는 교

3. 마틴 루터 지음, 『독일 기독교 귀족에게 고함』, 원당희 옮김, 세창미디어, 2010, 백소영, 『세상을 욕망하는 경건한 신자들』, 그린비, 2013, p.40에서 재인용.

4. 기 베슈텔 지음, 『신의 네 여자』, 전혜정 옮김, 여성신문사, 2004에서 소개된 표현들을 모아서 가져왔다.

부였던 테르툴리아누스는 여성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하와가 너 자신이라는 것을 모르느냐? … 살아라. 그리고 비난 받아라. 악마의 문은 너이니라. 생명수의 봉인을 떼 너. 신성한 계율을 최초로 변절한 자. 악마가 공격하지 못한 남자를 설득한 너. 신의 이미지인 남자를 망가뜨린 너.”<sup>5)</sup> 우리가 신앙적으로 존경하고 있는 성 아우구스티누스도 여성 응시에 있어서만큼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남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여자가 만들어졌다고는 하지만, 자식을 낳는 일 말고 무엇 때문에 여자가 만들어졌는지 도무지 모르는 일이다.”<sup>6)</sup>

이와 비교하면, 종교개혁가와 이들의 신앙을 따르던 개신교도들의 여성 응시는 과히 ‘혁명적’이라 할 만하다. 남성과 여성을 태초부터 짝으로 부름받은 공동체적 인간임을 천명하며, 여성을 ‘하나님의 선물’, ‘필요선’, ‘영혼의 동반자’, ‘돕는 배필’로 불렀으니까. 루터는 중세 말기 만연했던 성직자들의 성적 타락을 보며, 창세기를 다시 읽었고 「수녀에서 아내로」라는 소논문을 비롯하여 “소명으로서의 결혼”을 강조하는 글과 말을 아끼지 않았다. 루터의 아내가 된 카타리나 폰 보라도 이에 고무되어 수녀원을 탈출했던 여성이다. 6세 때 수녀원에 보내져서 16세에 독신서약을 한 카타리나였지만, 이 과정에서 카타리나의 주체적 결단보다는 가정사나 당시 문화적 전제들이 강하게 작용했다. 이러한 때에, 결혼을 ‘소명’으로 받는 것이 성서적이라는 말에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 뜻을 같이 했던 다른 11명의 수녀들과 함께 한밤중에 정어리마차에 숨어 나오면서도 필시 새로운 ‘소명’ 인식에 들떴을 거다.

전직 사제와 전직 수녀의 결혼 생활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 기형아가 태어나거나 적그리스도로 자랄 것이라는 저주와 멸시 속에서 목회자 가정을 이룬다는 것을 ‘소명’으로 여기며 산다는 것이 매순간 도전이었을 테니까 말이다. 그 럽에도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들은 새로운 그리스도교 가정의 ‘본’을 보여주었다. 카타리나는 개혁신앙가들이 이해하는 대로 가장 전형적인 ‘돕는 배필’이었다. 비텐베르크에 있던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을 고쳐서 목사관으로 사용하는 동안 그 모든 수고로움은 카타리나의 몫이었다. 40여 개의 방에는 늘 방문객들로

5. 기 베슈텔, 앞의 책, p.75에서 인용.

6. 백소영, 『엄마되기, 아프거나 미치거나』, 대한기독교서회, 2009, pp.211-212에서 재인용.

가득했다. ‘항상 열려있는 목사관’이라는 이상도 이 때 생겼다. 루터는 이런 카타리나를 늘 칭찬하고 격려했다. ‘비텐베르크의 셋별’, ‘카리시마(선물)’, ‘집안의 안주인’, ‘박사님’ 이런 호칭으로 부르면서. 언젠가 순회설교를 나갔던 루터는 카타리나에게 애정어린 편지를 보냈다. “비로소 나는 우리 집에 얼마나 좋은 포도주와 맥주가 있고 게다가 아름다운 아내, 아니 내 주인이 있는가 하고 생각했소.”<sup>7)</sup> 루터는 카타리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맥주 한통을 보내달라는 청원도 잊지 않았다.

## 2. 개신교 여성 응시의 한계, 존재론적으로는 평등하나 기능적으로는 위계적인?

완벽해! 실제로 많은 부르주아 개신교도들의 외부 환경은 루터와 카타리나의 조력 관계를 이상화하고 따르기에 적합했다. 인류 최초로, 귀족이 아닌 평민들의 아내가 생산노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이다. 가정을 지키며 남편의 바깥 활동을 내조하는 집안의 천사! 사회학적으로 ‘전업주부’라고 불리는 이 여성 모델은 근현대 사회에 와서나 가능했다. 카타리나는 전업주부의 기독교적 선배라고 부를 수 있다. 그녀는 분명 남편을 지원하고 가정을 꾸리며 자녀를 양육하는 데 전력하는, 그러니까 ‘가정 사역’을 신적 소명으로 여기는 전례를 만든 여성이다. 하지만 『여성과 종교개혁』의 저자 키르시 스티에르나는 카타리나에 대해 이렇게 평가한다. “카타리나는 목회자의 아내이자 교수의 아내로서 무엇을 열망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열망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모범을 제시하였다.”<sup>8)</sup> 카타리나가 열망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 아니, 혹 카타리나가 열망했다 라도 승인되지 않았을 것은 무엇일까?

교리 면에서 하나의 통일된 의견을 모을 수 없었던 다양한 종교개혁자들이 유독 ‘여성의 소명’에 대해서는 일치된 의견을 가졌다는 점이 흥미롭다. 하나님의 창

7. 키르시 스티에르나, 『여성과 종교개혁』, 박경수, 김영란 옮김, 대한기독교서회, 2013, p.117.

8. 키르시 스티에르나, 앞의 책, p.122.

조 질서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묘사하며 신실한 개신교 설교자들은 이렇게 말했다. “남편이 머리라면, 아내는 몸이다.” “아내의 주된 의무는 복종이고, 남편의 주된 의무는 사랑이다.” “좋은 남편은 자상하고 순탄하게 아내를 이끌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보다 사랑하고 싶은 존재가 되려고 노력한다.” “좋은 남편은 아내가 남편의 지도를 즐겁게 따르고, 그것을 노예가 된 기분이 아니라 자유와 특권으로 느끼도록 이끄는 사람이다.”<sup>9)</sup> “남편과 아내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면에서는 동등하나 가정을 다스리고 친교한다는 점에서는 동등하지 않다.” 로버트 클리버(Robert Cleaver)의 이 분열적 선언은 종교개혁 전통의 여성이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다. 여성주의 이론가들이 소위 ‘온건한 가부장제’라고 부르는 견해이다. 그러니까 여성의 자리는 ‘가정’이요, 창조 질서로부터 유래한 소명은 내조와 육아라는 것이다. 이는 불과 한 세대 전만해도 신실한 개신교 설교자라면 반복했던 ‘여성의 소명’이었다.

정말 그럴까?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어내시면서 인류의 반을 오직 보조사요 조력자로서 살아가라고 하셨을까? ‘완전한 남자’를 만듦으로써 비로소 ‘완전한 여자’가 되라는 ‘소명’으로 부르신 걸까? 카타리나 폰 보라와 동시대 인물이었다고 자신의 소명을 ‘다른 재능’에서 찾았던 마리 당피에르는 여성을 변호하며 이렇게 썼다. “하나님이 몇몇 선한 여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에게 성서를 통해 거룩하고 선한 것을 드러내시는데도, 진리를 훼방하는 자들로 인해 여성들이 그에 관해 서로를 향해 글을 쓰고, 말하고, 선포하는 것을 망설여야 합니까? 아, 그들을 막으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뻔뻔한 일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우리가 숨기는 것 또한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sup>10)</sup>

스스로 성서를 읽고 기도와 묵상 가운데 성서 해석을 하고 이를 글로 표현하는데 재능을 발견한 여인들, 그녀들은 자신의 소명을 ‘작가됨’에서 찾았다. 작가의 영어단어 author는 무언가를 지어내는(창조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 이

9. 구미정, 김진호, 이찬수 외. 『교회에서 알려주지 않는 기독교 이야기』, 도서출판 자리, 2012, p.217.  
리랜드 라이큰 지음, 『청교도-이 세상의 성자들』, 김성웅 옮김, 생명의 말씀사, 2003 등에서 여러 쪽에 흩어져 묘사된 내용들을 모아서 재인용.  
10. Marie Dentiere, Defense of Women, 키르시 스티에르나, 앞의 책, p.268에서 재인용.

름은 권위와 직결된다. 라틴어 augere는 author의 어원인데, ‘성장하는 데 동력이 되는 힘’을 뜻한다. 스스로의 신앙과 존재의 깊이가 자라고, 나아가 동료와 이웃에게 자신이 깨달은 삶의 힘을 나누어주려고 펜을 든 여성들. 그것이 집안과 교회 안에서 손과 발의 봉사로 나타날 때에 칭송받던 여성의 소명은, 권위를 가지는 행동으로 나타날 때 견제받고 심지어 고발당했다.

또 한 명의 카타리나, 그러니까 역시 한 전직 사제와 ‘소명으로서의 결혼’을 하였던 카타리나 슈츠 젤이 이해한 ‘뚝는 배필’은 폰 보라와는 달랐다. 그녀는 사적 영역만이 아니라 공적인 목회 활동에 있어서도 동등하게 남편 마태우스 젤과 동역하였으며, 자신의 이름으로 변증을 담은 글과 찬송가집, 성서해설서를 썼다. 무엇보다 자신이 ‘사제와의 결혼’을 왜 소명으로 여기면서 신앙적 주체로서 받아들였나를 밝힌 글은 그녀가 속한 공동체를 흔들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는 스트라스부르에서 성직자의 결혼을 위한 길을 연 첫 번째 여성이 되었습니다. ... 성직자의 결혼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과 격렬한 반대를 목격하였고, 또한 성직자들 사이에 만연된 성적 타락을 보았기 때문에,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하나의 길을 격려하고 제시하려는 의도로 사제와 결혼하였습니다.<sup>11)</sup>

사제의 결혼이 아직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던 시절이다. 반면 공공연하게 첩을 두는 바람에 사제의 아내와 아이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던 시절이다. 마르틴 루터의 결혼보다도 이전의 일이다. 그러나 루터의 ‘여성 소명’에 대한 글에 고무된 카타리나는 용감하게, 그리고 주체적으로 시대의 문제를 읽고 신앙 주체로서 자신의 결단을 공적으로 피력했다. 스트라스부르 시의회의 경건한 남성들은 서둘러 카타리나의 남편 마태우스를 불러 경고했다. 제발 아내를 조용히 시키라고. 그리고 보면 마태우스야말로 성서가 그리는 이상적인 ‘뚝는 배필’의 모범을 보인 인물이지 싶다. 그는 아내를 조용히 시키지 않았고, 진정한 파트너로서 동역했기 때문

11. 카타리나의 첫 번째 소논문이다. 『남편 마태우스 젤을 위한 카타리나 슈츠의 변증』, 키르시 스티에르나, 『여성성과 종교개혁』, 박경수, 김영란 옮김, 대한기독교서회, 2013, p.236.

이다. 안타깝게도 마태우스가 죽자 카타리나의 독자적 행보는 더욱 큰 장애를 만났다.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즉흥설교를 하고, 교리적 이유로 장례집전을 거부당한 친구의 장례식을 인도하며, 자신의 신앙심과 재능에 기초하여 스스로의 삶에 권위를 부여했던 카타리나 쉬츠 젤은 의회와 교회로부터 고발당했고 공동체로부터 외면당했으며 결국 쓸쓸히 죽어갔다. 어찌 그녀뿐이랴! 성서가 말하는 해방적 복음에 고무되어 주체로 서고 자신의 재능을 발견했던 여성들 가운데 하필 그녀의 재능이 '전업주부'가 아니었던 이들은 축출되거나 미쳐갔다.

### 3. 성평등 시대에 시작하는 새로운 여성 응시, 그 기독교적 비전은?

'아내의 도움'에 어찌 제한과 한계가 있으랴. 그녀와 마주본 '남편의 도움' 역시 그러하다. 카타리나 폰 보라의 아내됨에 열광했던 개신교 '남성' 지도자들은 왜 카타리나 쉬츠 젤의 아내됨에는 그렇게나 경계와 비난의 시선을 보냈던 걸까? 개신교도들이 성서를 '다시' 읽었다는 것, 그래서 홀로 경건 수행을 하며 '그리스도의 신부'로 사는 것<sup>12</sup>이 신자들의 부르심이 아니라는 것, 아니 오히려 서로를 자라게 하는 귀한 '배필'로서 서로 짝으로 사는 삶이 본래적 창조 질서에 더 맞는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은 분명 '공헌'이다. 공동체를 '번성'하게 했기에 공헌이라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길 원하는 관계적 공동체의 모습을 성서 안에서 발견했기에 공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부르심은 각자이다. 성서 속 모든 인물들이 다 결혼 상태였던 것도 아니고, 성서 속 모든 아내들이 다 카타리나 같지 않았다. 출애굽 역사 속의 미리암, 사사 시대의 드보라, 유대교 개혁 당시의 홀다를 기억해 보라. 예수의 제자 마리아, 초대 교회의 수많은 여성 사역자들을 기억해 보라. 그녀들은 '전업'으로 가정 안에서 '보조자'의 삶<sup>13</sup>을 감당했던 여인들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역사의 특수성 안에서 다시 읽은 개신교의 여성 응시는 하나의 담론이 되고 모범이 되어 이후 개신교 여성들의 삶을 정형화해버렸다.

여성은 아내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여성은 성경 말씀을 비유로 들자면, 교회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순종과 예배가 있는 곳이지요. 따라서 아내들도 교회로서 순결과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교회에서 양육의 사역이 요청되는 것처럼 집안에서 자녀들을 돌보고 위해서 중보하는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의 '상응하는 돕는 자'로서 남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존경하며, 남편에게 맞추어 나간다면, 그런 아내는 '완전한 남자'를 만드는 '완전한 여자'가 될 것입니다.<sup>12)</sup>

'완전한 여자'가 되는 길이 오직 '완전한 남자'를 만듦으로써라니! 그럼, 여성은 신앙인 단독자가 아니란 말인가? 중세 말기 '결혼'을 하나의 소명으로 주장한 맥락은 충분히 이해가 가며, 이를 자신들의 신앙 선택으로 받아들인 여성들의 실천도 이해가 가지만, 그러나 이것이 모든 여성의 길은 아닐진대, 개신교 여성 담론이 '신적 권위'를 입고 교회 안에서 고착화된 까닭에 오늘날 수많은 젊은 여신도들이 당황스러워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 신자에게 주신 '왕 같은 제사장'의 권위로 다시 생각해 보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로서의 재능이 어찌 획일적일까? 이스라엘 초기 공동체의 비전을 보여주는 사사기의 '요담 우화' 역시 재능사회를 그리고 있지 않던가! 감람나무는 기름으로, 무화과나무는 열매로, 포도나무는 포도주로, 그렇게 타고난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기쁨과 유익을 주는 수평적 관계의 공동체(사사기 9장 참조), 바로 그런 비전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와 맞닿아 있다. 교회가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 Troeltsch의 개념 어이다)되기 이전의 생생한 산 신앙의 시절에는 재능의 사용에 있어 남녀의 차별이나 차이가 없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태어난 개인의 재능 차이였을 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진정 '변하지 않는 진리'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면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지켜야 할 일이다. 하지만 언제 하나님께서 여성의 자리를 본질적으로 제한하셨나? '돕는 배필'의 히브리어는 ezer kenegdo이다. 직역

12. 백소영, 『엄마되기, 아프거나 미치거나』, p.233. 강남의 한 대형교회 목회자의 설교 내용을 적은 것이다.

하면 '그의 마주봄과 같은 도움'이라는 뜻이다. 그 도움은 서로 마주보기 전까지는 정해질 수 없다. 각자의 재능이 다르고, 각자의 약점이 다른데 어찌 획일적일 수 있을까? 무엇보다 종교개혁의 핵심 정신은 "본래로 돌아가자!"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옆으로 서서 마주보며 각자 가진 재능으로 서로를 건설하라고 짝 지어주신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그 정신에 부합되는 것이 아닐까?

“만일 나의 주님께서 나에게 열 달란트를 주셨다면, 나의 의무는 그것으로 장사하여 열 달란트를 더 만드는 것입니다. 집 안의 장롱 먼지 속에 그 동전을 묻어두어서는 안되지요. 나는 그것을 찻주전자에 넣어 찬장 속에 놓아두지 않겠어요. 식료품 선반 위, 빵 버터 과자 햄과 나란히 놓지 않을래요. … 어머니, 우리 각자에게 재능을 주신 주님은 언젠가 집에 오셔서 모두에게 보고서를 요구하실 거예요.”<sup>13)</sup>

19세기 목회자의 자녀요 신실한 신앙인이었으며 여성 작가였던 샬롯 브론테는 소설 속 주인공의 입을 빌어 이렇게 말했다. 그러게 말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탈란트, 재능)를 어찌 물어둘 수 있으랴. 또한 그 소명이 어찌 획일적으로 '결혼'하여 '아내와 엄마'가 되는 것만일 수 있으랴. 기독교 개혁 500주년, 그 개혁 정신을 이어 받아 바통을 꼭 쥐고 달리는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새로운 신앙고백 안에는,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 고정되고 닫힌 응시로 '너의 재능'을 제한하거나, 핵가족만을 정상가족으로 신성화하면서 결혼하지 않는 선택을 하였으나 의미 있고 헌신적인 공동체적 실험을 추구하는 '소명'을 가진 신앙인들을 억압하는 언어는 답갈 수 없다. 기독교 전통의 여성 응시에 또 다시 새로움을 담아낼 과제가 우리 앞에 주어져 있다.

### 글을 쓴 백소영은

여중 여고를 나와 이화여대 기독교학과와 동대학원에서 기독교 사회윤리를 공부했고, 보스턴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다시 이화여대에서 가르치고 있다. 이에 스스로를 '여성 공동체의 산물'이라 부르고 있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엄마되기, 힐링과 킬링 사이』(대한기독교서회, 2013), 『세상을 욕망하는 경건한 신자들』(그린비, 2013) 등이 있다.

13. 샬롯 브론테, Shirley (1849), 오정화 『19세기 영국 여성 작가와 기독교』,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p.14에서 재인용.



## 페미니즘 물결과 한국교회, 그리고 기독교여성들

한국의 기독교여성들, 빛을 찾아 달리다 • 김신애

페미니즘과 YWCA운동 • 최만자

교회 성폭력,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 채수지

나는 '참자매'도 '사모감'도 아니다 • 김수진

새로운 변화의 물결, 페미니즘 청년목회 • 나연수

# 한국의 기독교여성들, 빛을 찾아 달리다

김신애  
감리교 목사

## 들어가며

유럽과 북미의 개신교 교회들이 조선을 주목하고 선교사들을 파송한 것은 1885년 무렵, 제국주의가 한창 발흥하던 19세기 말의 일이었다. 이후 한국의 개신교 교회여성들은 복음과 함께 근대 교육을 통한 신분의 상승을 경험했으며 식민지 지식인 여성으로서 민족의식과 사회의식을 획득해 나갔다. 조선은 근대 이후 일제 말 혹독한 탄압과 불세비키즘의 도전, 한국전쟁, 독재정권의 탄생, 민주화 물결 등 역사적 격랑 속에서 고도로 압축된 경험을 따라잡아야 했다. 교회여성들은 그 고비 고비마다 ‘여성 집단’으로서 응답해 왔고 이에 따라 자기 인식과 사회적 반응, 이념 성향이 다양한 갈래로 세분화되었다.

그 결과 우리 시대 교회여성들은 상반되는 사회 문화 정치적 집단, 즉 보수적인 성역할에 충실하면서 탈정치적인 여성 교인과 개혁적이고 진보적 의제에 활발하게 대응하는 엘리트 세력을 동시에 포괄하고 있다. 이것이 한국교회 여성들이 하늘로부터 받은 은총인지 이도 저도 못한 양날의 한계일지는 아직 누구도 알 수 없

는 일이다. 여성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모먼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서로 ‘꼴똥’ 혹은 ‘빨갱이’라고 손가락질하는 대신 다양한 여성들의 목소리에 공평하게 귀 기울이며 그 각각의 역사와 맥락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에 이 글에서는 조선에 있어 ‘본래적’ 복음이 여성들을 위한 강력한 해방의 메시지였다는 것과 그것이 부패하고 비정치화된 과정, 그리고 민주화와 시민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여성의식으로 어떻게 발현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 글은 특정한 경향을 가지고 편집한 역사, 즉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민주·진보 가치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정리한 한국교회 여성들의 역사이다. 다시 말해 ‘나의 관점에서 본 나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라는 주체는 관계로부터 뚝 떨어져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 일정한 맥락과 네트워크 안에 ‘좌표’로서 존재한다. 그 좌표로부터 거슬러 올라간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자.

## 1. 페미니스트 변혁의 과정

세계사적으로 ‘조직된 여성 집단’의 운동이 출현한 시기는 18세기 말 유럽의 근대혁명기에 맞물려 있다. ‘여권신장운동’, ‘자유주의 페미니즘’으로 분류되는 평등권의 선언은 여성의 교육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사회적·정치적·법률적 지위가 확보될 것을 주장하며 확산되다가 1973년에 일단락되었다.

이후 제2차 페미니즘 물결(Second Wave)이라고 불리는 두 번째 페미니스트 운동은 미국에서 여성들이 흑인해방운동에 참여하면서 가시화되었다. 1848년 세네카폴스의 웨슬리교과 교회에서 열린 여성참정권대회는 ‘바람직한 어린 시민의 양육을 책임지는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를 마땅히 향유하여야 할 자율적인 개인으로서의 여성’을 주장하며 여성 권리선언문을 발표하고 재산권, 투표권, 교육, 의료 등 다양한 정치분야에서 여성운동을 진행해 나갔다. 이들이 마침내 제도적 참정권을 획득한 것은 수정헌법 제19조가 통과됐던 1920년, 세네카폴스 대회로부터 무려 72년만의 일이었다.

그 뒤로 또 다시 동면에 들었던 여성운동은 1960년대 반전운동 등의 사회변혁과 인간에 대한 근본적 회의 및 성찰이 소용돌이치던 시기에 또 다시 급진적 페미니스트 운동으로 접화되었다. 이때 비로소 여성들은 가부장제와 성차별에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기 시작했고 단순한 권리의 쟁취가 아니라 광범위한 사회문화적 변화를 추구했다. 페미니스트 이론뿐 아니라 문화이론, 미디어 분석 등이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남성 중심적 종교에 대한 여성주의적 해체가 다양하게 시도되었다.

## 2. 조선여성, 해방의 복음을 만나다

조선에 개신교 복음이 전해진 것은 1884년, 조선 개신교의 주 선교국이었던 미국에서는 여성참정권 운동이 한창이던 시기였다. 미국 감리회 여성교회 해외선교부의 과송을 받아 53세의 나이로 아들, 며느리, 손자와 함께 조선 땅을 밟은 선교사 스크랜튼 대부인은 당시 규방에 갇히고 교육과 의료로부터 배제된 채 이름도 없이 철저히 '비가시적 존재'로 존재했던 조선여성들을 찾아 동료로 삼았다. "여성이 여성에게 복음을 전하자"라는 캐치프레이즈를 품고 대부인이 제일 먼저 착수한 일은 1886년 여성교육을 위해 이화학당을 설립한 일이었다.

낯선 외국인이 가르치는 서양식 학교를 처음 찾았던 여성들은 버림받고 소외된 이들이었다. 영어를 배워 왕비의 통역이 되길 원했던 첫 학생이 3개월 만에 그만둔 뒤 두 번째 학생이 된 꽃님이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어머니가 학당에 버리다시피 맡긴 아이였고 별단이는 전염병에 걸려 쫓겨난 여인의 딸이었다. 그러나 이화학당의 제1회 졸업생은 18년 뒤인 1914년에야 배출되었다. 당시 환경에서는 결혼하는 즉시 학업이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교육받은 결과는 놀라웠다. 가난한 선비의 딸이었던 점동이(박에스티)는 이화학당에서 제일 영어를 잘했던 학생이었는데, 보구여관 로제타 홀 선교사의 통역을 맡았다가 그 인연으로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에

진학했으며 조선 최초의 여의사가 되었다. 또 인천별감 하상기의 후처였던 하란사(하넌시)는 일본 동경 경응의숙에서 유학하고 조선여성 최초로 미국 웨슬리안 대학에서 문학을 취득하고 귀국해 이화학당과 로드와일러 부인성경학원 등에서 후학을 가르치는 한편 독립운동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1909년 5월 5일자 황성신문에는 4월 28일 경희궁에서 거행된 '여성 유학생 환영회'에 대한 기사가 실렸다. 박에스티와 하란사, 부친의 지원에 힘입어 일본과 유럽에서 유학한 윤정원을 위한 자리였다. 기사는 "아국 오백여 년 부인계에서 외국에 유학하여 문명한 지식으로 여자를 교육함은 초유한 미사(美事)라 여자 학업이 종차(從此) 발달됨은 가히 찬하하겠도다"라며 환호를 보냈고 자리에는 무려 700~800여 명의 하객이 운집했다.

선교사들은 미션스쿨과 의료원 설립에 온 힘을 기울였고 조선 사회에서 딸들에 대한 교육열이 급속도로 높아져갔다. 이는 1919년 3.1운동 당시 여학생 네트워크의 동력으로 작용했을 뿐 아니라 근대 이후를 이끌었던 여성지도력의 저력이 되었다. 개신교 여성들이 비천한 환경을 이겨내고 주체적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선교사들을 통해 서구문물을 빨리 접할 수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독교 복음을 자기발전과 해방의 경험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었다.

## 3. 여성신학교육과 여성안수

'남녀칠세부동석'이라는 조선 말기 유교문화 덕분에 조선의 교회여성들은 '남성의 개입 없이' 고유의 교육적 풍토와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었다. 남성은 규방에 들어가거나 여성과 접촉하거나 대화할 수 없기 때문에 잘 교육받은 여성 사역자들의 보조가 반드시 필요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여자와 남자를 엄격하게 분리하는 가부장 문화는 오히려 교회 여성지도력이 발달하는 데 지대한 호재로 작용했다.

선교사들은 서둘러 전도부인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들을 설립하고 성서뿐

아니라 보건, 음악 등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근대교육을 받은 전도부인들은 조선 땅 구석구석까지 다니며 기독교 복음뿐 아니라 근대적 정신을 전달하는 메신저로 활약했고 남성의 시각으로 정형화된 제도권 복음이 아니라 여성 스스로 배우고 익힌 삶의 복음을 전했다.

이런 교육기관 중에서 가장 먼저 설립된 것은 1890년, 역시 스코틀랜드 대부인이 시작한 전도부인양성소였다. 사경회에서 성경을 공부한 여성들 중 리더십과 학구열을 갖춘 이들을 추려 이들과 함께 성경과 찬송, 주기도문, 사도신경 등을 공부해 나갔다. 대부분 교회에서 전도와 구제, 예배 등을 전담하면서 먼 길을 오가며 학업을 병행하느라 고된 공부였는데도 성실하고 열정적인 모습이였다.

전도부인양성소는 1912년부터 로드와일러성경학원(부인성경학원)으로 교명을 바꾸고 충청로에 교사를 건축했으며 교사진을 확충했다. 1920년에는 남북 감리회가 여자신학교를 통합하면서 다시 교명을 '감리교협성여자신학교'로 바꾸었다. 교장이었던 채핀이 후일 『신학세계(神學世界)』에 기고한 논문에서는 본국에서도 채 성숙하지 못했던 자생적 여성신학의 기초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논문은 ① 여성에 대한 기독교(基督)의 태도(제16권 4~5호, 1931. 8~10), ② 여성에 대한 예수의 책망(제17권 4~5호, 1932. 7~9), ③ 예수께서 여자를 변호하심(제17권 3호, 1932. 7), ④ 예수와 버림당한 여성들(제17권 6호, 1932. 11), ⑤ 예수께서 보신 여자의 지능(知能)과 영능(靈能)(제17권 1·2호, 1932. 3) 등 다섯 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복음서에 나타난 여성에 대한 기사들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여성관(女性觀)을 정리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1930년 제1회 조선감리회 총회에서는 채핀 교장을 비롯한 13명의 여성 선교사들에게 목사안수를 주고 이에 신학교를 남녀공학으로 통합하기에 이르렀다. 비록 감리회가 한국인 여성목사인 전밀라, 명화용을 배출한 것은 이로부터 25년이 지난 1955년의 일이었지만 당시 교단 내 여성지도력의 역량이 시대를 훌쩍 앞서갈 정도로 지대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 4. 3.1 만세운동과 근우회

복음을 통해 근대교육을 받은 여성들은 나라와 민족의 위기 앞에서 열렬히 독립운동에 투신하기 시작했다. 선교사들이 대체로 민족문제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데 반해 학생들은 이미 민족지도자로서의 면모를 갖추어나가기 시작했다. '버림받고 소외된 여성'에서 '고학력 엘리트 여성'으로 탈바꿈한 기독교계 여학교 학생들과 전도부인들은 전국 각지를 발로 뛰며 태극기와 선전물을 나눠주고 시위를 조직했으며 체포되면 강도 높은 고문과 수형생활을 견뎌냈다.

3.1운동이 결국 실패로 돌아가자 항일여성단체들이 대부분 해체되고 1924년에는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로 분화했다. 교회여성들은 주로 민족주의 세력의 중심에 자리 잡고 농촌계몽운동, 민족경제진흥운동(금 모으기 등), 신앙운동이나 생활향상운동 등을 펼치며 일제 탄압을 피해 민족자강을 꾀했다. 김활란, 김필례, 유각경 등의 주도로 1922년 결성된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한국YWCA)가 이러한 활동의 중심이 되었다.

1927년 5월 창립된 '근우회(槿友會)'는 양분된 민족주의 및 사회주의 계열 여성들이 통합을 시도했던 최초이자 최후의 시도였다.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중앙집행위원은 박신우, 박원희, 우봉운, 이덕요, 이현경, 정종명, 정철성, 조원숙, 황신덕 등 사회주의계 9인과 김선, 김영순, 김활란, 방신영, 유각경, 차사백, 현신덕, 홍시덕 등 민족주의계 8인, 김동준, 박경식, 유영준, 최은희 등 중립계 4인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조선 여성의 굳은 단결, 조선 여성의 지위향상'을 강령으로 내걸고 전국 70여 개 지회를 만들어 도쿄, 간도에까지 조직을 확대했으며 기관지 『근우』를 발간했다. ▲교육의 성차별 철폐 및 보통교육 확장 ▲여성에 대한 봉건적·사회적·법률적 일체 차별의 철폐 ▲일체 봉건적 인습과 미신타파 ▲조혼폐지 및 결혼·이혼의 자유 ▲인신매매 및 공창폐지 ▲농촌부인의 경제적 이익 옹호 ▲부인노동자의 임금차별 철폐 및 산전산후 휴양과 그 임금 지불 ▲부인 및 소년노동자의 위험노동 및 야간작업 폐지 ▲언론·출판·결사의 자유 ▲노동자·농민의료기관 및 탁아소 제정 확립 등 이들의 행동강령은 오늘날 여성운동의 프로파간다로도 손색이 없을 만큼 급진적인 주장을 포함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1929년 말 일본인 남학생이 조선인 여학생을 희롱한 것이 발단이 된 ‘광주학생운동’ 이후 이들은 서울시내 여학생들을 조직해 1930년 1월 15~16일 ‘서울여학생 만세운동’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 일로 사회주의계 지도부가 검거되고 일제의 탄압이 강화되면서 신간회 해체와 함께 근우회도 해산되었으며 여성계의 분화는 더욱 심화되었다.

## 5. 한국전쟁과 교회여성들

1945년 해방 이후 좌우의 대립이 극심했던 상황에서 개신교 교회는 이승만 박사를 중심으로 한 우익 세력과 손을 잡으면서 정치적으로 급격히 우경화되었다. 일제 말 극심한 탄압과 절망을 못 이겨 변절과 타협으로 생존한 엘리트 교회여성들은 해방공간과 분단된 친미정권에서 부패한 정치적 이권을 누렸다.

이런 교회여성들의 독주에 전기를 마련해준 것이 1950년 한국전쟁이었다. 전후 남편을 잃은 여성들과 가족을 잃은 아이들이 교회로 몰려들어 새로운 교회 대중을 형성했던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교회는 제2의 부흥기를 맞이했다. 1907년 평양과 원산에서 벌어졌던 대부흥운동은 신앙을 바탕으로 한 민족의식이 고취되는 사회적 각성운동으로 발전했지만, 빌리 그레이엄으로 대표되는 전후의 부흥운동은 전후의 가난과 절망을 버티게 해 주는 진통제로 기능했다. 빌리 그레이엄은 1952년 전쟁 중에 부산과 서울을 찾아 피난민들을 위로했고 1956년에는 서울운동장에서 8만여 명 규모의 집회를 가졌다. 세 번째 방문인 1973년에는 전국순회집회에 이은 4일간 334만 명이 참석한 여의도 집회로 4만4천 명의 결신자(決信子)를 내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일부 교회여성 지도자들은 이 여성들을 품고 위로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펼쳤다. 루시여학교와 감리교신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원산중앙교회 전도사로 있다가 철원 대한수도원의 2대 원장으로 취임한 전진은 어느 날 수도원에 찾아온 한 여인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신유를 체험한 뒤 강력한 성령운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수도원을 찾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잠자리와 음식을 제공했으며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전국적으로 ‘제단’을 세우고 제단지기들과 함께 ‘성령춤’, ‘안찰’ 등 독특한 영적 문화를 형성했다. 이 문화는 특히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국교회 깊숙이 자리 잡았으며 친밀한 교제와 폭넓은 연대감의 기반을 제공했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해 이미 교육, 정치, 문화, 사회적 기반이 전부 무너져 있었기에 이 시기 영성운동은 지적 성찰이나 삶의 변혁으로 발전되지는 못했다. 대다수 교회여성들은 철저히 비정치화되고 반공 이데올로기와 기복신앙에 경도됐다. 게다가 이어진 군부독재로 가부장제가 사회 기저에 고착되면서 이전의 화려했던 여성운동은 철저히 잊혀진 역사가 되었다.

## 6. 민주화운동과 교회여성들

잠들어있던 교회여성들의 의식이 다시 깨어난 것은 박정희 유신독재와 1980년 5.18 광주항쟁, 신군부 독재에 항거하던 민주화운동과 그 궤를 같이 한다. NCCK를 주축으로 한 진보 개신교계는 해외교회의 연대에 힘입어 다양한 방법으로 민주화운동을 지원했으며 인천과 영등포의 산업선교회를 중심으로 한 노동운동과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을 중심으로 한 통일운동의 주축으로 활약했다. 이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두 여성 지도자가 바로 조화순 목사와 박순경 교수다.

조화순 목사는 1934년 인천에서 태어나 심훈의 『상록수』를 읽고 농촌계몽운동을 하려고 교사가 되었다가 늦게 신학교를 마치고 감리교에서 안수를 받아 아홉 번째 한국인 여성 목사가 되었다. 그러던 1966년 달월교회 담임자로 시무하던 중 조지 오글 목사를 만나 인천 공단지역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산업선교회 목회자로 파송을 받았다. 이후 조 목사는 인천산업선교회 총무직을 역임하며 18년간 여성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았다. 십대, 이십대 여공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해 농성하다가 남자직원에게 의해 똥물을 뒤집어 쓴 동일방직 ‘똥물사건’, 그리고 연이

은 단식농성, 두 번에 걸친 투옥을 거치며 조화순 목사는 어느덧 세계적으로 알려진 ‘노동계 대모’가 되었다. 조 목사는 이 모든 삶의 여정에 대해 자주 “나는 대단한 사상이나 철학이 있지 않다. 다만 예수처럼 살려고 했을 뿐”이라고 말한다.

박순경 교수는 1923년 출생으로 세브란스 간호학교 시절 김옥선과 교유하며 사회주의 항일운동가들과 인연을 맺고 민족문제에도 눈을 뜨게 됐다. 조국 해방 즈음에 겪은 부모님의 죽음과 자신의 질병으로 ‘삶과 죽음의 문제’에 맞닥뜨린 그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성경문구를 떠올리고 그 길에 감리교형성신학교를 찾아 신학도가 되었다. 그러나 그는 신학교에서도 민족과 분단이라는 화두를 놓지 않았고, 기독교가 반공할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와 대화하고 합일해야 한다는 주제에 몰두했다. 서울대 철학과 편입, 미국 에모리 신학부, 드류 대학원 등에서 무섭게 학문에 파고든 박순경 교수는 1966년 이화여대 신학과 교수로 취임해 1988년 퇴임할 때까지 강단을 지키며 ‘통일신학’을 가장 선도적으로 이끄는 학자로 활약했다. 1991년에는 제일 대한기독교가 주최한 ‘평화통일과 기독교선교에 관한 동경회의’에서 “기독교는 주체사상과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가 106일 만에 풀려나기도 했다.

이 두 여성이 겪어낸 한국 민주화 역사 속에서 조직된 여성들의 힘이 ‘한국 여성’으로서의 자기인식으로 발현된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으나 1970년대 후반 한국교회 여성연합회를 중심으로 소개된 서구 페미니즘과 여성신학에 힘입은 바 크다. 교회여성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불합리와 차별을 구조적으로 설명하고 새로운 운동의 방향을 제시하는 사상과 이론을 적극 수용했으며 1980년 ‘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 출범으로 그 역사적 획을 그었다. 협의회에 참여한 일군의 여성신학자들은 세미나와 강연회, 출판 등의 활동으로 계속해서 서구 여성신학의 내용을 한국사회에 소개하는 한편 민족 문제와 전통 문화를 여성 관점으로 해석하고 성폭력 문제 등 새로운 이슈를 발굴하는 등의 활동을 펼쳤으며 그 주제와 목적에 따라 여러 기독교여성단체들이 꾸려졌다. 여성협에 비해 비교적 활동가 중심으로 구성된 기독교민회가 1986년 꾸려졌으며 여성안수 문제도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다. 1930년 이미 여성안수를 시작한 감리교의 경우 ‘결혼한 여목회자는 담임을 할 수 없다’는 독소조항이 1972년에 제정돼 1989년까지 17년간의 치열한 투쟁을 거치

고 나서야 비로소 삭제되었다. 기장은 1974년 여성안수를 허용했고 예장 통합도 분투 끝에 ‘기독교여성 평화통일 희년운동’ 이듬해인 1996년 여성안수를 쟁취했다. 한국성공회에서 여성사제 서품이 이루어진 것은 2004년의 일이었다.

1980년대 중후반에는 신학교에 속속 여성신학회와 여학생회가 만들어졌고 1990년대 중후반에 이르러서는 영페미니스트 문화계열라 운동의 영향으로 기존 운동권 문화의 가부장성을 비판하며 조직으로부터 독립된 여성그룹이 생겨나기도 했다. 이 시기 교회여성들은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를 비롯해 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여성민우회, 성매매근절을위한소리회,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비전향장기수송환운동, 공부방 등 빈민철폐운동, 청소년 쉼터 설립 등 사회적 여성 의제에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참여하며 역량을 성숙시켜 갔다. 내 기억에 교회여성들은 모든 현장에 다 있었다.

## 7. 그리고 나

내가 신학교에 입학한 것은 1997년, 학생운동이 동력을 거의 잃었던 시기였고 IMF로 청년들이 빚에 쪼들리기 시작하기 직전의 일이었다. 돌이켜 보면 우리 또래는 부모 세대로부터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풍요를, 국민의 정부로부터 안정된 학습 환경과 PC통신을, 여성 선배들로부터 어렵지 않게 페미니즘과 여성신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비교적 행운아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학교에 입학할 때 면접을 담당한 교수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다.

“여자가 왜 신학을 공부하려고 하느냐?”

“사모가 될 거라면 굳이 신학공부 할 이유가 뭐냐?”

이런 류의 질문에 “하나님의 소명은 남성과 여성을 차별치 않는다고 믿는다”라고 대처할 수 있게 되기까지 내게는 6-7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다. 29살에 목사가 되고 어느덧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성’이라는 종족의 가능성을 축소하고 은

폐하려는 시도에 습관처럼 마주하게 된다. 대개는 경험을 통해 배우고 익힌 대로 요령있게 충돌을 피하고 때로는 요행히 상대를 설득할 기회를 얻기도 하지만 교회와 사회를 가득 메운 가부장제 자체를 무력화시키기란 요원한 일이다. 나뿐 아니다. 여성들은 늘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질문 앞으로 끌려간다. “너는 왜 그렇게 사는 거냐?”

나는 친구 덕분에 대학시절의 절반과 대학원 시절 모두를 여학생회 활동으로 보내며 갖가지 젠더와 섹슈얼리티에 관련된 이슈들을 채득해 갔다. 우리는 ‘안티미스코리아 대회’, ‘월경페스티벌’ 등에 열심히 참여했고 페미니스트 저널 『IF』를 구독했으며 인터넷 저널인 <일다>와 <언니네트워크>에 열렬히 접속했다. 메리 데일리와 엘리자베트 존슨을 탐독했으며 강남순 선생님의 강의를 자신의 세계관에 새겼다. 어느 날 친한 언니 손에 이끌려 간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에서는 좋아하는 여성 선배들과 함께 이렇게 저렇게 가족처럼 어울려 지낼 수 있는 큰 복을 누렸다. 과정에 따라 초기 감리교 여성들의 신학교육기관을 주제로 석사 논문을 썼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몇 차례 일터를 바꿔가며 경력을 채워가는 동안 어느 새 뒤쫓아 온 후배들은 자신들의 젊은 경험에 대해 ‘페미니즘’과 ‘여성신학’의 언어로 말을 걸어왔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선배와 동료와 후배가 교차하는 이 거대한 맥락 속에서 나는 내 지금의 좌표가, 나의 ‘페미니스트 모먼트’가 결코 나만의 것일 수만은 없으며 동시에 전부일 수도 없다는 것을 거듭 체감한다. 반짝반짝 빛나는 역사도, 구질구질한 역사도 ‘나’로부터 ‘우리’로 엮이고 커져가는 관계적 주체 속에서 ‘오늘’에 재정립되고 새로운 가능성을 획득한다.

## 글을 맺으며

외부의 시선으로 보면 오늘날 한국교회는 함부로 남의 인권을 침해하고 무례한 자신을 자각하지도 못하는 꼰대 집단일 수 있고, 그 중 여성들은 패션 감각도 후지고 자신의 삶을 주장할 줄 모르는 구시대 엄마 집단일 수도 있다. 내가 두드러

지게 보이도록 한 진보적 여성운동이 교회여성 대중들에게 널리 공감을 얻지 못하고 괴리되어 있다는 것은 뼈아프고도 엄연한 현실이다. 그러나 편견을 딛고 용기 내어 말을 걸어 보면 교회 남성 ‘꼰대’들에게서 여성운동에 대한 존중과 잘 정돈된 개념, 여성들과 서툴지만 나이스하게 협력하고 싶은 욕구를 발견할 때도 많다. 또 일견 의식화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구시대 엄마들’에게 거대한 해방에의 선망과 열정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잘 숨겨진 여성들의 관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때로는 교회 내 진보 여성들과 보수 여성들이 여러 형태로 모종의 동지적 공생관계를 맺고 있다는 실마리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오늘날 여성들은 시대를 거스르는 갖가지 혐오발언을 쏟아내는 교회를 견디다 못해 젊고 약한 고리부터 떨어져 나가는 중이다. 이 임계점이 어디가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종교개혁 500주년에 현대적 의미의 교회개혁이 실천되려면 여성혐오 문화와 성차별 구조를 바꾸는 게 가장 시급한 선결과제라는 주장에 이의를 달 사람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교회여성들은 다시 한번 혁명의 주체가 될 것인지, 모순을 견디다 붕괴해 버릴 것인지를 묻는 선택의 기로에서 서서 어느 때보다 큰 소리로 ‘여성들의 오래된 미래’를 독경하고 있다. 지난 9월 7일에는 문대식 목사 면직과 교회 내 성폭력 OUT을 외치는 검은 옷의 젊은 교회여성들이 광화문 감리교회관으로 모여들었다. 장신, 한신, 감신 등 교단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들은 각기 다른 이야기로 성폭력의 경험을 공유하고 같은 마음으로 분노했다. 여성혐오에 저항하는 여성들의 분노로 뒤덮였던 ‘강남역 10번 출구’와 소설 『82년생 김지영』이 가관에 놓인 서점, 한 레즈비언 활동가가 “나의 인권을 반으로 가를 수 있느냐”며 절규하던 어느 ‘성평등포럼’에는 여전히 오늘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교회여성들이 있었다. 이들이, 우리가 시대의 한복판을 자유롭게 당당히 횡단해 스스로 새로운 역사가 되어갈 것을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며 축복한다.

## 글을 쓴 김신에는

감리교 목사이며 현재 인천기독교신문사 기자,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15년 차 연구원, 감리교 여교역자회 실행위원, 평화교회연구소 운영위원 등을 맡고 있다. 감리교신학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역사신학 전공 석사학위를 받았다. 감신대 총여학생회장, 아산살림교회 담임자,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사무국장을 역임했다. 논문으로 「초기 감리교 여성신학교육에 대한 연구(1900~1941), 2006」가 있다.



# 페미니즘과 YWCA운동

## 초기 운동을 중심으로

### 최만자

한국YWCA연합회 생명비전연구소 위원, 여성신학자

## 들어가며 - 초기 운동주제와 초기 페미니즘의 발아

이 글을 쓰게 된 데에는 몇 가지 계기들이 있다.

첫째, 창립 100주년을 눈앞에 둔 한국YWCA가 한 세기의 세월을 한국사회 여성들을 위해 수많은 활동을 전개 해 온 시점에 스스로 다양한 성찰을 하고 미래 역할과 과제를 짚어볼 필요성 때문이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영향력 있는 한 여성단체로서 YWCA는 한국 여성들의 '주체적 삶'을 살게 하며 '성차별의 조건을 제거'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였을까? 이것은 여성운동체로서의 YWCA 100년을 평가하는 것에 큰 관심을 갖게 하는 질문임에 틀림없다. 최근 YWCA에서 진행한 '한국YWCA 활동가 성평등 인식 조사' 결과는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의 일면이 될 것이다.

둘째,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므로 그 정신에 비추어 한국교회도 자신을 평가하고 있다. YWCA 회원의 다수가 교회여성들이며 지도력의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신앙과 YWCA운동, 그리고 페미니즘의 상관관계를 확인함은 유의미하

다고 생각한다.

셋째, 최근에 사회와 교회 안에 일고 있는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의 증폭현상에 대해 여성운동체로서의 YWCA가 어떤 위치와 역할이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런 관심들에 답을 찾기 위하여 필자는 창립 초기의 YWCA 페미니즘 성격과 활동의 주제들을 정리한 후 그 주제들이 어떻게 YWCA 활동 안에 이어져 흘러갔으며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 YWCA 초기 운동주제들

우선 창립 정신과 초기 활동의 성격을 필자는 이렇게 정의하여 보았다. “기독교 엘리트 여성들이 식민지 상황에서 ‘애국, 자강’을 열망하고, ‘남녀평등·여성해방’을 통해 당시의 철저한 가부장적 사회에서 비인간적 억압을 당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새로운 삶’을 갖게 하기 위한 운동,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성취하여 ‘계몽, 교육활동’을 적극 펼치려 한 운동.”

이런 기본 정의에 근거하여 초기 운동의 주제들을 다섯 가지로 간추려 보았다. ① 여성들이 여성들을 위해 벌인 운동 - YWCA운동 주체의 문제, ② 국가와의 관계에서 보는 YWCA운동, ③ YWCA의 중심 운동 - 성평등운동, ④ YWCA 복지운동의 발아와 전개, ⑤ 기독교 신앙과 YWCA운동, 그리고 페미니즘 등이다.

필자는 벨 후크스(Bell Hooks)가 말한 대로 ‘페미니즘’을 ‘성차별주의에 의한 억압과 차별을 없애는 운동’으로, 동시에 ‘여성 주체성’을 갖게 하는 운동으로 정의하면서, YWCA 활동의 주제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사실 그 주제들은 창립 당시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 초기 페미니즘의 발아

구체적으로 YWCA의 페미니즘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엄한 존재’라는 창세기 1장의 성서적 근거로부터 출발한다.<sup>1)</sup> 강남순 교수는 이

를 ‘기독교 페미니즘’(Christian Feminism)<sup>2)</sup>이라 명명할 수 있다고 말한다. 조선후기 사회를 변동시킨 기독교는 봉건적 의식으로부터 인간을 해방하여 개개인이 존엄한 인간존재로 자각하게 했고 그 새로운 질서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 이 ‘만인평등 사상’은 특히 여성들에게 해방적 삶에 대한 열망을 일깨웠다. 이러한 기독교 페미니즘의 발아를 통해 계몽 교육 활동을 하며 여성들을 개화시키고 민족독립을 이룰 힘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열정이 YWCA 활동의 원동력이 되었다. ‘여성도 인간이다’라는 ‘평등성’의 자각에서 시작된 YWCA 페미니즘은 19~20세기 초의 서구 제1세대 페미니즘의 영향도 내포하고 있다. 서구 문물을 접한 초기 지도력들이 그 배경이 되었고 개신교 여선교사들의 영향 또한 받았다. ‘자유주의 페미니즘’이라고도 불리는 1세대 페미니즘은 ‘여성의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평등’을 주장하며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평등, 인간으로서의 공통성을 주장한다. 이 특성은 기독교 페미니즘 사상으로 자연스럽게 흡수되었다. 이러한 정신은 창립 초기로부터 시작하여 그 이후의 활동들의 정신적 기반으로 작용한다.

## 1. 여성들이 여성들을 위해 벌인 운동 - YWCA운동의 주체가 누구인가?

페미니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가부장제 사회는 여성을 2차적 존재, 종속적 존재로 보면서 여성을 주체적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여성들의 경험을 왜곡하고 가치 절하하고 은폐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페미니즘은 여성의 경험을 주체로 세워 세상을 다르게 해석한다. 여성 주체를 찾는 것, 그리고 여성들이 운동의 주체로 어떻게 서 있는가 하는 것은 그 운동을 페미니즘의 시각으로 평가하는 데 중요하다.

1. 최만자, 『여성의 삶 그리고 신학』, 대한기독교서회, 2005.

2. 강남순, 『페미니즘, 포스트모더니즘, 그리고 탈식민주의 시대의 신학』,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제13집.

YWCA의 운동주체는 당연히 여성들이다. 여성들이 여성들을 위한 운동을 한 것이다. YWCA 초기 운동의 주체는 ‘엘리트 기독교여성’이었다. 김활란, 김필례, 유각경 세 분 창립자들을 필두로 YWCA 활동에 참여한 이들은 거의 당시의 엘리트 기독교여성들이었다. 이들이 깊은 신앙심과 책임감으로 어둠 속에 헤매는 무지한 여성들을 구해내야 한다는 열정에 사로잡혀 창립한 것이 바로 ‘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한국YWCA)’였다. 창립 발기문에서 유각경은 “저 암매한 조선여성들을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다.

이 엘리트 여성들은 일반여성들의 해방을 위해 계몽 교육에 힘썼고 또 한편으로는 ‘여성지도력 개발’에 총력을 기울였다. 초기에는 임원 양성교육, 지도력 개발, 해외훈련, 그리고 학생YWCA 설립으로 미래 지도력을 키우는 데 전념하였다. 이 지도력 양성은 1947년 박에스터 선생의 참여로 더욱 강화되었고 세계적 지도력 양성으로 확장되었다. 1950년대에는 전문적 간사와 자원활동가 자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이 실시되었고, 여성 지도력이 부족한 1960~70년대에 YWCA의 지도력은 사회 지도력으로서 자리잡았다. 이렇게 당시의 사회 지도력들이 YWCA에 참여하여 지도력을 발휘하고 동시에 지도력을 양성하는 인적 자원으로서 역할을 하였다. 그리하여 해방 이후 한국사회 여성 지도력의 상당수가 YWCA를 통해 배출되었다. 1990년에는 자원활동가 확장을 지향하면서 지도력 양성은 더욱 고조됐고 2000년에는 그 단계적 양성을 위한 교재를 개발하는 데까지 이른다. 이런 결과 지도력 개발에 총력을 기울인 YWCA의 활동들은 한국 사회 전반에 커다란 공헌을 하면서 많은 미래의 여성리더십을 키워내게 되었다. 이 말은 YWCA가 여성리더십 육성을 통해 어떤 위계적 지도층을 양산하였다는 것이 아니다. 이를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만큼 ‘주체적인 여성’,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사는 능력을 가진 여성들을 배출함으로써 주체적 여성의 범위를 확장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확장된 주체의 여성들이 ‘엘리트 여성’에 머무르는 한계를 가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1997년까지 공유된 YWCA목적문은 이를 반영해 준다. ‘젊은 여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창조주이심을 믿게 하며…’로 시작되는 목적문은 YWCA가 몇몇 엘리트들이 주체가 되어 많은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계몽,

교육하는 활동을 한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원이 주체가 되고 대중이 주체가 되는 활동이 아닌 지도자들에 의해 이끌리는 운동은 진정한 여성 주체적 운동이라 하기 어렵다. 그것은 몇몇 영웅적 존재들의 자선적이고 시혜적인 활동이 되어 대중 주체력을 발생시키지 못한다. 그런데 1997년 전국대회에서 이 목적문은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 라고 개정되었다. 이것은 엘리트 여성 주체를 대중 여성 주체로 전환한 YWCA 의식의 변화를 보여준다.

사실 전체 맥락에서 보면 한국여성운동은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엘리트 중심에서 대중으로 방향 전환을 하게 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YWCA의 엘리트 중심적 운동 또한 시대적 영향 아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성 운동은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이 대중화의 영향으로 성평등의 가치를 법, 제도적 측면에서 정착시키는 일정 정도의 성과를 거둔다.<sup>3)</sup> 이런 맥락에서 1980년대 후반 이후의 YWCA운동이 어떤 성격이었는지 다시 한 번 주목하게 된다. 이 무렵 YWCA는 회원대회 개최라든가 회원YWCA 대표의 연합회 실행위원 참여율을 높이는 노력 등을 통해 회원 중심의 자체 구조 변화도 시도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모든 활동에서 ‘여성 의식’ 자체 변화를 위한 활동들을 깊이 병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1980년대 이후의 YWCA는 여성운동의 대중화로 전환과 당시의 ‘기층 여성, 노동자 여성’을 여성운동의 주체로 확장하는 사회여성단체들의 지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아 ‘엘리트 중심적’인 자기 자신에 대해 끊임없이 성찰하게 된다. 그 성찰은 ‘나눔’과 ‘절제’, ‘사회적 약자를 향한 활동’의 전개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런 성찰이 자기만족적, 자기소비윤리적 지점에 머무르고 사회변화로까지 나아가지 못함으로써 ‘YWCA여성주의 운동’으로서의 한계를 드러낸다. 한편으로 ‘대중여성 주체운동’으로 자리잡지 못한 YWCA의 ‘생활 개선적, 자선적, 계몽적 활동들’은 이러한 전환의 시기에 자기성찰로 운동의 출구를 찾던 결과물의 성격도 있다.

3. 문은미, 「여성운동에서 페미니즘 자리 찾기」 『내일을 여는 역사』 64호, 2016.

## 2. 국가와의 관계에서 보는 YWCA운동

창립 시 식민지 상황에서 애국, 자강의 민족의식으로 충만하였던 YWCA운동은 해방 후 민족 재건과 한국전쟁 후 국가 재건이라는 정신으로 이어지는 국가와의 관계성을 견지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러서는 글로벌한 주제들로 이어지고 있다. 창립 초기 신앙심을 가진 여성지도력들에게서 나타나는 민족 구성원으로서의 자기 동일시는 강렬하다. “저 소리가 들리느냐? 저것은 한국여성의 아우성이다… 견져야 한다”는 김활란의 회심의 경험과, “내 나라 내 주권을 찾아보겠다는 마음이 당연하지 않아요?”라고 한 김마리아의 소신 등은 바로 그 예들이라 할 수 있다. YWCA 창립 시 기독교 엘리트 여성의식 속에는 신앙, 구국, 여성해방이 하나로 일체되었다. 이효재 선생은 “주권을 빼앗길 위협 아래 개화의식이 있는 여성들이 남성지배 관습을 타파하고 신교육을 통해 능력을 개발하여 구국운동에 이바지하려는 자아의식과 민족의식”에서 YWCA가 비롯됐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숙진은 당시의 교회여성들이 개신교 신앙을 통해 민족·국민적 정체성을 형성하였다고 보며, 따라서 ‘일체에 저항하는 민족주의’이든 1930년 이후의 ‘황국신민 지향적 민족주의’이든 개신교의 민족·국가 담론이 여성들의 민족주의적 자기 동일시에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한다. 이효재 선생도 한국여성의 개화는 국가 및 민족의식과 함께 시작되었고 서양과 같이 개인의식에 기초한 여성해방운동적 성격보다 구국운동적 성격으로 본다.<sup>4)</sup> 이숙진은 더 나아가 이것은 국가관계에서의 여성의식이 여성의 해방, 여성의 주체적 삶을 목적으로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을 문명개화하여 열강들과 동등해짐으로써 문명국을 지향하는 것에 목적을 둔 개신교 신앙의 여성 호명이었다고 분석한다.<sup>5)</sup> 즉 애국 계몽기 개신교의 여성 우대는 남녀동등권을 성취하는 데 있다기보다 민족의 일원으로서 여성의 의무를 강조하는 ‘동원’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관점에서 여성들의 국가 관련 활동들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YWCA의 초기 애국운동들을 비롯해서 1950~1970년대 국가재건운동, 국가발전

운동, 국가경제발전운동 등의 시대를 지나 지금에 이르기까지 국가와의 관계에서 전개된 활동들이 여성의 주체적 삶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국가 발전, 글로벌 세계의 발전을 위해 동원된 것이었는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이런 의미에서 평화통일운동, 생명운동, 탈핵운동 등을 재평가할 필요성도 있다. 1990년대 이념 대결이 종식된 이후 YWCA는 세계적 흐름에서 한반도 남북관계도 변화가 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여러 형태의 평화통일운동들을 전개하였고, 또한 생태 위기의 징후들이 전지구적으로 확산될 때 ‘민들레 공동체운동’ 등을 통해 생명운동을 다양하게 전개해왔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최근까지 YWCA는 탈핵운동에 전념하고 있는데, 이제는 생명운동 차원에서 미래의 지구 전체를 위한 운동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필자는 YWCA 활동은 국가 동원적인 측면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창립 시의 애국활동에는 민족자강의 목적도 있었지만 YWCA 활동을 통하여 여성들을 가정 밖으로 불러냄으로써 사회적 존재가 되게 하는 여성해방의 목적 또한 컸다. 제1세대 페미니즘의 남녀평등을 이루는 방식과 같이 여성들에게 공적 의식을 갖게 하여 해방과 평등을 이루려 했음은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므로 신앙적으로 민족 주체를 여성자아와 동일시하도록 호명하였다고 보는 주장은 다른 한편만 집중하여 본 것이라 생각한다. 최근의 YWCA 평화, 탈핵운동은 인류 보편적 삶의 방식을 새롭게 전환해야 한다는 세계시민적 의식의 확대를 통해 여성주의적 가치를 여성주체적으로 실현하는 형태를 가진다. 다만 민족·국가주의 차원을 넘어 국가와 관계 맺는 방식의 변화를 글로벌한 시민의식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여성주의 의식이 얼마나 YWCA 활동에서 확실히 자리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 3. YWCA의 중심운동 - 성평등운동

초기 YWCA에서 발아된 페미니즘, 곧 기독교 만인 평등사상에 기초한 ‘남녀평

4. 이효재, 『한국 YWCAWCA 반백년사』 한국YWCA연합회.  
5. 이숙진, 『한국 기독교와 여성 정체성』 한울출판사, 2006.

등'을 지향하는 YWCA의 페미니즘은 창립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YWCA 활동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초기에 YWCA는 '남녀평등'을 위한 여성인권과 법적 제도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전개하였던 운동들, 곧 조혼제 반대, 공창제 폐지(설립 초기), 축첩반대(1960년대), 그리고 선도적으로 시작하여 범여성단체 운동으로 확장시키고 그 개정의 열매를 맺었던 가족법 개정운동(1950년대~2000년), 혼인신고운동(1950년대~60년대), 여행원 결혼각서 폐지와 여성 조기 정년제 철폐운동(1970년대~1990년대) 등 다양하고 수많은 성평등을 향한 운동들을 전개하였다.

남녀평등 주제는 여성의 새로운 직종 개발 사업도 포함된다. YWCA는 1960년대 이후부터 여성들을 위한 새로운 직종을 개발하였다. 여성들이 가정을 넘어 생활경제를 위하여 사회활동을 하게 된 큰 변화의 물결을 보면서 YWCA는 여성노동 현장의 실태를 조사하고, 여성들의 저임금, 취업기회의 불평등, 여성 경제활동 제한 등 여성들에게 불리한 직업 현장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여성들을 위한 새로운 직종을 개발하였다. 그 동안 여성노동력의 40%는 단순노동에 치우쳐있고 그것도 전통적인 여성 역할에 머물러 있었다. YWCA는 그런 제한을 넘어서 여성들을 위한 도배, 타일, 페인트, 감귤 전정, 표구, 제도, 목공예, 세탁사, 커튼 봉제사, 보육교사, 숙기사 등을 새로운 직종으로 개발하고 이것을 위한 직업훈련소를 만들어 노동부 인가를 받았다. 이 사업은 여성의 경제적 능력을 높이는 측면과 또 전통적으로 남성들의 영역으로 고정관념을 가졌던 다양한 직종들에 여성들도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깨는 것으로 성평등의 문을 활짝 열게 한 사업이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이 사업은 유엔이 제정한 '1975년 세계여성의 해'를 준비하면서 이룬 결실이기도 하다. 1980~90년대에 이르러서는 좀더 다양한 여성 직종을 개발하였다. 여성들이 대부분 파트타임, 임시직, 비정규직 등으로 2차 노동시장에 고용되어 있는 현실을 파악하고 새롭고 좀더 다양한 직종을 개발하고자 노력했다. 이 운동은 직업의 성차별을 없애 여성들에게 경제 능력을 갖는 기회를 제공했고, 성역할로 남녀를 차별해 온 전통적 차별의식을 제거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이것은 YWCA의 페미니즘 의식이 두드러지게 반영된 운동이라 생각한다.

또한 여성의 노동 현장에서의 평등을 위한 활동에도 참여하였다. 이 분야는 여성인권운동적 성격도 포함되어 있다. 1960년대 이후 경제부흥을 위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출현했지만 이들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 장치는 미비했고 노동자 문제가 수없이 발생했다. 특히 여성노동자들의 인권 문제가 심각했다. 여공들의 도시로 집중, 슬럼가 형성, 노동환경의 열악함, 여공들의 거주 문제, 임금 문제, 질병 문제 등 많은 문제들이 발발했다. 도시집중 현상은 주택 문제를 유발했고 아파트가 건축되기 시작했지만 소외계층이 밀집한 아파트 현실 또한 문제 투성이었다. YWCA는 이런 소외 산업화, 도시화 현상에서 발생하는 여성 노동자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1960년대 버스안내원 인권운동, 남영나일론 임금 인상 투쟁, 동일방직 노조 민주화 투쟁, 청계천 평화교실(1970년 11월 13일 전태일 분신사건, 1972년 5월 중등야간학교 개설), 마산공단 활동 등 여성노동자들을 위한 많은 활동들을 전개하였다. 또 한편 소외계층을 위한 활동으로 대학생들이 그들이 사는 아파트를 찾아가 방과 후 학업지도를 하였고, 공동생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전개하였다. 이들을 위한 노사협상 중재, 다른 여성단체와 연합하여 전개한 노동운동 탄압기업 제품 불매운동, 여공 대표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항의하는 성명서 발표 등, 인권운동에도 나섰다. 그러나 이 문제들이 정치문제로 확대되자 차츰 그 활동의 내용을 간담회, 교양프로그램 등으로 바꾸어 나가게 된다.

2000년대 들어와서 YWCA는 이전의 평화, 생명운동을 지속하면서 또 한편 우리 사회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북한 이탈 주민의 문제들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과 결혼 이주여성들과 그 자녀들의 문제 등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사회 현실에 들어와 있는 사회적 약자들과 힘없는 자들, 그리고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삶의 환경이 많은 제약과 장애물 앞에 놓이게 된 자들, YWCA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책임을 느끼고 이들의 권리를 찾아주고 삶의 조건들을 개선하는 과제들을 수행하였다. 성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은 삶의 억압적 조건들을 없애기 위한 사회정의의 차원을 가질 수밖에 없다. 특히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그들 곁에 서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신앙적 권고를 늘 기억하는

기독교여성운동체로서의 YWCA는 이 신앙을 근거로 사회정의의 활동을 선택한다. 그런 면에서 YWCA는 성차별을 없애는 운동에 충실하면서 신앙의식적 차원의 사회정의를 위한 운동을 전개해왔다고 할 수 있다.

YWCA의 이러한 활동들은 사회정의와 인권운동적 차원을 가지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고통당하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이들을 위로하고 교양적 교육을 통한 생활 향상 등과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물론 법적, 제도적 개선을 통해 여성들이 공적 영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나가기도 했지만 대부분 여성들이 공적 영역으로 나가는 데 장애가 되는 걸림돌들을 걷어내는 활동, 교양을 더 쌓아 향상된 생활을 하도록 돕는 교육 활동들을 많이 하였다. 다시 말해 여성 개개인이 자신의 사적 영역에서 주체적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의식을 갖고, 주체적 삶의 방식을 인식하게 하는 활동들은 부족했다는 것이다.

YWCA의 이러한 활동 성향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려는 YWCA의 자기규율에서 온 것으로 본다. 1970~80년대는 군사독재의 공포 정치와 인권과 민주화를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투옥되고 자유로운 시민운동이 불가능했던 엄혹한 시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 민중, 민족의 표제를 내걸고 투쟁적 시민운동을 펼치는 단체들 옆에서 YWCA는 꾸준히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함께하는 소위 '봉사, 헌신적' 활동들에 전념하여왔다. 이것을 '실천적 기독교여성주의'이라고 명명하기도 한다. 초기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YWCA 성평등운동의 흐름은 '남녀평등'(양성평등)을 위해 여성들이 공적 영역으로 진출하는 활동들과 생활 현실의 평면적 변화를 위한 활동들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1960~70년대 서구여성운동은 여성들의 공적 영역으로의 진출을 통한 남녀평등의 단계를 넘어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인정하는 삶의 사적 영역에서의 평등을 찾는 운동으로 방향이 전환되었다. 즉 생활과 직결되는 이슈들을 정치적 이슈로 삼고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이다'라는 유명한 문장에서 알 수 있듯 사적 영역의 정치화에 중점을 두게 된 것이다. 성폭력, 가정폭력, 몸의 문제, 생활 속의 문제들이 성평등 주제로 정치화되었다. 한국의 여성운동도 1990년대 이르러

서는 여러 단체간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사적 영역의 문제들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방향을 잡는다. YWCA도 성폭력, 가정폭력문제들을 운동의 주제로 삼고 활동을 전개했다. 그런데 실제 이미 YWCA는 개인적 생활 이슈들을 활동의 중심으로 삼고 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었고 상당부분 주도적 위치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YWCA 활동은 '사적 영역, 생활 영역'의 이슈들을 '정치화' 해내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 그 이유의 하나는 초기에 형성된 만인평등 사상에 근거한 남녀평등 의식을 넘어서는 발전된 성평등운동의 논리가 YWCA 안에서 이루어진 흔적이 없기 때문이다. 성서에 기록된 '평등사상'이 다양한 현장과 조건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모습과 방식으로 표현되는가에 대하여 무관심하였고 깊이 사고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여성들이 공적 영역으로 나아가 남녀평등을 이루는 것에 집중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YWCA가 가진 '정치화 포비아'이다. YWCA는 '정치적'인 것을 금기시한다. 교양적이고 교훈적이고 개선적인 정도에만 머무르는 것을 최선으로 생각한다. 이는 노동자 문제가 정치 이슈로 될 때 더 이상 그 주제를 지속하지 못한 것에서도 드러난다. 다음 주제와도 관련되는데 바른 삶 실천운동 중 결혼문화 개선에서도 혼수문제, 결혼 복식, 결혼식의 간소화 등을 다루지만 평등한 결혼생활, 평등한 결혼식 문화 제안 등 페미니즘 이슈로 만들지 못하였다.

#### 4. YWCA 복지운동의 발전과 페미니즘

복지문제는 육아, 탁아, 가정, 가족, 보건, 환경, 노동,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으며 여성들의 삶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초기의 여성의 삶의 변화를 위해 집중했던 계몽교육을 통한 생활개선운동은 복지운동과 연결되어 있었다. 초기의 복지활동은 1950~60년대 해방 이후 국가 재건 상황이나 6.25 전쟁 이후 전쟁의 상처로 남게 된 자들을 위한 보살핌의 활동에 전념하면서 복지활동의 싹이 발현한다. 전쟁 중의 급식활동, 그 후 전쟁 통에 홀로된 여성들을 위한 기술교육, 고아

6. 유성희, 「한국 YWCA운동의 실천적 기독교 여성주의에 관한 연구 - 정체성, 조직, 리더십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3.

들을 위한 숙소 제공, 미군과 생활하다 홀로 남게 된 여성들을 위한 숙소와 기술 훈련 등 수 많은 보살핌 활동들을 앞장서서 전개하였고 이 과정에서 YWCA 복지 운동, 돌봄운동이 피어났다.

1960~70년대를 거치면서 여성들의 사회 경제활동의 확대는 탁아의 문제를 고스란히 사회문제로 등장시켰다. 이에 따라 YWCA는 탁아소 운영 등 여성 경제 활동에 따라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1987년~91년까지 노동부가 매년 2개 탁아소를 건립할 때 그동안 만들어진 10개 탁아소 중 6개를 YWCA에 위탁 운영할 정도로 인정을 받게 되었고 그 후 30개소를 운영하게 되면서 보건 복지부 지원을 받기에 이르렀다. YWCA의 여성직업개발 사업은 여성들의 경제 활동을 촉진함과 동시에 돌봄노동의 확대와 문제점을 동시에 끌어안게 되었다.

2000년대에 이르러 복지문제는 우리 사회의 중심 문제로 드러나게 된다. 근대화 과정, 초고속 경제 발전 과정에서 일어난 핵가족 중심의 변화, 여성들의 성장과 사회진출로 인한 가족의 변화는 불가피해졌다. 그러나 노령인구의 증가와 환자 등 돌봄을 필요로 하는 인구는 계속 늘어났다. 전통적으로 돌봄노동은 여성의 책임으로 지워졌으나 이제 현실은 여성들의 사회진출로 여성들만 감당하기가 불가능해졌다. 따라서 기존의 '공공/가정, 남성=부양자/ 여성=돌봄 담당자' 라는 이분법적 구도 성립은 어렵게 되었다. 여성의 사회진출에 기여한 YWCA는 닥쳐온 사회변화에 대응할 의식전환의 책임도 함께 요구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YWCA 활동 중 돌봄노동의 영역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돌봄' 문제에 대한 여성주의적 입장은 지금까지 사적인 영역으로 간주된 돌봄의 문제가 이제는 더 이상 가족·가구 내 여성에 의존되던 방식으로 해결될 수 없고 국가적,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점을 국가와 사회에 주장하는 것이다. 여성들의 주장을 몇 가지 핵심내용으로 정리하면 첫째, 돌봄을 여성·가족의 사적인 것으로 간주하던 인식을 전환하여 '돌봄(노동)의 사회화'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 둘째, 사회화 과정에서 가족관계 안에서 성별 분업하여 돌봄의 담당자로 여성을 책임지게 하는 결혼제도 및 성별분업의 이데올로기의 과정을 비판, 극복하는 것, 셋째, 돌봄노동의 가치 재평가와 지불노동으로 노동 개념을 바꾸는 것, 넷째, 돌봄을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보면서 돌봄에 대한 '책임의 원리'를 사회정

의의 기본 원리로 삼는 정책기조를 살려 돌봄의 사회화를 이루는 것 등이다. 돌봄을 중심한 사회로 전면적인 사유의 전환, 체제 전환이 필요하고, 이는 복지의 '사회권'을 주장해야 한다는 것이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이다.

YWCA가 돌봄노동을 강조하면서 모성적 성격으로 강조하는 것은 현재 복지의 방향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모성은 여성의 힘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가부장 사회를 유지시키는 힘으로 작용하기도 하는 이중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제2세대 페미니즘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상생, 돌봄의 원리를 사회적 원리로 주장한 것은 사실이다. 남성 중심의 가치관을 바꾸어 여성 중심의 가치 기준으로 보면 돌봄이 훨씬 높은 윤리기준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모성의 강조는 언어를 바꾸지 않으면 여성억압을 지속시키는 가부장제 강화의 기제가 된다. 새롭게 제시되는 '맞돌봄'의 언어를 창안하고 동시에 남성도 사적 영역의 책임자로 들어와서 '돌봄 원리'의 틀을 바꾸어야 하는 것이다. 이 차원의 여성주의적 복지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미래 YWCA의 여성주의적 복지운동의 과제라고 하겠다.

## 5. 기독교 신앙과 YWCA운동, 그리고 페미니즘

YWCA운동이 기독교 신앙에 입각해 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기독교 '만인평등 사상'에 근거한 남녀평등의 '기독교 페미니즘'으로 한국사회의 여성해방운동을 전개 해 온 것이다. 선교 초기 기독교는 실제로 남녀평등 사상을 선포하였고 많은 여성들이 여성해방 공간으로서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 선교 초기 전도부인들의 활약이 한국 기독교의 그루터기가 되었고 많은 여성 지도력들의 역할로 한국교회가 성장하였다. 그러나 후기에 이르러 한국 기독교는 다시 가부장화되고 성차별적이며 여성억압적인 종교로 변화하였다. 이에 따라 신앙과 페미니즘 의식은 분리되고 애국정신도 국가주의의 여성동원에 의해 변질되는 현상이 일어났

7. 캐롤 길리건 지음, 『다른 목소리로』 하란주 옮김, 동녘출판사, 1997.

다. 따라서 회원들의 페미니즘 의식은 그들 내면을 채우는 신앙과 분리되어 갈등, 왜곡 현상이 일어난다.

이숙진은 개신교 신앙이 구원과 관련되는 자기 내면의 발견을 죄인식과 연결시켜 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하고, 이 죄(罪)담론이 결국 여성들을 소극적·부정적 의미의 순종적 주체로 자신을 결정하게 한다고 본다. 또한 개신교의 교인들을 '성도' 정체성으로 규정하는 담론을 통해서 젠더의 영역에서 여성을 '이등 성도'로 타자화하고 남성의 보조자로 주변화시키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신앙 담론으로 강화된 한국교회의 가부장적 구조와 여성차별은 결국 여성을 성직에서 배제하고 철저히 2차적 보조적 존재로 규정하여 기독교를 여성 해방적 종교가 아니라 여성억압적 종교로 변하게 만든다. 그리하여 교회 안에서 수십 년에 걸쳐 여성들이 권리 투쟁을 한 끝에 마침내 여성안수를 실현하는 역사를 갖게 된다. 1933년 함남노회 여신도들이 "여자에게도 목사 안수를 부여하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장로회 총회에 제출하였고 그 안수 청원이 통과된 것이 1996년이였다. 이 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는 여성안수 불허의 입장이 '성서의 기록'에 근거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성진 중앙교회 김춘배 목사가 "여성을 차별하는 것은 2000년 전 한 지방교회의 풍습에 불과하다" 라고 신문에 쓴 글에 대해 "이 문제 연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1년간의 연구 결과로 이것은 성서에 기록된 만고불변의 진리"라는 결론을 내렸던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담론으로 여성차별이 강화되고 성서무오설(聖書無誤說)에 의해 여성차별이 불변하는 진리로 인정되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질서로 여성차별을 한 곳이 교회이다. 이 차별의 왜곡된 신앙 논리가 옛 이야기가 아니라 아직도 교회 안에 지배적이다. 모 교단 총회장이 "어디 여자가 기저귀 차고 강단에 올라가려 하느냐"라고 했던 발언은 성차별, 여성혐오적 한국교회 현주소를 보여준다. 그리고 이런 기독교 근본주의 신앙은 다양한 연유로 사회에 대한 보수적 신념들과 일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거의 대다수가 교회여성인 YWCA 회원들은 '기독교 페미니즘'의 의식에 의한 '남녀평등' 사상과 거리가 먼 교회의 가르침들 사이에서 갈등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사회문제에 대한 진보적 견해들과도 갈등을 겪게 된다. 그리고 여성 문제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남녀평등'을 신념으로 가지지만, 사회의식에 대해선

교회의 가르침에 더 의지하는 성향을 자연스럽게 갖는다. 물론 많은 YWCA 회원들이 중산층 집단이라는 계층적 영향도 있다. 그러므로 YWCA 안에서는 '남녀의 평등'을 주장하는 제1세대 페미니즘을 넘어 남녀 간의 차이의 문제에 주된 관심을 두었던 제2세대 페미니즘이나, 여성들 간의 차이 문제를 다루는 제3세대 페미니즘 논쟁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태라고 생각한다. 즉 한국 기독교의 가부장적 근본주의적 신앙이 YWCA 회원들의 페미니즘 의식을 발전시키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보인다.

## 글을 마치며

### - YWCA 페미니즘, 그 과제와 전망

YWCA가 여성들을 위한 수많은 활동들을 전개하고 더욱이 사회적 약자들의 곁에서 함께 하여 위로와 힘을 주는 여성단체로서 역할을 하여 한국사회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공헌해 왔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활동의 내용과 방향이 여성 개인의 '여성주의 의식'을 깨우치고 삶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힘으로 영향력을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고 생각한다. 회원들이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헌신하고 있지만 대부분 활동들이 개선적, 개량적, 교양적 성격이어서 문제의 근본에 접근하거나 실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힘으로 작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본다.

페미니즘 의식과 관련하여 볼 때 YWCA의 과제는 페미니즘이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상황을 깊이 인지하는 것이다. 지금은 여성들 간의 차이에 대해 주목하는 것으로 페미니즘이 방향을 전환한 때이다. 여성들 사이의 동질성이나 보편성보다 다양성과 차이, 소수자 여성에 주목하는 다양한 여성주의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의 여성혐오와 이에 대한 젊은 페미니스트들의 대응은 매우 다양하고 그 원형을 찾기 어렵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여성운동의 미래를 전망해야 한다. 동시에 전통적 가족이 해체되고 새로운 가족형태와 또 다른 삶의 방식이 진행되는 세상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모성적 논리를 강조해 온 YWCA의 활

동 논리에 변화를 가져야 하고 가족 중심적 사회구성을 지향하는 논리도 넘어서야 한다. 앞으로 이러한 변화에 상응하는 페미니즘 방향을 더 깊이 연구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오늘 사회는 무엇보다 ‘돌봄’이 필요한 환경이다. 고령사회는 더 급격히 진행되고 돌봄노동 인구는 제한되고 돌봄을 필요로 하는 인구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인류사회를 유지시켜 온 힘은 ‘돌봄’에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복지운동에 있어서의 페미니즘 논리를 더욱 집중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 돌봄을 사회적 원리로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위해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한창 교회 안에서 젊은 여성들이 사적이고 일상적인 영역에서의 성차별에 분노하며 온라인상에서 ‘민는페미’, ‘갓페미’ 등을 조직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런 논의들을 YWCA 현장으로 끌어와서 젊은이들의 페미니즘을 수용하고 YWCA의 미래를 이끌 지도력으로 함께하면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교회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YWCA가 적극 관심 갖고 젊은 페미니스트들과 함께 해결의 과정을 찾는다면 교회와 YWCA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여성신학’을 더 많이 전파하여 젊은 여성들이 근본주의 신앙과 페미니즘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도록 하고 성차별적인 교회를 개혁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갖게 하는 것이 요구된다.

페미니즘은 새로운 관계, 새로운 삶의 양식, 페러다임을 추구하게 한다. 그것은 성차별을 종식시킬 뿐만 아니라 특정 성이나 계급이나 집단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을 의미 있는 방식으로 변화시키는 힘을 주게 하는 운동이다. 앞으로 YWCA는 ‘만인평등’의 기독교 페미니즘을 근거로 하면서 급격한 변화에 대응해 나가는 페미니즘 물결의 논리 또한 수용하여 YWCA의 페미니즘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글을 쓴 최만자는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거쳐 연합신학대학원에서 구약성서신학을 전공하였고 1995년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에서 1995년 목회학 박사를 받았다. 한국여신학자협의회 공동대표, 한국여성신학회 회장, 아시아기독교여성문화연구원 원장, 새길기독교사회문화원 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 한국YWCA연합회 생명비전 연구소 위원을 맡고 있다. 지은 책으로 『새하늘 새땅 새여성』 『출애굽을 여는 여인들』 『여성의 삶 그리고 신학』 『이 여인을 기억하라』 등이 있다.

# 교회 성폭력,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sup>1)</sup>

채수지

기독교여성상담소 소장

## 들어가며

1998년 기독교여성상담소가 설립될 당시, ‘교회 성폭력’은 한국교회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는 주제였고, ‘교회 내 성폭력 추방을 위한 공청회’를 열 때는 행사장 주위에 경찰병력이 배치될 정도로 금기를 깨는 위험스러운 발화였다. 그 때부터 한국여신학자협의회와 기독교여성상담소는 교회 성폭력을 소수 목사의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반의 문제로 설정하고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좀처럼 각성하지 않았다. 교회 성폭력이 발생하면 상처입은 피해자들만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저버리는 식으로 은폐되기 일쑤였다.

2016년 5월 17일,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 이후 여성혐오 논쟁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다. 그 여파와 함께 그동안 숨죽여 지내온 피해자들이 침묵을 깨뜨리고 용기를 내어 교회 성폭력을 고발함으로써 교계 언론과 여성단체를 중

심으로 공론의 장이 마련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그러나 또다시 교계 여성들의 목소리는 묵살되고 피해자들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아직도 교단 내 성폭력 관련법의 부재로 인하여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교회는 여전히 가해자 편에 서서 피해자를 의심하고 비난하기 때문이다. 공론의 장으로 다시 끌고나온 교회 성폭력의 이슈는 마치 빙산의 일각처럼 드러난 부분 밑에 거대한 빙산을 감추고 있었다.

한국교회의 교회 성폭력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후부터 오랜 기간 성을 매개로 여성에게 가해져왔던 폭력이라고 보는 게 정확하다. 그런 점에서 교회 성폭력은 한국교회에 깊숙이 뿌리박힌 성차별적 구조와 여성혐오 문화의 필연적 결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피해 여성을 성폭력에 저항하지 못하게 하고 침묵시키는 폭력의 연쇄작용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 1. 개신교 권력화와 목사숭배

“제대로 안 해?!” ‘철썩!’ 내가 중학생이었을 때였다. 청소년부 여름 집회에서 꽤 유명한 대형 교회 Y목사가 여학생들을 불러 세운 뒤 한 명의 뺨을 때렸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바르지 못하다’는 이유였다. “남편한테 매를 맞더라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생각하며 참아야 합니다. 매를 맞을 때 주님의 죽음을 묵상할 수 있고 육신의 자아가 죽기 때문입니다.” 신학생 시절, 대형 교회 L목사가 설교 시간에 자주 했던 말이다. 그들은 공식 석상에서 여성에게 폭력을 가했지만, 아무도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최근 한 대형 교회 목사의 성 추문 사건이 화제가 되었다. 기독교여성상담소에 제보된 S교회 K목사의 성 추문과 세습, 부정 축재 등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방영되어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성폭력 피해 여성들은 하나같이 저항할 수 없었고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었다고 했다. 여성들은 왜 저항하지 못했

1. 이 글은 인터넷 신문 <뉴스앤조이> 「교회 성폭력을 넘어서」 연재 코너에 실린 필자의 글을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혀둔다.

까. 이는 피해 여성 개인에게 던질 만한 질문이 아니다. 대신에 그 원인을 한국교회의 권력 중독과 약자 혐오의 집단 무의식에서 찾아보려 한다.

### 식민지 조선에 들어온 '힘의 종교'

외국인 함대를 이끌고 나타난 미국 선교사들이 식민지 조선 땅에 전한 개신교는 미국의 종교, 즉 힘의 종교였다. 조선 민중들에게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는 식민지와 전쟁 상황에서 도피처이자 '치외법권 지역'이 되었다. 선교사들의 보호와 지원을 받던 그 당시 조선 민중은 하나님을 믿는 미국을 축복하셔서 미국이 물질적 부와 문명을 누린다고 생각했다.

'우리 민족도 잘살고 부강해지려면 오로지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복음 전도가 새로운 인쇄 매체와 교육을 통해 전해졌고, 급기야는 '한국의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다. 그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은 "권세 있는 자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통하여 '의식의 식민화'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해방 후의 미군정 개입, 적산 불하, 개신교인 대통령 취임 등, 개신교는 국가권력의 큰 축으로 작용했고, 국가의 법과 제도적 특혜 아래 성장 가도를 달리게 되었다. 6.25전쟁, 분단, 독재,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 속에서 고통과 슬픔을 겪는 사람들은 교회로 향했다. 그리고 대형 집회와 마스크 등을 통해 기독교가 전과 되면서 폭발적인 교회 성장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목사는 유명인이 되었고, 그들의 신적 권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대형 교회들의 등장과 함께 본격적으로 '개신교 권력화'가 진행되었다.

### '전능한 하나님' 신화와 목사 숭배

교회 성장의 핵심에 '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신화가 자리 잡으면서,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은 과도한 이상화와 과도한 증오(혐오)라는 양가감정을 갖게 되었다. 이 신화는 한국 특유의 기복신앙과 만나면서 교인들로 하여금 성공과 부에 대한 과도한 욕망에 빠지게 하였다. 그리하여 좌절과 한계를 수용함으로써만 성장할 수 있는 신앙의 기반을 제공하지 못했다. 또한 개인의 내면에 실질적으로 접촉할 길

을 잃어버리게 함으로써 통합적인 영성 발달을 저해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신앙의 주체가 되려는 여정에서 길을 잃은 교인들은 목사에게 신앙의 자유와 책임을 양도하기 시작했다.

목사의 권력은 복종하는 자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 교인들은 전능적인 환상을 목사에게 투사하고, 목사는 '권력을 향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 교인들의 숭배를 받아들이며 신이 된 것처럼 행세하는 나르시시즘적 '대중 독재'를 행하게 된다. '전능한 하나님'은 목사에게서 화육하며 교인들은 그의 확신에 찬 모습에 열광하고 '절대적 의존'에 빠져 '미술적 구원'을 바란다.

### 권력 중독과 약자 혐오의 집단 무의식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대형 교회 목사들은 어떤 존재였을까. 그들은 '선망의 대상'이자 '되고 싶은 사람'이었다. 불안정한 한국사회 속에서 실패했던 무기력한 아버지들에 대한 분노 위에서 그들의 인기는 높아져 갔다. 그리고 보면, 그들 말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교인들 모습과 개신교 유입 초기 미국 선교사들을 선망하면서 따르던 식민지 조선 민중들의 모습이 얼핏 비슷해 보인다.

한국교회의 집단 무의식에는 피식민자로서 받았던 무시·능욕·경멸의 경험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그에 대한 방어로, 힘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깃밧하지 않으려면 약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약함은 혐오스런 것이다. 오로지 강해져야만 한다'라는 암묵적 메시지를 실현하고 보여 주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마땅히 보여야 할 섬김의 본을 보이지 않고 권력을 향해 질주했던 대형 교회 목사들이다.

분열된 인격의 요소는 투사되기 마련이고, 억압된 것은 증상으로 나타난다. 한국교회로부터 시작된 '약자 혐오증'이 온 사회를 혐오로 물들이는 가운데, 최근 드러나는 대형 교회 목사들 행적을 보면, 권력자의 자비로운 가면 뒤에 자기 존재를 영속화하고 타자를 처참하게 깃밧는 '벌거벗은 폭력'의 무자비성이 드러난다. 그것은 부정축재로, 세습으로, 성폭력으로 나타난다. 여기에는 한국교회에 몸담고 살아가는 우리의 책임이 크다. 자유로운 주체가 되기를 포기한 책임, 사랑을 복종으로 바꾼 책임, 스스로를 권력의 노예로 만든 책임. 한편으로는 우리들도 권력 중독자들이다.

## 2. 여신도의 순종, 어떻게 가능했나?

“그렇게 오랫동안 배를 쓰다듬으셨는데, 저는 그게 영적인 행위라고 생각했어요.” “내 무릎에 앉을래? 나지막이 말씀하셨는데, 불쾌했지만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어요.” “항상 ‘주의 종’에게 불순종하면 천벌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S교회 ‘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대책 마련을 위한 기자회견’을 계기로 S교회 여성 교인들과 만났다. 그들은 허심탄회하게 말을 이어 나갔다. 그들은 ‘강간 피해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고발하지는 않겠지만’ 여성 교인의 80%는 목사에게 크고 작은 성추행을 당했을 거라고 말했다.

### 여성에 대한 폭력(violence against women: gender violence)

나는 혐의의 성폭력(sexual violence) 개념이 아니라 광의의 성폭력(gender violence) 개념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한국사회에 통용되는 성폭력 개념은 강간 등 성적인 폭력에 한정된다. 교회 성폭력을 논할 때도 이 개념을 그대로 차용한다. 그러나 여성 입장에서 성폭력 사건을 고발할 때는 ‘무엇을 성폭력으로 볼 것인가’, ‘강간인가 화간인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일어난다. 성폭력을 단지 성적 접촉에 따르는 폭력으로 한정 지을 경우, 누구 말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가 따지게 되면, ‘객관성’이나 ‘합리성’을 규정하는 선택의 권력관계는 정치적인 의제가 된다.

‘교회의 논리가 아닌 상식의 잣대 위에서’라는 말은 S교회 K목사 성 추문을 보도한 시사 다큐 프로그램 진행자가 했던 멘트이다. 지금은 K목사 지지파들에 의해 재전유(再專有)되고 있다. ‘피해자답지 않은’ 피해자 행동을 이유로 들며, ‘상식적’으로 피해자 증언이 사실인지 조작된 거짓말인지 판단해 달라는 것이다. ‘상식’에 호소해 피해자가 폭로한 성폭력 피해 경험을 허위 사실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면, 이때의 ‘상식’은 분명 남성 중심의 언어 논리일 것이다. 이럴 때 ‘성적 접촉에 따른 폭력’이라는 좁은 의미의 성폭력 개념을 사용하면, 언어의 남성 독재적이고 식민주의적인 성격 때문에 성폭력 사건은 자꾸만 허위 사실처럼 치부된다. ‘성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성관계 책임은 ‘유혹자’인 여성에게 돌아온다. 이

들은 ‘상식’의 잣대로 여성에게 책임을 물으면서 2차 가해를 정당화하며, 가해 남성은 최소한의 윤리적 책임만 지게 된다.

이런 한계를 인식하고 성폭력 피해 사실이 여성의 입장에서 성립하려면 광의의 성폭력 개념이 필요하다. 넓은 의미의 성폭력은 ‘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의 성을 매개로 행해지는 모든 유형의 폭력으로 개념화하며 성별 권력관계 자체를 문제제시한다. 여성 주체의 젠더 인식에 기초하여 성립된다. 그렇게 되면, 피해자가 자신에게 가해진 폭력을 주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성폭력을 남성 권력의 문제, 즉 폭력의 문제로 제기할 수 있다.

### 젠더화된 신학과 교회

그렇다면 광의의 성폭력(gender violence) 개념이 문제제시는 성별 권력관계가 기독교 신학에서 정당화 내지 신성시된 근원을 찾아보자. 서구에서 근대는 중세적 공동체로부터의 개인의 해방을 계기로 이루어졌다. 산업혁명이 일어나 시장경제가 활성화되고 많은 사람이 도시에 몰려 생산노동자로 일하게 되면서 가정은 필요한 것을 직접 생산하던 경제 공동체 역할을 상실했다. 가족의 필요성까지도 재고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세기 미국의 기독교는 새로운 젠더 논리를 만들어 남성은 경쟁, 정치, 사업, 임금노동과 연관시키고 여자는 종교, 집, 가족과 결부시키는 공사 이분법에 근거한 영역 분리를 정착시켰다.

이 영역 분리의 젠더화된 신학은 교회에서 여성이 영적으로 권위 있는 지위에 오르는 데는 방패 역할을 했으며, 동시에 가정을 ‘삭막한 세상의 안식처’로 표상하여 예찬하고 여성을 현모양처 역할에 한정했다. 결과적으로 젠더화된 신학 체계는 기독교인 남녀의 사회적 역할뿐 아니라, 하나님의 젠더까지도 규정하여 ‘하나님의 부성’에 도전할 수 없게 만들었다.

결국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라는 젠더의 위계화는 여성의 자발적 복종 하에 여성의 마음과 신체에 새겨진 규율 권력으로 작용했다. 종교는 하나의 상징 체계이며 언어적 아비투스(habitus)는 신체적 헥시스(hexis)를 규정한다. 기독교의 남성 지배자들 입맛에 맞게 여성의 ‘순종’은 ‘하나님의 뜻’으로 여겨졌으며, ‘순종하라’는 명령은 수행적이고도 주술적인 상징권력을 행사했다.

### 한국교회의 순종적 여성정체성

식민지 근대에 미국의 보수적 근본주의 기독교가 그대로 이식된 한국 개신교도 마찬가지였다. 여성이 '원죄'의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아버지'로 상징되는 가부장 체제에 순종하며 남편에게 복종, 자녀에게 헌신할 것을 중용했다. 개신교는 유교의 정절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차용하고 칠거지악(七去之惡)과 삼종지도(三從之道)에 해당하는 유교적 가부장주의로 여성의 성과 몸을 통제하고 억압했다.

그럼에도 한국교회가 여성 해방의 장이 되었다는 것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 여성을 '나라와 민족의 어머니'로 호명하여 돌진적 근대화와 부국강병을 위한 민족의 일꾼으로 자리매김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대적 인간으로서 자유롭고 평등한 여성 주체는 여전히 가능하지 않았으며, 교회는 시급한 민족의 문제 앞에 여성 해방을 좌악시하여 여성이 아내와 어머니 역할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며 선을 그었다.

교회는 필요에 의해 여성을 동원하면서도 여성의 지위를 제한하는 '참여와 배제'의 이중 논리를 폈다. 교회에서 여성은 가사 노동의 연장으로 교회의 온갖 허드렛일을 도맡아 했지만, 설교권과 치리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등 성도화'(이숙진, 2006)하는 제도적 장치 속에서 열등감과 무력감을 내면화한 '순종적 여신도'가 되어 갔다. 교회는 전통적 여성의 역할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라고 말하면서 소명을 거부하는 불순종은 죄악의 근원이 된다고 가르쳤다. 그리고 여성들이 여성 해방과 성적 자율권을 주장할 때는 창녀·죄인·이단으로 여겨 배척했고 '순종적 여신도'가 되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 여성에 대한 폭력 위에 세워진 '아버지의 권위'

기독교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야말로 교회'라는 명분으로 가족과 교회를 연결하는 사역을 펼쳐왔지만 그 속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숨은 뜻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정은 권력과 상관없는 온정적이고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남성 아버지가 다스리는 작은 왕국이다. 가족제도는 남성이 아내와 자녀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지배할 무한한 권력을 합법적으로 인계받는, 어쩌면 가장 폭력적인 제도이다. 아내와 딸은 '남성 아버지'의 소유물로 사물화되고 그가 그녀들에게 저지르

는 성폭력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는다. 교회는 '가족 가치'를 숭상하면서 가정에서 아버지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실상 아내와 자녀들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의 학대를 당하면서도 침묵하게 되었다.

성폭력 가해 목사가 여신도들에게 성폭력을 저지르기 위해 사용하는 수법 중 하나는 '가족 같은 마음으로' 또는 '아버지로 불러라'라는 말이다. 그 말에는 "너를 지배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있을 수도 있으니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 3. 피해자를 비난하는 여성혐오 문화

마음에 인상 깊게 남아 있는 성폭력 사례가 있다. H교회에서 지원을 받던 교단 파송 선교사 L이 청년들을 성추행한 사건이다. 고발자이자 피해자인 A는 지난해 12월 기독교여성상담소로 전화를 걸어 왔다. L의 성추행 사실을 폭로했고, 열악한 선교 시스템 때문에 발생한 의사소통 장애로 1년 이상 성추행이 방치되고 있다고 말했다. A는 가해자 처벌, 성폭력 재발 방지, 선교 시스템 정비 등 6개월간 '사건 해결의 주체'로서 고군분투했으나 결국 실망한 채로 교회를 떠났다. 만족스럽게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는 A의 말이 한참 동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트라우마적 경험에 매몰되지 않은 A는 '피해자다움'과 전혀 거리가 멀었다. A가 연약하고 무력한 '피해자'임을 거부했기에 교회의 공감과 지지를 얻는 데 실패한 것일까. 도덕적으로 착하고 권력의 속성을 모르는 무력하고 순수한 '피해자 서사'를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남성 문화와 언어에 익숙한 우리들의 한계다.

### '피해자 서사'를 거부할 수 있을까

내가 지켜본 교회 성폭력 사건 중 피해자가 성폭력 사실을 폭로했을 때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한 사례는 단 1건도 없었다. 피해자가 어렵게 꺼낸 이야기는 낭만적 사랑 이야기로, 스킨십으로 미화됐다. 성폭력 기사는 얼마나 자

극적이거나 따라 누군가에게는 쾌락으로 소비되기도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발하고 법적 절차를 밟을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결백’이나 ‘순수성’을 묻는 것이 사회 일반에 퍼진 태도이다.

법의 심판자는 피해 여성에게 오로지 남성 언어만을 사용해서 ‘팩트’를 말하라고 요구한다.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사법적 정의에 기대는 피해 여성은 법이 오히려 여성에게 폭력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법의 심판자는 이렇게 여성을 정죄한다. “당신은 밤에 거기 있지 말았어야 하며, 그런 옷차림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죽을힘을 다해 저항했어야 하므로 그렇게 하지 않은 당신은 그를 유혹했고 성폭력을 욕망하고 있었던 것이다.” 폭력과 법이 공모하는 남성 문화에서 피해 여성은 쉽게 가해자로 뒤바뀌거나 거짓말쟁이, 정신에 문제 있는 사람으로 간주된다.

그렇다고 해서 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목적에서 여성이 계속 무력하고 연약한 피해자 입장을 고수한다면 어떻게 될까. 여성은 모두 동일한 젠더 범주로 간주되고 ‘영원한 여성성’을 확인해 줄 것이다. 여성들이 다양한 개인, 다양한 주체가 되는 사회를 열어 나갈 수 없다. 그러므로 고정된 피해자 서사를 거부하고, 전략적으로 다양한 생존자 서사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 기독교의 여성혐오 문화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 354~430)에 따르면, “원죄의 결과로 욕망, 곧 리비도가 성생활의 일부가 되었고, 성생활을 통해 아담의 후손들에게 죄가 유전된다. 모든 인간은 ‘성적 욕구의 악’에서 태어났다. 원죄란 본래 정신적인 죄이지만 육체적인 죄이기도 하다(Paul Tillich, 1971).” 그의 원죄론이 기독교의 정통교리로 받아들여지면서, 교회는 모든 성적 욕구, 성생활 등을 비롯한 섹슈얼리티 자체를 죄로 보게 하고 금욕적 태도를 지향하면서, 성생활의 목적은 오로지 출산뿐이라는 태도로 일관해왔다. 남성들은 성적 욕망의 원인을 여성에게 돌리면서, 남자로 하여금 죄악에 빠지게 하는 여자를 인간 이하의 존재, 동물은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존재로 여겨 폭력으로 다스려왔다.

기독교역사 내내 여성은 남성의 두려움, 수치심, 죄책감을 담당하는 ‘희생 제물’

이었다. 여성에 대한 박해와 탄압은 중세 시대에 절정에 이르러 많은 여성들이 악마와 성교를 한다는 명목으로 마녀로 지목돼 재산을 몰수당하고 갖은 고문으로 신체가 훼손당한 상태에서 화형에 처해졌다. 여성혐오적 기독교는 여성이 ‘성적 유혹자’이므로 그들에게는 폭력을 행사해도 된다는 인류의 뿌리깊은 강간 문화에 종교적 신념을 제공해주었다.

여성혐오 문화는 또한 여성의 ‘순결’을 강탈하려고 하는 남성과 ‘순결’을 지켜내야만 하는 여성의 쫓고 쫓기는 게임 속에서 여성이 패배하도록 프로그래밍된 ‘순결 이데올로기’에서도 나타난다.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순결을 빼앗긴 여자’, ‘더럽혀진 여성’으로 간주되어 수치심을 느끼는 쪽은 피해 여성이다. 그는 가해 남성에게 죄를 따져 묻기보다 ‘자신의 몸을 지키지 못한 책임’이라고 스스로를 탓한다.

### 여성혐오 문화에 대항하라

기독교 역사 이래 여성혐오 문화는 여성을 비인간화하는 데 목적을 두어왔다.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교회는 어리석게도 피해자를 ‘꽃뱀’과 같은 성적 유혹자로 바라보느냐 무력하고 순수한 ‘유아’와 같은 희생양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양자택일 앞에 선다. 그러므로 교회는 여성혐오 문화를 해석해내고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전에는 성폭력 문제를 처리하려고 나서면 안된다. 우선 교회는 ‘기억·욕망·이해 그리고 선입관을 버리고(Wilfred Bion, 1970)’ 피해 여성의 말을 들어야 하고, 충분히 오랫동안 그래야 한다. 피해자를 정해진 프레임에 끼워맞추지 않고 주체로 인정하는 교회, 여성이 다양한 방식으로 성폭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는 교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 4. 교회 성폭력, 하나님의 고통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문대식 목사의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은 많은 사람들

을 충격에 빠뜨렸다. 문대식 목사는 스타 목사로, 청소년 사이에서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렸다. 그를 좋아했던 사람들은 그가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믿기 어려워했다. 이 사건은 청소년 사역의 문제점을 점검할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동시에, 교회 성폭력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 여성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 여기서는 유명 청소년 사역자들의 성범죄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상호 의존적 세계에서 타자의 타자성을 짓밟고 성장을 가로막아 타락하게 하는 교회 성폭력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떠나 하나님과 교회 및 사회와 세계에 죄가 된다는 점을 밝히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교회 성폭력, 그 심각한 후유증

라우센부시(Walter Rauschenbusch, 1978)는 전쟁과 군국주의, 지주제도, 약탈적 산업, 금융을 악마(demons)라고 명명하면서, 이 연합된 '악의 왕국'에 교회도 포함시켰다. 그는 교회가 자행했던 마녀사냥을 타락한 교회가 떨어질 수 있는 악의 깊이에 관한 독특하고 비열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오늘날까지도 교회는 남성 성직계의 동질성과 특권을 위해 여성에 대한 폭력(violence against women)을 허용하는 문화와 구조를 포기하지 않는다. 교회 성폭력은 이러한 문화와 구조의 필연적 결과물이다. 아직도 교회 성폭력의 희생자를 양산하고 있는 제도로서 교회는 죄의 전달자다. 인류의 상호 결속(solidarity)으로 교회 성폭력의 죄는 교회 문지방을 넘어 사회로, 세계로 전달된다.

가해자와 그와 공모하는 교회가 부과하는 성폭력의 죄책감을 오히려 죄 없는 피해자가 느낀다. 단지 사고(accident)가 아니라, 자신이 깊이 연루되어 있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죄인'이라고 느낀다. 그 상태 그대로, 그 시점의 부적절함 그대로 피해자 내면에 남아 그의 삶은 동결되고 미래를 꿈꿀 수 없을 정도로 황폐화된다. 누가 신의 이름으로 이토록 잔인한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사랑과 신앙이 학대로 되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도 믿을 수 없다고 느껴지는 신앙적 붕괴는 피해자의 온 삶을 붕괴시킨다. 믿고 있던 것이 모두 무너지는 경험은 공황장애·우울증·자살 충동으로까지 이어진다.

억압·부정·회피·해리의 방어기제를 이용하여 일정 기간 사건을 잊을 수도 있지만, 사건에 부착된 감정을 잊을 수는 없다. 사건 당시 느꼈던 공포와 분노 등의 감정은 뇌의 편도체에 저장되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로 남는다. 감정을 억누를수록 상처는 더욱 커지고 시간이 지나면 긴장감·피로감·소화불량·만성통증 등 신체 증상으로 나타난다.

가장 큰 상해는 신뢰 파괴로 인해 생기는 혼돈과 자기 비난이다. 성폭력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사랑'으로 인해 나쁜 일이 생겼으므로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내 인생은 망가졌다' 그러므로 '나는 나쁘다'는 식의 자기 비난을 하게 된다. 피해자의 지독한 자기 증오가 계속 이어지면 절대로 안 되겠지만, 이러한 심리 기제는 외상을 소화하고 극복하려는 자연스러운 방어이기도 하다. 그는 외상에도, 세상을 안전한 곳으로 여기고 살아가기 위해 '나는 나쁘지만' 하나님께는 아직도 선함이 남아 있다는 희망을 보유하고 있다(도덕적 방어, Fairbairn 1943). 하나님께 거는 희망으로 다시 자신의 선함을 발견하는 치유 여정을 시작할 수 있다.

### 하나님도 성폭력을 경험하셨다

교회 성폭력 피해자는 결코 한 번의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 1차 폭력뿐 아니라 2차 폭력, 3차 폭력을 경험한다. 집요하게 피해를 당하다가, 너무 괴로워서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고 도움을 받으려 할 때는 가해자 또는 그의 측근들로부터 더 무서운 폭력을 경험한다. "이단으로 만들어 교회에서 내쫓아 버리겠다", "죽여 버리겠다"라는 말은 피해자의 마지막 절규까지도 다시 삼키게 한다. 그 때문에 교회 성폭력은 드러나기가 어렵고, 드러난 것보다 드러나지 않은 것이 더 끔찍하다. 피해자들은 생각보다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고,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고립되어 있는 그들은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으로 정의가 제대로 서기를, 자신들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가해자로부터 진정된 사과를 받기 원하고 있다.

피해자는 분노와 원망을 하나님께 쏟아 낸다. "제가 성폭력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나요?" 이해되지 않는 경험을 이해하려고, 찾을 수 없는 이유를 찾으려고 하나님을 부른다. "당신의 성폭력 피해는 가해자가 권력을 이용해서 저지른 범

죄이며 그의 성격 병리에서 비롯된 것이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라는 설명은 그에게 충분하지 않다. “왜 하필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질문은 계속 이어진다. 계속되는 질문 속에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있으리라 기대한다.

과정-관계론적 신학(Majorie Hewitt Suchocki, 1994)에서 하나님은 세계를 끌어안고 있는 분이자, 심판자가 아니라 온 세계를 느끼고 세계의 탄식과 희망에 응답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세계를 경험하기 때문에 세계 안에서 발생한 폭력은 또한 하나님에 대한 폭력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죄는 우선적으로 누군가에 대한 폭력이다. 누군가가 성폭력을 당할 때, 하나님 또한 성폭력을 경험한다. 그러므로 교회 성폭력은 피해자의 고통을 생생하게 느끼시는 ‘하나님에 대한 죄’이다. 죄는 하나님에 대한 오만이나 불신앙이기보다는 타자에 대한 폭력이다.

선한 세계를 창조해 나가도록 부름을 받은 교회가 폭력의 도구가 될 때, 죄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모든 사람에게 파고들어 ‘교회를 믿을 수 없다’라는 불안을 일으킨다. 불안은 사람과 사람의 신뢰 관계를 훼손하고 세계를 편집증적으로 구성한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번갈아 나타나고 폭력은 작용과 반작용을 거듭하며 폭력의 순환 궤도를 형성한다. 피해자의 고통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에게 학대의 상처를 남김으로써 순환된다. 교회여성, 특히 청소년들이 당하는 성폭력의 고통은 하나님의 고통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시며, 미래를 폭력에 저당 잡히지 않으려면 연대해야 한다고 설득하신다. 교회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은 하나님과 함께 폭력의 사슬을 끊고 선한 미래를 창조하는 ‘공동 창조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라

교회 성폭력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다각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교단 차원에서 성폭력 관련 법 제정이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이다. 교단 내 여성연대는 성평등 법안을 내고 성폭력 관련 법 제정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기득권층이 특권을 포기하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다. 대체로 부와 권력을 따르는 한국교회는 ‘폭력에 대한 감수성’이 매우 부족하다. 폭력의 대상이 되고 있는 청소년들이 교회에 실망해서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시급성을 느끼지 못한다. 도덕적 불감증

(Zygmunt Bauman, 2013)이 한국교회를 사로잡았다. 이제 죄는 너무나도 평범한 냉담과 불인정의 익명적 형태를 띠고 있다. 폭력으로서 죄는 대중문화 속으로 스며들고 모든 개인에게 소리 없이 내면화된다. 대중문화에 젖은 기독교인, 익명의 죄인들은 책임감을 느끼지 못한다.

성폭력을 용인하지 않는 교회를 만들려면, 성폭력 문화에 문제 제기하지 않고 살아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유죄’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피해자에게 구원하는 사랑(redeeming love, Suchocki, 1994)을 전달하기 위해 자기를 초월하여 피해자의 고통, 곧 하나님의 고통에 공감해야 한다.

## 글을 맺으며

나는 이 글에서 교회 성폭력이라는 심각한 죄가 발생하고 순환되는 성차별적 구조와 여성혐오의 문화적 원인을 폭넓게 진단했다. 여성을 성폭력으로 다스리면서 비정치화하는 것이 가부장제의 정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가부장제를 따를 때, 교회 성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개인 간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가부장제의 권력구조를 승인한 우리 모두가 암묵적으로 공모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봐야 한다. 교회 성폭력은 우리의 공모로 인하여 우연히 발생한 약자의 억울한 희생이다.

돌진적 근대화 과정에서 한국교회가 여성에게 불평등한 제도적 이념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으로 합리화하며 외적 성장과 수적 부흥의 헛된 꿈을 쫓아가는 동안 여성들은 ‘교회 성폭력’이라는 비인간화의 길을 걷고 있었다. 교회여성이라면 모두 교회에 만연한 성폭력(여성에 대한 폭력)을 경험했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내면과 깊이를 성찰하는 눈으로, 겉으로는 자유와 평등을 지향하는 것처럼 보이는 제도와 문화에 깊이 뿌리박힌 여성에 대한 억압과 불평등, 즉 상징적 폭력(symbolic violence, Pierre Bourdieu, 1979)을 바라봐야 한다. 교회 성폭력이 우리의 책임임을 통렬하게 느끼면서 여성에 대한 각종 억압장치를 해

체하기 위해 스스로를 변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를 넘어 기존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서 생각해 보는 '전복적 사고'가 요청된다. 더 나아가 수직적 질서를 무너뜨리고 수평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의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 의식변화가 수반된 '아래로부터의 교회개혁'이야말로 교회성폭력에서 안전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내고 한국교회의 진정한 변화를 이루어 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한다.

### 글을 쓴 채수지는

한국여신학자협의회 부설 기독교여성상담소 소장이고 한국기독교장로회 목사이다. 여성신학자협의회 활동가로 일할 때부터 교회 성폭력의 실태를 보게 되었고 이후 상담소 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성폭력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상담하고 사건지원을 하는 등, 피해자를 도와 상처에서 치유되도록 장을 마련해주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다.

## 특집 4

# 나는 '참자매'도 '사모감'도 아니다

김수진

한국YWCA연합회 대학청년Y 간사

## 들어가며

요 몇 년간, '여성혐오', '페미니즘', '성평등'과 같은 개념이 한국사회에 던져졌고 이것을 둘러싼 많은 의제들이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것으로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다. 이것은 여성혐오 현상이 더 심해진 탓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성주의 언어가 우리 사회에서 점점 확산되고 있고, 변화를 원하는 여성운동의 힘이 성장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떠한가? 안타깝게도(아니 당연하게도) 2017년 5월, '청어람 아카데미'에서 진행한 <청년 공동체의 성평등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한국교회 성평등 지수는 사회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차별의 사례를 묻는 질문에도 응답자 81.7%가 교회 내에서 성차별 혹은 성희롱이나 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sup>1)</sup> 그렇다. 교회에서도 여성들은 안전하지 않다. 성추행·성

1. 박현철, 「기획: 청년사역,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청어람ARMC>, 2017.5.18., <http://ichungeoram.com/12080>

폭력 사건이 발생해도 형제를 시험에 들게 한 자매의 외모나 행동을 탓하고 교회 밖이나 안에서나 성추행·성폭력 사건이 발생해도 형제를 시험에 들게 한 자매의 외모나 행동을 탓할 뿐이다. 남성에게 권력이 집중된 기형적 공간인 교회에는 갖가지 여성 억압적 현실이 난무하고 있다.

이 글은 여성 억압적 교회의 현실 속을 사는 ‘한 사람의 기독여성으로서 겪었던 이야기’에 기반하며, 기독여성의 좌절과 발악, 그리고 염원을 담았다. 이 글이 모든 20대 기독여성의 상황을 대변하거나 그들이 마주하는 차별과 혐오에 당장 해답을 내어놓지는 못한다. 그래도 변화는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서 혹은 교회에서 여성으로서 겪는 좌절 속에서도 ‘희망은 있다’는 믿음을 나누고자 한다.

## 1. 나만 웃을 수 없을 때

이제야 말하지만 나는 페미니즘에 대한 선입견 혹은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었고, 타인으로부터 ‘페미니스트’라고 불리기는 걸 싫어하던 사람이었다. 여자대학교에 갓 입학했을 때는 행여나 주변 사람들이 나를 조금이라도 ‘페미니스트’로 볼까봐 두렵기까지 했다. 누군가 나에게 페미니즘에 대해 이야기하면 “난 관심 없어”라고 말하곤 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여성이면서 어떻게 “여성인권에 관심이 없어”라고 말할 수 있었는지 부끄러울 따름이다. 이런 나의 삶은 여성신학에 입문하면서 조금씩 금이 생겼다. 여성신학을 통해 다시 만난 기독교는 더욱이 내 신앙을 풍성하게 해주었고 나를 해방시켜 주었다.

그런데 학교 밖에만 나서면 자꾸만 나는 ‘예민한 사람’이 되어 ‘불편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다. 특히 교회에서 나는 ‘기가 세고’, ‘말 많고’, ‘까탈스럽고’, ‘까칠한’, ‘여대생(특히 이대생<sup>2)</sup>)’이었다. 시시한 농담도 절대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대부분 말도 안 되는 성적 농담이다) 모두가 께찮다고 하는데도 ‘유난을 떠는 사람’이었다. 목사안수도 못 받을 ‘여자 신학생 주제’에 ‘갈등을 만들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나 계속해서 나는 불편한 것을 이야기하고 ‘떠들어

됐다’<sup>3)</sup>. 그러던 어느 날, 모두가 웃으며 했던 그 한마디를 듣고 나는 쓴웃음조차도 짓지 못한 채 그 길로 교회를 떠났다.

“수진이는 순종 빼고 다 잘하는구나.”

## 2. 교회에서 여성의 자리

사실 교회를 떠난 건 견뎌낼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섰기 때문이지 단순히 그 소리 때문은 아니었다. 첫 번째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진지하게 신학공부를 하고 싶었던 나에게 ‘목사 안수’가 중요했기 때문이었는데, ‘여성 목사 안수’를 둘러싼 지금의 상황은 ‘여성억압’을 넘어 거의 ‘여성혐오’ 수준의 일이라 느껴졌다. 아무리 공부를 뛰어나게 잘하고, 교인들이 ‘목사’에게 요구하는 능력을 다 갖고 있다고 해도, 남자들이 세우고 정하고 정의내린 시스템 안에서 ‘목사 안수’는 결코 나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그 교단을 떠날 수밖에 없었

2. ‘이대혐오와 여성혐오 대학가 남성들 사이에서 이화여대가 경험하는 조공과 모욕은 이미 오래된 일이다. 그들은 자주 ‘학업 능력이 떨어지지만 부당하게 높은 대우를 받는’ 혹은 ‘여자들끼리 풍곤기 잡고, 서로 질투하고 음모나 꾸미는’ ‘허영 심 많고 부잣집에 시집가는 게 목표인’ 그도 아니면 ‘꼴페미 모임’ 등으로까지 묘사되고 했다.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해 보자. 가령 남성 집단 내에서 미팅이나 소개팅 등의 대화 소재에 이대생들이 등장할 때, 왜곡된 이미지가 버무러지는 일은 흔하다. 이대생들이 ‘여자의 적은 여자’라는 프레임에 들어맞는 이기주의자로, 혹은 명목과 고학력만 좇아대는 ‘된장녀’ 이미지로, 심지어 종종 ‘자존심만 센 골 빈 페미니스트’ 같은 이상한 단어로까지 소비되는 것을 나는 개인적으로도 겪어 봤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대생들은 주변 대학생들의 성 욕구(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섹스에 대한 폭력적 열망)에 폭력적으로 노출당한다. 예로 지난달 혐오 발언 문제로 폐쇄 결정된 사이트 타임테이블에선 신촌 근방 소재 남자 대학생들이 이대를 ‘쫓장’으로 표현하고 여대생들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성폭력적 언사를 일삼아 왔다. ‘여성이기 때문에’ 사실과 관계없이 특정 이미지로 일반화되는 것 일부의, 그것도 남에게 딱히 해를 끼치지 않는 소비행태가 심각한 결함으로 취급되는 것. 어떤 단어를 그 뜻조차 모르고 ‘골 빈’ 같은 악의적 수사와 함께 이미지화시키는 것. 그리고 여성에 대한 심각한 수준의 성폭력적 시선을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지도 못하고 (혹은 그런 생각을 무시하고) 향유하는 것 등을 우리는 총체적으로 여성혐오라고 부른다. - 인디피크, “[이화梨花] ③우리는 왜 이대를 혐오하는가?’, <고함20>, 2016년 8월 4일, <http://www.goham20.com/52078/>

3. 당시 교회에서는 ‘목장모임’이라는 소그룹 형태가 붐이었다. 설교를 통해 듣고 또 들어 내가 이해한 바로 목장모임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형태인 가정교회를 기억하며 목장이라는 이름의 양육을 위한 운영방식이다. 사도행전 2장 43-47절이 배경이며, 주로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를 계속해서 강조한다. 교회라는 큰 단위에서의 양육이 아니라 작은 그룹 안에서 양육을 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다. 그런데 이 소그룹 모임은 경약 그 자체다. 목장을 섬기기로 한 부부 안에서 남편은 목자를 아내를 목녀(?)가 된다. 목자의 역할은 목장모임을 인도하는 ‘장(Leader)’의 역할을 하고, 목녀는 46절을 이루기 위해 부엌에서 밥을 해야 한다. 떡 떼고 나눌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법칙이 있다. ‘설거지는 무조건 목자가 해야 한다.’ 부엌에서 해방시킨 여성들을 신앙과 은혜라는 가면으로 씌워 다시 부엌으로 귀속시키더니, 21세기에 이게 무슨 일인가. 부부중심인 이 모임은 형태 자체도 부부가 아닌 청년세대에 결코 맞지 않으며, 시대적으로도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무이상한 방식이다.

다. 하지만 옮겨간 두 번째 교회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국내에서 꽤 큰 교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교단은 1996년에 여성 목사 안수를 허용했다. 그러나 현실을 들여다보면 여성 목사는 대부분 예전에 여전도사가 하던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었다. 여전히 남성 목사에 비해 여성 목사에 대한 처우는 불평등했다.

불평등한 현실은 여성 목회자만이 겪는 일이 아니다. 교회를 성장시키고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여성들이지만 정작 주요 의사 결정을 하는 자리에는 초대 받지 못한다. 매년 9월마다 열리는 주요 장로교단들의 총회를 들여다보면 총대로 참석한 전체 비율 중 여성의 비율은 많아봤자 10%를 넘지 못한다.<sup>4)</sup> 교회 인구의 절반이 여성인데도 교회 안에서 그들을 대표하는 여성이 없다. 제도적으로 여성들이 아예 배제되거나, 여성 대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남성화되어 있다. 결국 교회 구성원 중 다수인 여성들이 설 자리는 교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봉사하는 자리이다. 즉, 교인들의 점심 준비를 위해 부엌에서, 교회 행사 때마다 한복을 곱게 입은 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안내 데스크에서, 남편을 킹으로 섬기는 킹덤 가정에서, 군부대 위문공연 특별찬양단<sup>5)</sup>에서 여성들은 모든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었다. 그것도 순종과 섬김, 신앙이라는 명분 아래.

여성혐오는 단지 여성에 대한 멸시·비하·업신여김 또는 여성에 대한 편견뿐 아니라,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일체의 타자화(대상화, 객관화)를 포괄한다. 즉, 여성을 (남성과 같은) 주체가 아닌 '객체'로 생각하는 것은 모두 여성혐오라는 말이다.<sup>6)</sup> 이는 평등하지 못한 젠더권력관계에서 비롯한 사회 구조적인 '여성멸시'에 해당한다.<sup>7)</sup> 성경 속 몇 구절을 근거로 남성 중심적 위계질서가 하나님의 창조질서로 둔갑하고, 그에 대한 순종을 믿음의 척도로 내밀며 교회는 여성들을 억압하고 순종을 강요했다. 이런 것들이 교회 밖에서 내놓고 행해지는 공격적인 혐오와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은 분명한 여성혐오이다. 굳이 말하자면, '온건한 얼굴을 한 여성혐오'라고 할까?

4. 이은혜, 「교인 절반 여성인데 총대 비율은 한 자리 수」, <뉴스앤조이>, 2017.9.26.,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dxno=213421>  
 5. 주변에 다수의 20대 여성들은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자매가 예쁘기 때문에 군부대 위로공연을 가는 것이다'라는 말로 칭찬(?)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한다. 여기서 '예쁨'은 얼굴뿐 아니라 몸매도 해당한다.  
 6. 출처: 페미위키(<https://femwiki.com/w/여성혐오>)  
 7. 남미래, 김소연, 김서로, 「여성혐오, 불평등한 젠더 권력구조에서 비롯된 뿌리깊은 감정」, 『이대학보』 제 9면, 2015.11.30.

### 3. 친절하게 단정하게 조신하게, 예쁘면 더 좋고

기독교여성들은 답답한 교회 현실에 경멸을 느끼며 떠나거나 입을 다물고 살아간다. 교회는 특히나 가족 중심적이며, 성역할의 구분이 엄격하다. 비혼, 이혼의 경험이 있는 사람을 배제한다. 특히 장년 남성 중심으로 이뤄지는 의사결정 속에서 비혼 청년들은 주체성을 가질 수 없다. 또한, 결혼을 기준으로 청년부에서 장년부로 전환되는 교회 공동체의 분위기도 비혼 청년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교회는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는 것이 정상적인 '창조질서'이며 이것만이 곧 하나님의 축복과 복음인 것처럼 강조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결혼절령기를 넘어서도 비혼 상태인 청년들은 공동체에 속해있기 어려워지며, 원하지 않아도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전히 '여성'은 남성을 유혹하고 미혹시키는 존재'라는 인식이 설교를 통해 끊임없이 생산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여성들은 끊임없이 자기검열을 해야 한다. 항상 여성들에게는 남성들을 배려해서 짧은 옷을 입지 말라고 한다. 교회가 생산해내는 이러한 논리는 목회자의 성범죄까지 피해자인 여성의 잘못으로 돌린다. 순결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교회 안에서 여성들은 계속해서 유혹하는 존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여성 리더에게는 남성 리더보다 더한 친절함을 요구하기도 한다. 그렇게 교회는 여성에게 특정 성역할을 부여한다. '참자매' 담론과 '사모감' 담론은 교회와 신학교에서 지금까지도 무성하다. 남자들이 말하는 '참자매'와 '사모감'은 친절과 미소, 순종의 완전체다. 하나 더, 예쁘면 더 좋고.

권위와 친절. 교회에서 권위는 애초에 남성의 것이고 여자에게는 순종과 친절한 헌신이 요구되었다. '똥은 배필'이라는 담론이 있다. 여자는 하나님이 남자의 갈비뼈로 만든 존재로서, 어디까지나 남자를 기쁘게 하고 힘써 도울 목적으로 지어졌다는 내용이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라 여성은 남편을 내조하고(색수열한 의미도 포함된다) 아이를 잘 길러내는 역할을 맡는다. 얼마나 편리한가? 논리적인 논증을 거칠 필요도 없이 이 모든 질서를 신이 보증

하고 있다. 최상의 권위, 말 그대로 신적 권위를 띠고... “나는 당신의 갈비뼈  
 이니- 평생 그대를 섬기며 그대와 우리 아이만을 위해 살겠네.” 하는 노래는  
 여성들이 지은 게 아니라 남성들이 신적 권위로 주입한 비가인 것이다. 하키  
 사, 아내는 남편이 성관계를 청할 때 응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밖에서 성  
 매매를 하는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라는 발언이 기독교 대학 수업에서 울려  
 퍼지는 시대에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할까. ‘참자매’라는 담론도 있다. 어디에도  
 실체가 없는 이 ‘참자매’ 담론은 교회 안의 젊은 여성들로 하여금 자신을 가  
 두게 하는 코르셋이다. 참자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위 ‘여성스러운’ 품  
 성과 몸가짐을 갖추며 공동체 안에서 지혜롭고 부드러운 교회여성 역할을 한  
 다. 남자 성도(형제)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옷차림은 단정하게, 그러나 예뻐  
 수록 좋다. 신앙심 좋고 이해심 많은 교회 언니, 조신한 교회 누나, 예쁜 교회  
 여동생의 코르셋이 여성들을 자기 검열하게 하는 것이다. 참자매가 아닌 여  
 성은 신앙심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고 죄  
 책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sup>8)</sup>

신학생이었던 나에게 ‘사모감’ 담론은 경악 그 자체였다. 나는 그저 다양한 주제  
 에 관심이 많고 사람들과 즐겁게 교제 나누는 게 즐거운 사람이었다. 그리고 남자  
 신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소명의식으로 신학공부를 하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나의  
 공부는 ‘사모 수업’이었고,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은 훗날 남편 목사의 개척을 돕기  
 위해 취득한 것이 되어버렸다.

#### 4. 연대하는 20대 여성들, ‘믿는페미’

나는 교회를 떠났다. ‘여성혐오’가 판을 치고, 변화 가능성이 없는 교회를 떠나

8. 달밤, 믿는페미 기획단, 『‘믿는 페미’, 나 여기 있어요!』, <프레시안>, 2017.06.16.,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60991>

살았다. 그런데 우연하게 ‘믿는페미’라는 모임을 알게 되었다. 강남역 10번 출구  
 살인사건 이후, 여성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론화하기 시작했고 다른 여성들은 그  
 것을 함께 공감하며 연대하기 시작했다. 사회에서 페미니즘 이슈가 올라올 때, 기  
 독교 안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고 싶다는 생각에 2016년 12월 ‘믿는페미’ 모임이  
 시작되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왜 떠나야 해? 여기를 바꾸겠어!’라고 생각하  
 며 교회 안에서 페미니즘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정서적 지지공간이 되고자 생  
 겨난 모임이다. 각각 떨어져 있지만, 숨어 있는 ‘믿는페미(믿는 페미니스트)’들에  
 게 힘이 되어 주고 싶어 세 사람으로 시작된 모임이다.

이들을 통해 내가 예민한 사람이 아니었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사람이 아니  
 라는 것을 알았다. 싸우는 것은 결코 나쁜 게 아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예  
 수는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  
 라 칼을 주려고 왔다”고 말씀하시고 있다. 즉, 정말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이라면  
 궁극적으로 현존하는 사회적 가치체계와 갈등을 초래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교회 안이라도 마찬가지이다. 나는 ‘참자매’도 ‘사모감’도 아니며, 교회에서 내가  
 튕겨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안다. 도망치는 것도 용기가 필요했지만 다시 남아있  
 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다. 나는 페미니스트이다. 그리고 신앙인이다. 교회든 신학  
 교든 누군가가 성차별적인 발언을 했을 때 바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할 수 있고, 상  
 대적으로 어린 여성이라고 해서 감정노동을 할 필요가 없으며 내 존재 그대로 환  
 대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떠들고 연대하여 싸워나갈 것이다. 나  
 는 혼자가 아니었다. 변화를 꿈꾸는 나는 ‘믿는페미’이다.

### 글을 맺으며 - 정말,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

페미니즘이 여성 차별과 폭력에 저항하며 당연한 여성의 인권을 지키는 것  
 이 핵심이긴 하지만, 페미니즘은 단순히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페

미니즘은 여성의 권리증진이나 이익개선이 아니라 '권력 불균등'을 바로잡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젠더 이분법에 의해 고통받는 것은 여성만이 아니다. 실제로 사회가 규정하는 '이상적 남성'에 도달하지 못하기에 소외되고, '남성답지 못하다'는 이유로 배제당하며 고통 받는 남성들도 적지 않다. 페미니즘은 이러한 고통과 차별을 없애기 위한 움직임이다. 남성중심주의 사회에서 여성을 혐오해야만 남성으로 존재하게끔 하는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 성평등 사회를 위해 연대해야 할 사람들 또한 '남성'이다. 아직 분노가 잔잔해지지 않지만 여성뿐 아니라 남성들도 '페밍아웃(페미니스트+커밍아웃)'하는 사회를 기대해본다.

#### 글을 쓴 김수진은

이화여대 기독교학과와 동대원에서 조직신학 석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2012년 대학시절 대학YMCA 전국연맹 회장으로 활동하였다. 현재 한국YWCA연합회의 중점운동국 대학·청년위원회 간사로 일하고 있다.



## 새로운 변화의 물결, 페미니즘 청년목회

### 나는 왜 페미니즘 목회를 하게 되었나

니연수

성덕중앙교회 교구·청년부 목사

#### 1. 페미니즘에 대한 오해와 편견

벨 훅스는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에서 페미니즘이란 남성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남성 중심적이면서 가부장적인 사고와 행동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를 알지 못하고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에 대해서 그저 '불온한 사상'이나 '싸움꾼' 정도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페미니즘 관련 책모임을 하면서 비슷한 오해와 편견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금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책모임을 참관하러 온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페미니스트라고 하면 ‘욕’인줄 알았어요.” 곁에 있던 청년들이 많이 공감했는데 주변에 적잖은 사람들이 비슷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 번은 이런 질문도 받았습니다. “이 모임은 성격이 너무 쎈 거 아닌가요?” 이 때 모임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페미니즘에 관심이 있는 청년이 저 대신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냥 책모임만 했을 뿐인데 뭐가 세디는 거야?” 그 대답을 고맙

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 전에도 수많은 책모임을 했었지만 이런 반응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동시에 앞으로 페미니즘을 교회에서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순탄하지 않을 수 있겠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실제로 해보니 그 예상이 맞았습니다. 교회에서 페미니즘을 공부하는 일은 그렇게 흔한 일도 아니었고, 목사가 앞장서서 관련 주제로 강단에서 말하고, 소그룹을 이끄는 것이 굉장히 특이해 보이고 경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반응들이 있는 것은 아마도 많은 성도들이 페미니즘을 잘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 2. 페미니즘을 만나기까지

솔직하게 말하면 저도 페미니즘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저는 장남, 남편, 아빠로서 가부장제의 혜택을 평생 누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상당히 보수적인 교단에 속한 목사이기도 합니다. 글을 쓰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봤는데 2년 전까지만 해도 페미니즘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다면 오해와 편견이라도 가졌을 텐데 요새 청년들이 자주 쓰는 말로 하자면 페미니즘에 대해 1도 몰랐습니다. 그런 제가 페미니즘을 말하고 공부하자고 권하고 있으니 그런 저의 모습에 주변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물어봅니다. “어쩌다가...” 저도 스스로에게 똑같이 물어봅니다.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끌고 들어서게 하셨고, 이끌고 계신지를 말입니다.

청년부 목회에 페미니즘을 접목하기까지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2014년 4월 16일에 있었던 세월호 침몰사고와 이후 일련의 과정은 저의 생각, 거창하게 말하자면 저의 신학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슬픔에 빠졌을 뿐 아니라 거대한 비극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자신에 대한 자책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러던 중 유가족들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들었지만 마땅히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무작정 광화문으로 찾아갔고, 근처에 지나갈 일이 있으면 일부러 그곳을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광화문 천막에서 교회의 청년들, 유가족과 함께 간담회를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그때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하소연 하셨습니다. “목사님, 스님들도 오시고, 신부님들도 오시는데 왜 목사님들은 오지 않으십니까? 저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데 왜 찾아오시지 않나요?” 이 말을 들으면서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동안 내가 이웃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좁게, 그리고 막연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의 깨달음을 구체화하기 위해 바쁜 중에라도 광화문에 나갈 기회를 찾았고, 그분들의 기사가 뉴스에 혹시라도 나오면 챙겨보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저도 모르게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고 누군가의 이웃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사회의 약자들에게 관심이 있는 몇몇 청년들을 따라서 구룡마을에도 가보고, 위안부 수요 집회에도 가봤습니다. 출애굽기에서 강제 노동으로 괴로워하며 ‘탄식’ 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셨다는 말씀이 기억났고, 우리가 사는 사회에도 참으로 크고 다양한 ‘탄식’이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 인식을 가지고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그 무렵 강남역 주변의 한 노래방 화장실에서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포스트잇을 붙이거나 마스크를 쓰면서 침묵으로 자신의 두렵고도 괴로운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전에 알지 못했던 또 다른 ‘탄식’을 접했던 것입니다. 마침 청년부에서 마가복음 10장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탄식’에 대한 저의 고민이 예수님의 고민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척이나 감사한 순간이었습니다. 고민하던 문제를 예수님께 인정받는 느낌이었습니다. 해당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이혼에 대한 질문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서 모세의 시대나 예수님의 시대나 남자들이 여자들을 너무나 함부로 대우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의식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에게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다”고 말씀하셨고, 제자들도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냈습니다. 강남역 사건과 그에 반응하는 여성들,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해 확인한 성차별은 몇몇 개인에게만 속하는 문제가 아니라 역사 내내 어느 사회에나 있었던 ‘인류 보편적인 적폐’, ‘오래된 탄식’ 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저와 저의 주변을 돌아보는 시각을 크게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시각으로 책을 찾아 읽었고, 가족들과 주변의 여성 성도들에게 부끄러움을 무릎 쓰고 ‘그동안 여자라서 불편했거나 무서웠거나 직접적인 차별을 당한 적이 있는지’를 진지하게 물었고, 어느 때보다 경청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대부분의 청년들과 장년 집사님들이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여동생에게는 “그런 사실을 이제야 알았나?”는 편찬까지 들었습니다. 이러한 실상을 들어보니 저 역시 살아오면서 여성을 차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했거나 소극적으로 무관심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 3. 청년들과 함께 페미니즘을 공부하고, 말하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페미니즘을 공부하고, 교회에 적용해 보는 것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공부하려고 보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막연해서 관심 있는 대역섯의 청년들과 함께 책을 읽었고 서로의 경험과 생각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페미니즘 모임이 결성되었던 것입니다. 『젠더와 사회』라는 책을 메인 텍스트로 골라서 제가 요약, 발제했고, 청년들은 개별적으로 다른 책을 한권씩 골라 요약하고 나누는 시간을 연속해서 가졌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함께 공부하면서 사회, 과학, 문화, 경제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성차별적 의식들이 얼마나 켜켜이 쌓여 왔는지, 그러한 의식들이 우리의 삶 아주 가까이에서 얼마나 집요하면서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더욱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할머니에게 딸밖에 낳지 못한다고 구박받는 어머니를 보면서 무력감을 느꼈던 일, 연애할 때 남자친구에게 원치 않는 섹스를 요

구 받고 거절하자 관계가 멀어진 일, 수업 시간에 노골적인 성추행적 발언을 들어야 했던 일, 면접을 볼 때 외모에 대한 지적과 차별을 받았던 일, 밤거리를 건너나 운전할 때 수도 없이 위협을 당했던 일은 함께 모임을 가졌던 청년들 모두가 겪어야 했던 가슴 아픈 기억들이었고, 지금도 어느 한 구석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청년들을 탄식하게 만드는 엄연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청년들이 함께 공부하면서 관련 주제에 대하여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서로의 이야기들을 경청하면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꺼내 놓으며 울었고, 아무리 화가 나도 참을 수밖에 없었던 일들을 그 자리에서 꺼내어 놓으며 마음껏 분노했습니다. 때로는 소심하게 복수한 이야기들을 하며 깔깔대며 웃기도 했습니다. 청년부 시절부터 십수 년을 교회에서 소그룹을 이끌었지만 이토록 자발적이면서 역동적인 모습은 흔치 않았습니다. 모두에게 피곤한 주일 저녁 시간에 모여도 참석률이 좋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두어 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때문인지 정해 놓았던 3개월의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갔고 그 다음 스텝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그때의 모임을 1기모임으로 칭했고 2기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저도 잠깐 시간을 가지면서 개인적으로 공부했고, 청년부 예배, 장년 예배, 저녁 예배와 수련회 등의 모임 시간에 해당 주제로 몇 번에 걸쳐 설교를 했습니다. 한 번은 청년들과 함께 우리 삶에 너무도 익숙한 성차별적인 모습들을 스킷 드라마로 만들어 공연을 하면서 일상의 성차별 모습들을 코믹하게 풍자하기도 했습니다.

1기모임 이후 약 두 달 정도의 시간 동안 교회 안에서 여러 방법으로 성차별과 페미니즘에 대하여 말했고 2기 모임을 홍보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더 많은 청년들, 심지어 서너 명의 오빠들까지 모임에 참여하면서 약 열 명 정도의 청년들과 2기 모임을 3개월에 걸쳐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약 1년 정도를 교회 안에서 마치 무엇인가에 홀린 것처럼 여러 청년들과 함께 페미니즘을 열심히 공부했고, 서로 나누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이야기를 아직 페미니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익숙하지 않은 다른 성도들에게 담대하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 생각하지 못했던 반응들

모임을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은혜롭고 즐거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들을 마주할 수 있었는데, 가장 먼저 페미니즘을 공부한 청년들에게서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새로운 관점을 배우면서 그동안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많은 것들을 불편해 하고 의심했습니다. 특히 교회의 성차별적인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의 설교나 기독교 서적을 통해 여성은 이리이러 해야 한다는 말들을 많이 듣고 접했는데 왜 그런 것인가?’, ‘우리 교단은 왜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주지 않는가?’, ‘많은 교회의 오전 예배에서는 왜 여성들이 기도하지 않는가?’, ‘교회의 주요 의사 결정 기구에는 왜 여성이 포함되지 않는가?’ 등등.

어느 하나 간단하게 답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저 역시 페미니즘에 갓 입문한 학생으로서 페미니즘을 성경해석, 기독교 전통, 예전, 교회 생활 등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더 많이 공부해서 현실을 더욱 정확하게 인식해야 했고, 더욱 풍성하게 가르쳐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물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들은 모임 밖에서도 있었습니다. 특히 페미니즘 소그룹에 대한 관심이 때로는 긍정적으로 때로는 부정적으로 이곳저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참관할 수 있는지, 다음 기수에 함께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었고, 교회 안에서 적절하지 않은 모임이라는 이야기들이 이곳저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설교 이후에도 비슷했습니다. 이전의 설교에서 볼 수 없었던 ‘핫한’ 반응들이 장년들과 청년들에게 있었는데,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해야지... 페미니즘은 나중 문제”라는 반응이 몇 있었고 “자신이 당한 차별이 나쁜 것이라는 것을 설교를 통해 들으니 위로가 되었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소그룹에서 나누는 내용이나 관련 설교들이 너무나 급진적이란 지적들을 받았는데 아마도 페미니즘이 우리 삶의 전반을 새롭게 보고 고치도록 요구 하는 것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뜨거웠던 1년, 그 이후

너무나 낯설었던 ‘페미니즘’에 대해서 참 열심히 공부하고 모임을 이어가기 위

해서 작년 1년은 정말 바빴습니다. 한 교회의 교구와 청년부를 맡아서 늘 하던 일이 많던 상태였는데, 추가적으로 진행하던 모임을 1년 이상을 끌고 가기엔 무리가 있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성경해석에 대한 연구가 훨씬 더 깊이 이루어져야 했고 페미니즘을 구체적으로 교회 사역에 어떻게 적용해 볼 것인지에 대한 기도와 고민들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신 청년부 혹은 교회 공식적인 모임을 사적인 모임으로 대체하였고, 우리가 그동안 공부하며 공감했던 부분들을 실천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버려지는 아기들을 임시로 돌보기 위한 ‘베이비 박스’와 미혼모와 아기를 돌보고 교육하는 ‘애란원’을 탐방했습니다. 성차별로 인하여 극한의 고통을 당하는 여성들이 정말 많다는 사실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함께 공부하고 현장을 직접 보고 온 6-7명의 청년들이 올 여름부터 월 1회의 ‘애란원’ 정기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더해 저는 교구 사역의 일환으로 그동안 아기를 키우고 책을 읽으며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던 아기 엄마들의 모임과 아기들을 돌보는 일을 계획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새로 시작한 봉사와 구상 중인 모임 역시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지만 1년 정도 페미니즘을 공부하고 함께 이야기하며 위로받고 격려하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 같아서 뿌듯하고 앞으로가 더욱 기대가 됩니다.

## 4. 페미니즘을 공부하고 말하면서 얻은 큰 유익 - 동료 목회자들에게 드리는 제안

페미니즘을 공부하고 교회에서 말하면서 정신없이 1년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었고 쌓인 지식이나 경험은 정말 일천하지만, 분명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나누고 싶고 전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인데 제가 페미니즘을 목회에 접목하면서 얻었던 유익들을 다른 목회자들과도 나누고, 꼭 시도해 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제가 페미니즘을 공부하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얻은 가장 큰 유익은 바로 내 자신의 관점이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라는 점을 깨달았다는 것이고, 이러한 시각은 어떤 경우엔 폭력적일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대화를 주고받고,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것일 텐데, 그동안 너무 혼자서 말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성경을 말한다 하더라도 나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요구할 때가 많았고, 상대방의 입장과 사정을 모른 채 말하다 보니 막연한 말, 뜬구름 잡는 얘기가 장광설처럼 되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설교’, ‘권면’이라는 말들로 포장되어 있었기에 저조차 제가 얼마나 폭력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억압했는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여성주의 작가로서 유명한 정희진은 저서 『페미니즘의 도전』에서 육지의 사람들은 제주도민이 육지 중에 어느 곳에 가는 것을 가장 힘들어 하는지를 잘 모른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곳에 살아보지도 않았고, 육지에 살면서 굳이 생각해 볼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제주도도에 있다면 많이 다를 것입니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주 듣고, 교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제주도민의 관점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페미니즘은 저에게 그러한 관점을 알려줬고 이전의 모습에서 돌이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해줬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그동안 여성들을 교회의 봉사와 기도의 일꾼 정도로 생각하고 헌신을 요구하고 순종과 인내를 강요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경을 조금만 신중하게 살펴봐도 남성과 여성은 수직 관계로 지음 받은 것이 아니라란 것을 알 수 있는데, 성경을 잘못 사용하며 마치 여성을 남성을 보조하는 존재로 전락시켰습니다. 여성은 가정과 교회에서 무조건적으로 남성에게 인내하고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쳤고, 그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떠받들며 무비판적으로 따르게 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성차별이 죄라는 것을 말하지만 정작 자신들이 성차별을 저지르거나 당할 때에도 그토록 무감각했던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성차별주의를 분별하고 그에 저항하는 것보다는 무조건적인 순종과 인내로 현재의 모습을 유지하거나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현재의 관계들을 견고하게 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장려

되었던 것입니다. 이 점을 알게 된 것이 정말 크게 유익했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목회자인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성경에 비춰보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우리의 전통과 고집으로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 바로 그 부분이 저에게 맡겨진 중요한 사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미니즘을 목회에 적용해 보았던 것이고, 이것을 통해 남성 중심적이면서도 지나치게 가부장적인 문화에 젖어 있는 교회의 현주소를 냉철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페미니즘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불평등하다는 현실을 알려주었고, 그것을 사랑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는데, 이러한 문제인식과 적용은 남녀 관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관계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른과 아이, 부자와 가난한 자, 백인과 유색인, 식자와 무식자, 도시 거주자와 지방 거주자 등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이들의 관계에는 분명 권력의 차이가 있고 그로 인한 지배-피지배 관계가 알게 모르게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벨 훅스의 말처럼 지배가 있는 곳에는 사랑이 들어설 자리가 없을 텐데, 목회자들이 권력의 차이로 인하여 생겨난 지배-피지배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면서 그 실체를 분명하게 알아 폭로할 수 있습니다. 탄식하는 자들의 소리를 들어주며,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을 위하여 말하고 돌보는 일을 하면서 견고한 그 진(陳)에 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난 틈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을 것이란 큰 소망을 가져보았습니다.

## 글을 맺으며

페미니즘을 공부하면서 ‘거듭났다’는 말을 생각해보았습니다. 너무나 거창한 개념일 수 있는데, 수많은 여성들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직접 들으면서 정말 그러한 순간을 맞본 것 같습니다. 내가 그동안 남성 중심적이면서도 가부장적인 사고의 틀에 갇혀 있었고, 사회 전체가, 심지어 교회조차도 그러한 감옥에서 자유

로울 수 없다는 것을 희미하게나마 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새로운 관점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직접 보았습니다. 이처럼 나와 다른 사람들을 자유롭게 한다는 측면에서 페미니즘에는 분명 복음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년의 시간들이 저에게는 너무나 고마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여전히 페미니즘에 대한 말만 들어도 반감이 드는 분들이 있다면 이웃 사랑의 차원에서라도 꼭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이라서 그동안 어려움을 당했던 적이 있었나요?” 귀 기울여 대답을 듣는다면 “우리 사회는, 그리고 우리 교회들에는 남녀 문제에 있어서 무엇인가 문제가 있어! 달라져야 해!”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 글을 쓴 나연수는

2014년부터 중계동에 있는 성덕중앙교회에서 교구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이다. 건국대학교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했고 사랑하는 아내, 귀여운 아들 셋과 함께 살고 있다.





## 교회안팎 성차별주의 넘어서기

좌담

기독교여성들은 어떻게 교회안팎의  
성차별주의를 넘어설 것인가

# 기독교여성들은 어떻게 교회안팎의 성차별주의를 넘어설 것인가

**사회자 이숙진** 한국YWCA연합회 아카데미 위원, 한국여성신학회 회장

**좌담자 김은선** 믿는페미 활동가

**손은정** 기독교민회 부회장, 대한예수교 여장통합 목사

**양희승** 청어람 대표

**최선화** 한국YWCA연합회 대학청년Y 회장

**최유진** 송실대학교 기독교학과 겸임교수



손은정, 최유진, 이숙진, 최선화, 양희승, 김은선 (왼쪽부터)

**이숙진** 오늘 좌담에는 교회안팎에서 발생하는 성차별과 여성혐오에 맞서 열심히 활동하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소속 단체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 활동 내용과 활동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 소개해주세요. 먼저 SNS 온라인 활동하는 그룹인 ‘믿는페미’는 팔로워만 해도 벌써 1,500명을 넘어섰는데,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요.

**김은선** 저희 단체 규모는 아직 크지 않습니다. 각각 기독교 운동단체에서 일했던 활동가들이 모여서 “우리 젊은 기독교여성들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확장할 페미니즘 운동 한번 해보자”라고 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세대는 SNS로 소통을 하는 것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온라인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최근 페미니즘 이슈가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되었던 것처럼 크리스천 페미니스트들도 반응이 빨리 왔습니다. 솔직히 이제 막 “이런 식의 운동을 하겠습니까”라고 이야기를 띄운 정도인데, 그 발상 자체를 좋게 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독교 안에서도 페미니즘을 실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셔서 뜨거운 호응을 얻은 것 같습니다.

**이숙진** 기독교 NGO 단체인 청어람은 역사도 꽤 되었고 SNS 팔로워도 만 명이 넘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데, 한국교회 개혁 운동을 꾀 하시면서 교회여성의 상황에 대해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해오셨는지요.

**양희승** ‘청어람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2005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지금 13년 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로 강좌기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제의 강연자를 찾고 기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 2~3년 사이에 관심 있게 들여다봤던 주제가 바로 ‘혐오문제’입니다. 우리 사회 혐오의 주제는 이슬람, 중북, 동성애였는데, 강남역 10번 출구 살인사건이 터지면서 여성혐오 문제까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한국사회에 혐오현상의 패턴들이 상당히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성혐오는 좀 더 다른

“최근 2~3년 사이에 관심 있게 들여다봤던 주제가 바로 ‘혐오문제’입니다. 우리 사회 혐오의 주제는 이슬람, 종북, 동성애였는데, 강남역 10번 출구 살인사건이 터지면서 여성혐오 문제까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각도에서 논의될 부분이 있겠지만, 적어도 이슬람, 종북, 동성애는 혐오가 생산되는 방식이나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집단이 유사한 패턴으로 간다는 것을 주목해서 보게 되었고, 그 선상에서 여성혐오에 대한 문제도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성혐오는 페미니즘에서 오랫동안 논의해왔고, 층위도 굉장히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들여다보기 위해 준비도 많이 필요하고 짚어보아야 할 지점도 많다고 봅니다. 현재 2~3년째 기회가 닿는 대로 관련된 강좌와 세미나를 만들고 있습니다. 월례강좌에서 여성운동을 하시는 분들을 바로 모시고 몇 차례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 저희 입장에서 꽤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기독교적 언어의 필터링을 덜 거치고 나온 이야기를 다룰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청년사역 하시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7~8년 해오고 있는 ‘청년사역 컨퍼런스’를 올봄에 했는데 그 주제가 바로 페미니즘이었습니다. 참석자들이 거의 100명 가량 되었는데 주제 때문인지 청년들 중 여성들도 꽤 참석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청년부 목회자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교회에서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해 관심사는 기독교 내에서 최소한 청년 사역을 하시는 분들께는 여성문제, 페미니즘 문제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숙진** 청어람 아카데미는 늘 시의적절한 주제들을 잘 선정하고 있는 듯합니다. 기독교민회도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초창기에는 기독교 여성민중들과 함께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최근 여성혐오 사건과 관련된 특별한 활동이 있으신가요?

**손은정** 기독교민회가 1986년도에 생겼으니 한국 여성운동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올해 31년째를 맞이하다 보니 회원들의 연령도 많

이 높아져, 어떤 면에서는 신선함이나 열정이 약화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다른 면에서는 각 회원들이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으면서 각 영역에서 역량들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성의식이라든지 차별에 대해서는 삶 속에서 체화된 방식으로 실현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기독교민회로서 여성 혐오 주제를 가지고 운동이나 활동을 하고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볼 때 다소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지난 30년간 사실상 기층 여성, 민중여성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녀들을 돌보는 일, 어떻게 보면 대안이 되는 여성의 삶의 모델을 만들어 오는 데 주력을 해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좌담을 앞두고 여성차별과 혐오 문제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기 위해 다른 자료를 찾아 읽으면서 그것이 꽤 자극이 되고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20~30대에 척박한 현실을 바꾸려고 운동을 하다가 이제 40~50대가 되어 보니 상황을 관망하려고 하거나 또는 어떤 진지를 구축해서 영역을 확보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독교민회 안에는 여전히 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가령 매번 싸우려 다니는 일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나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받으면서 그동안 관성화된 제 자신을 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김은선**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선배들의 운동 노하우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싶었고 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배님들께선 그 당시 사회적 정황에서 중요한 운동이었던 탁아, 공부방 운동을 해오셨습니다. 사실 그 운동은 우리나라에서 복지를 하기 전에 중요한 시대적 이슈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운동선배들을 찾아가 선배들이 먼저 해왔던 운동 노하우를 배우고 그것을 바탕으로 활동하고 싶습니다.

**이숙진** 최유진 교수님께서 어떤 활동을 주로 하고 계신지요?

**최유진** 저는 주로 여성 관련하여 세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장



손은정, 최유진 (왼쪽부터)

통합의 '연구단체 협의회'에서 페미니즘 시각으로 계속 발언하고 있습니다. 연구단체 협의회 위원들과 목회자들과 함께 협업하여 『화해의 공동체』라는 성경공부 교재를 만들 때 '가정' 편을 집필하였는데 여성주의 입장에서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연구단체 협의회가 과거 10년 동안은 '치유와 화해의 생명공동체 운동'을 해왔다면 올해부터는 통합 교단이 향후 10년 동안 어떤 주제로 신학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지를 모색하는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주제들을 조금 더 심화시키는 방향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강의입니다. 90년대는 여성신학의 르네상스시대였는데 제가 2011년에 학위를 하고 돌아와 보니 여성신학 강좌가 폐강이 될 정도로 관심이 없는 상황이라 처음에 너무 좌절했습니다. 그래도 학교마다 폐강을 무릅쓰고 여성 관련 과목을 개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 안에서 '자매 모임'이라는 여성들의 모임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모임에서 육아라든지 여성들의 지난한 삶, 가부장제의 수혜자이자, 피해자이자, 부역자로, 여러 복잡한 삶을 살아가는, 소위 층위가 다른 여성들과 함께 하면서 여성 목사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숙진** 요즘 대학·청년Y는 성차별이나 여성혐오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YWCA연합회 대학·청년Y회장을 맡아 바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선화님이 말씀해주세요.

**최선화** 제가 소속해 있는 대학·청년Y는 작년에 재건되었습니다. 아직은 시작이라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투표를 통해서 중점운동을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청년Y 중점운동 슬로건은 '지역사회를 살리는 청년운동'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내년에는 페미니즘을 중점운동으로 펼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청년Y 중 남성회원들이 꽤 있어서, 그들과 소통하는 방법도 모색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국 회원 대회에서 판넬을 만들어서 투표를 했는데, 페미니즘 이슈가 2번째로 나올 정도로 청년들 사이에도 관심이 있는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학·청년Y회장 임기가 1년밖에 되지 않아 내년에는 교체가 되기는 하지만, 임기 동안 페미니즘에 대한 밀거름을 조금이나마 더 마련하고 싶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숙진** 최근 기독교 지도자들에 의한 성범죄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성희롱 사건들은 피해자에게 닦을 돌리는 경우가 허다하여 2차 가해의 두려움에 피해를 숨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는 용기를 낸 피해자들이 발화하기 시작하면서 최근에는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크게 부각된 성폭력 사례 외에 활동하면서 접한 교회내의 성차별 사례나 여성혐오의 사례들을 말씀해주세요.

**김은선** 우리 단체에서는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팟캐스트에서 여름 수련회나 단기선교를 다녀오면서 성차별 사례를 보내달라는 사연을 받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여성들이 성적으로 대상화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예를 들면, 목사님이 여성들을 지칭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희들 바지 짧게 입고 다니면 안 되는 거 알지? 그런데 목사님은 고맙다." 또 수련회에서 여성들을 앞으로 나오게 해서 전부 나이별로 줄을 세워놓고, 20대 초반 여성들에게는 밥길 조심하라고 하면서 문신 모양의 팔토시를 주

고, 20대 이상 여성들에게는 양은 남비를 주면서 “라면 먹고 갈래”라고 말하게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천막을 쳐서 샤워시설 만들어 놓고 “차갑다고 소리치지 마, 남자들이 흥분하니까!”라는 식의 발언을 하는 등 사례가 많았습니다.

팟캐스트를 진행하면서 ‘여성들은 교회에서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성들은 하나같이 남성들의 시각으로 규정됩니다. 여성들은 항상 남성이 유혹당하지 않도록 몸을 조심하고, 심지어 소리도 조심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성의 생각과 느낌은 별로 존중되지 않고 그저 여성은 성적인 대상일 뿐인 거죠. 특히 젊은 여성이 성범죄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는 상황을 보면서 “너희가 조심했어야지” “네가 왜 목사님을 미혹했어”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당연한 구조입니다. 이 안에서 여성들이 성범죄를 경험했을 때 취할 수 있는 행동이 폭로밖에 없다는 것이 너무 속상합니다. 실은 폭로가 되면 폭로를 접하는 사람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루는 운동단체 태도를 비판하거나 기사를 비판하는데 실은 따져보면 정식 절차를 거쳐서 성윤리위원회가 꾸러지고 대책위원회가 세워져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폭로밖에는 방법이 없는 현실이 너무 답답합니다.

**이숙진** 정말 교회 안에도 성윤리 전담기구 마련이 절실합니다. 매년 대학 강의를 맡은 교강사들은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목회자와 교회직분 맡은 분들도 성희롱 성폭력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교단 차원에서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믿는페미 팔로워들이 혹은 댓글에 이런 기구들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의견을 올린 경우가 있나요?

**김은선** 아직은 대책보다 억울함을 이야기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억울함을 이야기하는 단계조차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그 억울함이 조금 해소가 되고 ‘나는 ~이랬어요’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운동하는 분들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아이디어

긴 한데, 예를 들어 교회 안에서 수련회를 구성하면서 직책을 맡길 때 목회자가 전담하는 게 아니라 ‘젠더 부장’을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희롱과 성범죄 사건들을 수집하고 해결하는 사람으로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수련회를 기획 할 때 그런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숙진** 젠더부장을 두는 것, 참 좋은 아이디어네요. 새로운 직함이 생기는 것만으로도 참가자들에게 생각거리를 던져줄 것 같습니다.

**손은정**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성적인 차별이나 추행이 만연해 있으니 여자라면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텐데, 그 경험을 말한다는 것은 수치심이나 두려움이 동반되기 때문에 여전히 침묵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을 말할 수 있는 환경이나 분위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서서히 환경을 향해 가는 저의 경험 때문인지, 최근의 생리대 안전성 논란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2003년 합동총회장의 ‘기저귀 발언’이 생각났습니다. 전에는 전근대적이고 봉건적 생각을 가진 노인이 한 발언이라고 생각하면서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문득 다시 그 사건이 생각나면서 ‘정말 심각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성의 재생산 능력을 폄하하고 기저귀를 찼다고 비하하며 그래서 여성이 교회 강단에 오를 수 없다는 주장은 정말 참을 수 없는 발언이라는 생각이 10여 년이 지난 후 다시 기억 났습니다. 이런 발언들을 그냥 개인의 발언이라 넘어가지 말고 진지하고 무겁게 다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발언이나 이런 문화나 생각들을 어떻게 사라지게 할지, 어떻게 바꾸어 내야 할지 더 발화하고 공문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숙진** 지독한 성차별적 발언들은 몇몇 일탈적 목회자에 국한된 문제이거나 개인적인 인격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권력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으면 뿌리 깊은 기독교의 성차별과 여성혐오는 근절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성안수를 거부하는 입장은 예수와 생물학적으로 다른 몸을 가진 여성이 목회자로서 말씀 선포자로

서 부정적이라는 마인드가 있지요. 고신대학에서는 M.Div 과정을 남녀가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데, 졸업 후 여성도 남성과 동일하게 권도사 자격을 달라는 요청이 2016년에 총회에서 거절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M.Div 과정 중인 남자에게 목사 안수 자격을 주는 것이 통과되었습니다. 이것이 2017년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이른바 진보적인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청어람 양희송 대표님은 한국교회 관련 통계에 대해 잘 아실 텐데, 실제로 젊은 여성들이나 청년들의 교인수가 줄어들고 있지 않나요?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양희송** 남녀차이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20~30대가 많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2015년의 인구센서스 데이터가 작년 말에 발표되었는데 예상과 달리 종교인수 1위가 개신교였고, 불교는 떨어졌습니다. 상당히 데이터가 요동을 쳐서 내용을 들여다보니 개신교는 10년 전보다 약 123만이 늘었다고 나왔습니다. 과연 그런가 하고 데이터를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 연초에 토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개신교 인구가 늘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10년 사이에 출생과 더불어서 기독교 인구로 진입하는 자연 증가분이 꽤 덩어리가 큰데 젊은 세대에서 많이 빠져 나갔다는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사회에서 개신교의 증가는 50대 이상에서 조금 나타나고 있고, 반면 그 아래 쪽 세대는 감소 추세입니다. 그리고 각 교단 통계도 몇 년째 계속 감소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주 거칠게 요약하면, 개신교인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숫자는 교회 안에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 수는 사실 ‘가나안 성도’<sup>1)</sup>, 즉 개신교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교회에 적을 두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하시는 분들에 따르면 가나안 성도가 이전에 100만 정도였는데 요즘에는 200만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신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요인이 사람들을 교회에서 떠나게 만드는가? 라고 했을 때 오

“그렇다면 어떤 요인이 사람들을 교회에서 떠나게 만드는가? 라고 했을 때 오늘 토론 주제인 ‘개신교와 여성혐오’는 굉장히 중요한 팩트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늘 토론 주제인 ‘개신교와 여성혐오’는 굉장히 중요한 팩트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여성들이 뭔가 고민하고 있을 때 교회가 그들을 지지하고 붙잡아 주기보다 오히려 떠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 여성들을 붙잡아 놓을 수 있는 매력이나 응집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개신교 현실이라는 것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나이가 많은 세대보다 젊은 층에서 훨씬 이 부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희 청어람의 강좌나 모임에도 20대 여성과 대학생들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요즘 20대들은 그리 외부 강의를 들으러 다니지 않는데도 페미니즘 이슈에는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찾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숙진** 그 청년들 중 남자도 많지요? 여성학 수강생들 중 남학생들이 많아졌습니다. 수강동기를 물어보면 “스스로가 가해자가 되고 싶지 않아서”라고 말합니다. 남성 중심 문화에서 남자로 자라면서 자기도 모르게 몸에 각인된 가부장적 코드로 인해 어느 순간 가해자가 될 수 있겠다는 자각이 생긴 것이지요. 아마 청어람 아카데미에도 페미니즘을 제대로 알고 싶어서 오는 남성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김은선** 제가 청어람 책모임 참가자인데요, 각기 모임의 성격이 조금씩 다른데, 여성만 모여서 발화할 수 있게 하는 모임이 있는 반면에 청어람에서는 남녀가 모여 페미니즘에 대한 논의를 합니다. 남성들도 성차별 문화가 자기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성차별이 남성인 자신에게 얼마나 불편한지 많이 이야기합니다. 확실히 남성들과 함께 페미니즘을 논의하는 것은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확실히 남성들과는 층위가 너무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들이 너무 깨기 어렵다고 하는 행위들을 듣고 있노라면, 저의 눈으로 볼 때는 아주 답답합니다. 예를 들어 “어쩔 수 없이 릉살롱에 접대를 간다”, “육아휴직을 내면 승진이 안 되니 어쩔 수 없이 포기한다” 등등.

1. 가나안 성도란 최근 한국교회에 출석을 하지 않고 헤매는 성도를 일컫는 말이다. 교회 안나가를 거꾸로 읽어 만든 조어이며 이 말에는 ‘헤맨다’라는 이중적 의미가 있다. 이들은 신앙인의 정체성이 있으면서도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에 실망하여 출석을 미루거나 저항하거나 또는 새로운 공동체를 탐색하는 자들이라 할 수 있다.

**이숙진** 남녀별, 세대별에 따른 집단 간의 층위가 다르지만, 실은 한 사람 안에도 가부장주의에 공모하는 지점과 저항하는 모순적인 면이 공존합니다. 대개 역할 수행 때문에 이러한 딜레마 상황에 봉착하기 쉽습니다. 가부장사회에서 사는 한 모든 여성과 남성들은 가부장주의의 공모자이자 피해자인 셈입니다. 이렇게 긴 세월동안 유지되어온 가부장적 문화에 균열을 내며 성평등 교회문화를 만들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손은정** 저는 안수를 받고 노회의 모임에 나가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지역 노회에 200여 명의 목회자들이 연례적으로 모입니다. 가보면 여성목회자의 숫자는 소수입니다. 그런데 요즘 최근 한 2~3년 사이에는 많이 바뀌었지만, 그 전에는 회의가 시작되고 간식이 들어오는데 한복 차림을 한 집사님, 권사님들이 시중을 들듯이 간식 서빙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이 노회가 열리는 교회에 출입할 때부터 한복차림으로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상한 풍경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여성들은 접대하는 일만 하고 있는가?

합동 측, 고신 측에서 여성안수 규정을 개정하지 않는 것은 이미 여성안수를 받은 통합, 기장, 감리교에서 같이 연대를 해서 함께 바꾸어 가야 한다고 봅니다. 연대운동으로 여성목회자의 숫자가 늘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여성목회자가 소수이다 보니, 노회 모임에 가서 노회 운영에 더 주목하기 때문에, 사실 그 주변에서 왜 이런 풍경이 연출 되는지에 대해 말하기 쉽지 않은 면도 있었습니다.

**최유진** 개교회 차원에서는 힘든 것 같습니다. 차라리 교단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장 통합 측에서는 2년 전에 ‘목회자 윤리강령’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 성윤리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은 강령일 뿐이고 그 강령을 위반한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예장통합 여교역자들은 윤리강령을 가지고 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좀더 자세한 매뉴얼을 만들고 실행할 기구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3년 전부터 여교역자들이 현의하고 있는 것은 여성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여성 총대 비율을 높이기 위해 각 노회마다 최소한 한 명씩은 여성을 파송하게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숙진**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일단 어느 정도 인원이 되어야, 비중이 있어야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여성 목회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교회여성들의 세력화를 구조적으로 가능하게 만드는 것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경험해보셨겠지만 여성목회자를 청빙할 때 오히려 여성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교회여성을 위한 성평등 교육이 절실합니다.

**김은선** 하나님 비유를 여성의 경험에서 찾아볼 수 없을까? 라는 문제의식으로 책모임을 하면서 어떤 책에 나온 ‘하나님의 치맛자락’이라는 문구로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성하면 꼭 모성과 지혜를 이야기하는데 여성이라고 하면 지혜로워야 하고, 꼭 모성이 있어야 하는가?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것 또한 구속처럼 느껴졌습니다. 최근에는 비혼 여성들도 있고 아이를 낳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여성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여성적인 하나님을 그리려고 할 때, ‘젓가슴 달린 하나님’, ‘자궁달린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책의 역자가 쓴 표현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좀 불편했습니다. 여성을 특정한 이미지로 환원해서 하나님을 그리는 작업이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험 혹은 여성의 경험에서 하나님의 비유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하다가 ‘맘충 하나님’, ‘노브라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보니 의미가 다르게 다가오더군요. 여성이 곤궁에 처한 여러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연결시켜보니 실은 우리가 경험하는 깊은 곳에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강력한 상징이 되어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가부장적 하나님의 이미지가 너무 싫어서 거부하고 싶은 나머지 신앙의 장애가 생길 정도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몸에 배어있는 가부장성을 좀 빼내면서 여성의 경험에서 하나님을 상상해 볼 수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언어로 상징화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끼리 ‘노브라 하나님’ 스티커를 만들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캠페인을 하면서 새로운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숙진** 매우 중요한 제안입니다. 주기도문을 여성 신학의 언어로 새로 만든 것



최선화, 양희송, 김은선 (왼쪽부터)

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 보고 이후 과연 이게 옳은가? 라고 재평가를 하면서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선배들의 노하우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런 연구 자료를 실용화하고 전파하는 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최유진** 앞에서 하나님의 모성 비유에 좀 불편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한편으로 모성을 좀 다른 경험 속에 다시 사유하려는 노력들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저를 비롯하여 결혼해서 아이를 두고 있는 30대 자매, 결혼은 했지만 아기를 가질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자매 이렇게 셋이서 ‘페미니즘 마더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저희 경험과 고민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자매들과 함께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는 모성에는 괴로움만이 아니라 즐거움과 경이로움의 요소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성신화가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강요될 때 너무나 부담스럽고 괴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모순적이고 양가적인 감정들을 여성들끼리 안전한 공간에서 마음껏 나눌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기독교여성들이 자기 경험을 드러내고 함께 나누는 작업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항상 남성들의 시선으로 해석되고 규정되어 온 존재였습니다. ‘언어’에 지는 존재였고, 늘 듣는 존재였고, 남성 시선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숙진** 앞으로 어떻게 활동을 해나갈 계획이신지, 혹은 못 다한 이야기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최선화** 올해 대학·청년Y 회장이 되다보니 여러 모임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던 중 YWCA생명비전연구소에서 진행했던 ‘YWCA 기독교여성주의 연구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게 되었는데, 솔직히 전 YWCA에서 페미니즘을 처음 듣고 접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새로운 이야기였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이미 제 안에 있는 이야기들이었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을 교제하고 있는 남자친구와도 함께 나누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습니니다. 페미니즘 이슈가 이 시대에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그것을 대학생, 청년의 시각에서 계속 다루고 싶고, 청년들과 함께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매우 커졌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도 정말 필요하고 그런 모임과 논의를 활성화시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은선** 기독교여성들이 자기 경험을 드러내고 함께 나누는 작업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믿는페미 백일장’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느낀다’고 글로써 자기표현을 하는 작업이 매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들은 항상 남성들의 시선으로 해석되고 규정되어 온 존재였습니다. ‘언어’에 지는 존재였고, 늘 듣는 존재였고, 남성 시선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역투어를 하면서 집담회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함께 모여 이야기도 나누고 지역 안에서 책모임까지 만들 예정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와서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고, 성차별과 성희롱은 나만 겪는 것은 아니라는 느낌을 공유하고 동지를 만들어가는 장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지요.

현재는 문대식 목사 성추행 사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맞물려 감리교에서도 여성연대가 성폭력 관련 법안을 제출했는데 기각이 되었어요. 이 문제도 이번 사건과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양희승** 여러분의 이야기를 통해 정말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과 생각들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좌담을 마치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무엇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나누는 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IVF(한국기독교학생회) 안에서 '갓페미'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분들이 사례 수집을 했고 이 내용을 자료로 만들어 PDF 파일로 배부한다고 하는데 지금 요구가 폭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이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접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청년회 목사들과 간사들에게 그 자료가 전달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학생들이 목사님들께 선물하면서 권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일반교회에서도 이런 종류의 자료집들을 만들어 성차별이나 성희롱 등을 묵과하면 목회의 현상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례를 볼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적어도 오류를 범하지 않을 터이므로 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쉽지는 않겠지만 성평등 교육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직종의 성범죄율 중 종교계가 의료계 다음으로 높습니다. 그 중 개신교 목회자들의 성범죄율이 압도적입니다. 그 정도가 되면 개신교 차원에서 어느 단위에서 제도화시킬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회나 노회에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교계 밖 여성 관련된 단체에서 교육 필요성에 대해 환기하고 모든 교단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사회적 압력을 가하고 여론을 만들어가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개신교 내에 여성들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제도적인 안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성안수, 여성장로 제도 등 교단별 편차가 크지만 현재 실천하고 있는 집단을 칭찬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성장로 제도가 있더라도 실제 활성화되는 것은 다른 이야기이듯이 그것이 실제적으로 유효하게 작동하는지를 주시해야 합니다. 교회 밖에서 한 번씩이라도 주의 환기를 촉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유진** 2011년 자료이긴 하지만 여성 성도 비율을 보면 기장 61.1%, 기감이 58.8%, 예장통합이 58.59% 등, 60%가 채 안됩니다. 이전과 비교하여 여성 성도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평등한 곳으로 개혁되도록 우리가 정신을 차릴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숙진** 말로는 교회성장의 주역이라고 치켜세우면서도 실제로는 교단 노회와 총회에서는 발언권을 주지 않는 것이 2017년 한국교회가 여성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이렇듯 젠더정의를 지켜지지 않는다면 성평등 의식을 갖춘 여성들의 이탈이 늘어날 것은 자명합니다. 교회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가부장적 문화를 넘어서려는 부단한 노력이 따라야 하겠지요. 지금까지 다양한 운동의 공간에서 노력하시는 선생님들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 2017 한국YWCA 활동가 성평등 인식 조사

# 2017 한국YWCA 활동가 성평등 인식 조사<sup>1)</sup>

한국YWCA연합회  
생명비전연구소

## 1. 조사배경 및 필요성

최근 한국사회에 만연한 성차별과 성폭력, 여성혐오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 여성운동 단체인 YWCA는 95주년의 역사 속에서 시대마다 여성인권을 옹호하고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경제적 능력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여성의 삶을 조금씩 개선시켜왔다. 또한 2016~2017 중점운동으로 성평등운동을 설정하고 성인지 모니터링과 여성폭력 근절 캠페인, 동일임금 동일노동 캠페인 등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전개해왔지만 날로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는 시민사회의 여러 가지 이슈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느라 상대적으로 최근 여성운동 이슈에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해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전국의 회원YWCA가 ‘여성운동조직’으로서의 YWCA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YWCA 운동의 기본관점으로 ‘기독교여성주

1. 이 글은 『2017 한국YWCA 활동가 성평등 인식 조사 연구』(한국YWCA연합회, 2017) 연구보고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의’를 내면화하며, 각 회원YWCA가 성평등운동의 정책과제를 수립하여 이를 구체적이고 역동적으로 실천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한국YWCA연합회 생명비전연구소에서는 Y활동가들의 성평등 인식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국YWCA 활동가 성평등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 2. 조사목적

‘한국YWCA 활동가 성평등 인식 조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회원YWCA 성평등 인식 수준을 파악하고, 둘째, YWCA 성평등운동 정책 우선과제와 성평등운동 전략을 수립하며, 셋째, 기독교여성주의로서 YWCA 운동론과 100주년 비전을 확립하고자 함이다.

## 3. 조사개요

### 1) 조사대상과 특성

2017년 5월 30일부터 6월 23일까지 24일간 시행된 ‘한국YWCA 활동가 성평등 인식 조사’는 전국 YWCA 자원활동가와 본부 실무활동가, 부속시설 실무활동가 8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800명은 권역별(광역시, 5부지역), 역할별(자원활동가/실무활동가), 소속별(본부/부속시설) 비례할당 추출하였다.

조사 참여자의 특성으로는 서울YWCA가 15.6%로 가장 많은 참여율을 보였고, 5대 광역시 회원YWCA와 5부지역 회원YWCA가 고르게 참여하였다. 연령으로는 40대~50대가 56%로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도 16.9%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참가자들의 학력은 대졸이 66.6%, 대학원 졸 28.1%로 대체로 고 학력군에 속한다. 참가자의 78.8%가 기혼상태였으며, YWCA에서의 활동경력은 5년 이상 10

년 미만이 25.9%로 가장 많았고,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20.6%, 20년 이상이 15%를 차지하여 대체로 활동경력이 높은 활동가들이 참여하였다.

<표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구분		N	%	구분		N	%
소속 Y	서울	123	15.6	연령	20대	70	8.9
	부산	62	7.9		30대	143	18.2
	대구	40	5.1		40대	218	27.7
	인천	62	7.9		50대	223	28.3
	광주	48	6.1		60대 이상	133	16.9
	대전	39	5.0		총계	787	100.0
	울산	40	5.1	결혼 상태	결혼함	619	78.8
	안양	40	5.1		결혼하지 않음	162	20.6
	의정부	34	4.3		기타	5	0.6
	수원	39	5.0	Y역할	총계	786	100.0
	성남	21	2.7		자원활동가	313	39.8
	강릉	20	2.5		본부 실무활동가	156	19.8
	속초	9	1.1		부속시설 실무활동가	318	40.4
	논산	18	2.3	활동 기간	총계	787	100.0
	청주	69	8.8		3년 미만	186	23.7
	전주	29	3.7		3년~5년 미만	116	14.8
	순천	30	3.8		5년~10년 미만	203	25.9
	창원	25	3.2		10년~20년 미만	162	20.6
	거제	19	2.4	20년 이상	118	15.0	
	서귀포	20	2.5	총계	785	100.0	
총계	787	100.0					

## 2) 조사방법 및 자료분석

한국YWCA 활동가 성평등 인식 조사는 항목에 따라 개인이 기입하는 질문조사법을 사용하였다. 무응답 문항이 3개 이상일 경우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설문 내용의 구조를 확정하였다. 예비조사 후 응답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설문 문항을 수정하였으며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또한 내적 일치도 파악을 위해 신뢰도 검사를 병행하였다.

조사 분석에는 표본대상자 800명 중 783부의 질문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조

사 분석방법으로는 SPSS에 의한 빈도분석, 백분율, 평균 등 기술통계를 실시하고, 성평등 인식 수준과 우리 사회 성평등 수준, 성평등 정책 인식수준, YWCA의 성평등 기여도에 대한 결과는 조사 대상자의 개인 특성에 따른 ANOVA 분석을 통해 집단 간 평균 차이를 검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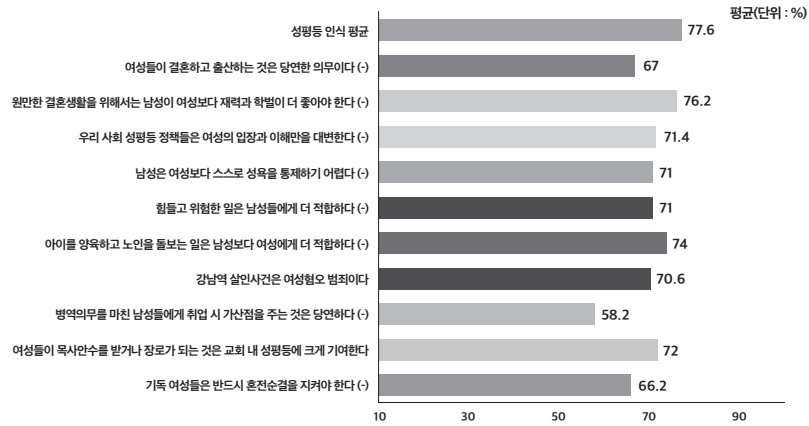
## 4. 결과분석

한국YWCA 활동가 성평등 인식 조사는 활동가의 성평등 인식, 우리 사회 성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 우리 사회 성평등 정책에 대한 인식, 성평등 정책 우선과제, YWCA 성평등운동 기여도 등 5가지 영역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분석결과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문항은 평균값을 100을 기준으로 환산한 값(%), 즉 각각의 평균값에 20을 곱한 값을 제시하였다. 이는 5를 기준으로 평균값을 비교하는 것보다는 100을 기준으로 환산한 값이 좀 더 통계 값의 비교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결과분석을 위하여 역문항은 역코딩 방법을 써서 긍정문항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평균값이 높을수록 성평등 인식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한국YWCA 활동가 성평등 인식 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성평등 인식

여성지도력과 성평등 인식, 교회여성지도력과 성평등 인식, 성역할과 성평등 인식, 성윤리와 성평등 인식, 가정 폭력/가정 내 민주화와 성평등 인식, 사회적 이슈와 성평등 인식 관련 문항을 통해 Y활동가의 성평등 인식을 20문항으로 측정하였다.

Y활동가의 성평등 인식은 77%로 꽤 높은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운동단체 활동가를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Y활동가의 성평등 인식은 기대치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결과로 해석된다. 20개의 문항 중 교회 안에서의 성평등 문제와 여성지도력, 가정에서의 성평등 인식이 높은 결과를 보



<그림 1> 성평등 인식 기술통계

였다. 여성지도력에 대한 성평등 인식이 다른 문항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현상은 YWCA가 그동안 여성지도력의 산실이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이다. 본부 실무활동가의 성평등 인식이 가장 높았고, 연령으로는 20대가 가장 높은 성평등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 50~60대 이상의 자원활동가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성평등 인식은 낮지만, 교회 내의 성평등 인식은 다른 연령보다 상당히 높다. 또한 거의 모든 문항에서 활동기간이 길수록 성평등 인식이 높게 측정되는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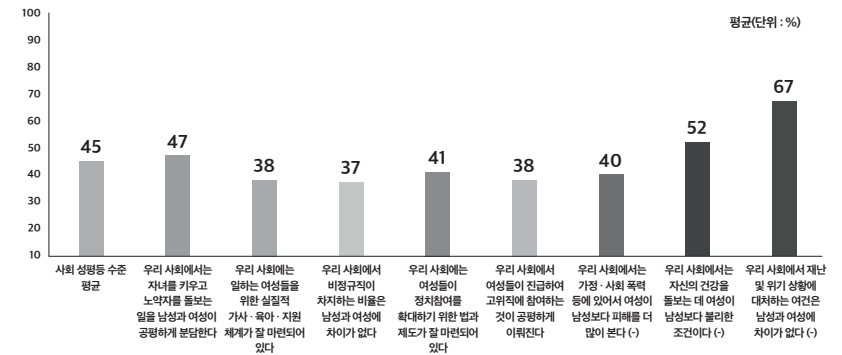
반면 20~30대의 본부 실무활동가의 경우, 교회 내 정치와 활동에 대해 가장 모순적인 답변을 하고 있다. 교회 행정이나 돌아가는 사정을 잘 알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데, 이러한 추론은 근래 젊은 여성들의 교회 이탈현상과 연관시켜볼 때 개연성이 높다. 최근 몇 년 동안 언론 보도를 통해 볼 수 있는 대형교회 목사의 세습 문제, 불투명한 교회 재정 등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교회의 지체현상은 젊은 여성들의 탈교회 현상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2) 우리 사회 성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고 있는지를 묻는 영역이다. 앞서 본 Y활동가 성평등 인식 평균은 77%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Y활동가의 시선으로 보는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은 45.4%로 측정되었다. 이 결과는 Y활동

가들이 한국사회를 성불평등 사회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부 실무활동가, 부속시설 실무활동가, 자원활동가 순으로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이 낮다고 평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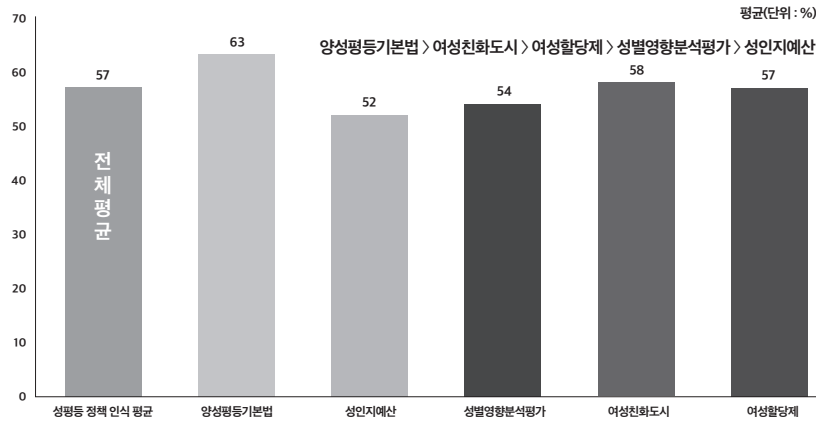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활동가는 해당하는 8개 문항 모두 가장 낮은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심각한 성차별적 사회로 인식하고 있었다. 성차별이 가장 심각하다고 인식한 문항은 비정규직 성차별과 승진에 대한 것으로 보아 노동공간에서의 성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8개 문항 중에서 '재난과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남녀의 대처 여건은 차별이 없다'를 제외한 7개 문항이 50점 이하 평가되어 Y활동가들이 우리 사회를 심각한 성차별 사회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우리 사회 성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

## 3) 우리 사회 성평등 정책에 대한 인식

우리 사회 성평등 정책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Y활동가들이 성평등 정책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했다. 6가지 문항 중 양성평등기본법(63%) - 여성친화도시(58%) - 여성할당제(57%) - 성별영향분석평가(54%) - 성인지예산(52%) 순으로 높은 인식도를 보인다. 이 가운데 성인지예산, 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할당제 등은 YWCA의 중점운동 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식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교육방법과 효과에 대해 검토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그림 3> 우리 사회 성평등 정책에 대한 인식

#### 4) 성평등 정책 우선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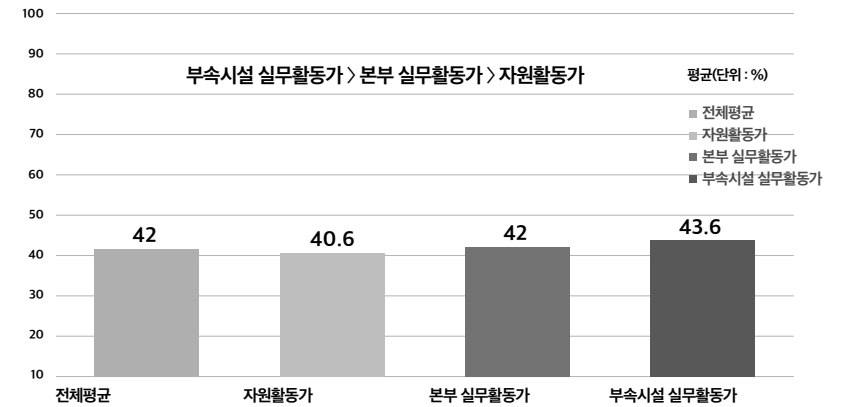
Y활동가에게 성평등 사회가 되기 위해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선결 과제를 6개 문항으로 제시하고, 우선순위로 3가지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 중 ‘일하는 여성들을 위한 실질적 가사·육아 지원 체계 마련’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42.2%로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가족 내 성역할 구분 인식과 역할수행이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Y활동가들이 ‘일하는 여성들을 위한 실질적 가사·육아 지원 체계 마련’을 제일 우선적 과제로 제시한 것은 변하지 않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저출산 정책 등의 국가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Y활동가들의 요청을 수렴하여 국가정책 수립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표 2> 성평등 정책 우선과제 1순위

구분	N	%
여성들의 동등한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법 제도 마련	205	26.6
일하는 여성들을 위한 실질적 가사·육아 지원 체계 마련	325	42.2
성폭력·아동성폭력·가정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	139	18.1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제도의 정착과 확대	38	4.9
성평등 정치참여를 위한 헌법과 정치 관련법 제정·개정	56	7.3
성인지적 관점의 기후변화와 재난 대응 체계 마련	7	0.9
<b>총계</b>	<b>770</b>	<b>100.0</b>

#### 5) YWCA 성평등운동 기여도

여성운동단체로서의 YWCA에 대한 자체 평가는 평균 40%로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부속시설 실무활동가 > 본부 실무활동가 > 자원활동가, 20대 > 30대 > 60대 > 40대 > 50대 순으로 YWCA가 우리 사회의 성평등에 기여한 바를 낮게 평가하고 있다.



<그림 4> YWCA 성평등운동 기여도 [역할별]

YWCA의 운동방향은 사회변화에 조용하고 있다. 근대 초기 조혼과 축첩폐지 운동, 공창폐지운동, 여성의 기본권 투쟁, 이주여성 지원 사업, 저소득층 여성 지원 사업 등 YWCA의 여성운동은 ‘약자 여성’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Y활동가들은 YWCA가 사회의 성평등에 기여한 바가 낮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YWCA의 대표적인 정책인 평화통일, 대안교육, 탈핵, 성인지, 여성폭력 예방, 돌봄 노동권 확보 등은 모두 여성문제와 깊이 연동되어 있는 문제들이다. Y활동가들이 YWCA가 우리 사회의 성평등에 YWCA가 기여한 바가 별로 없다고 평가하는 것은 Y활동가들의 자기정체성이 비교적 약하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자기 운동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 노력들이 행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 5. 제언

‘한국YWCA 활동가 성평등 인식 조사’ 결과 Y활동가의 성평등 인식은 여성운동단체로서는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운동단체가 협력했던 근가산점 제도 폐지에 대한 인식(58.2%), 남성의 성욕에 대한 인식(71%), 그리고 우리 사회 성평등 정책에 대한 인식(평균 50%대)이 특히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고 여성인권 증진을 위해 YWCA의 중점사업 방향, 사업전략, 여성주의 교육방법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국YWCA 활동가 성평등 인식 조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제안한다.

### 1) 여성주의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육기회 제공의 필요성

기독교여성시민단체인 YWCA의 역할과 사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YWCA 활동가별 특성을 고려한 ‘기독교여성주의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첫째, 교회 내 성평등 인식은 높지만 교회 의결구조나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20대~30대 활동가에게는 기독교여성주의에 대한 기초-발전-심화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성별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강한 자원활동가와 60대 이상의 활동가에게 젠더개념과 성별화된 섹슈얼리티의 최근 논의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모든 YWCA 활동가의 성평등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성평등 교육을 상시적으로 의무화하고, 일상 속에 뿌리깊이 스며든 성차별 이데올로기를 자각하며, 성평등 감수성을 증진시켜야 한다.

### 2) 차세대 여성지도력과 젊은 기독교여성 성평등교육 및 복지프로그램 마련

여성주의 교육은 일상에 스며든 성차별에 대한 민감성을 키우고, 나와 우리 안에 있는 성차별주의를 깨닫도록 하며, 내재된 성차별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지렛대의 역할을 해야 한다.

첫째, 차세대 지도력인 Y-틴과 대학·청년Y 회원들을 위한 다양한 성평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성차별주의에 대한 비판의식을 키우며, 여성주의 사상과 실천을 공유해야 한다.

둘째, 불안정한 삶을 사는 20대의 현실을 직시하고, 젊은 여성들의 삶의 조건 개선(고용촉진안, 일과 생활 양립을 위한 정책제안 등)에 Y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 3) 교회의 성평등을 위한 기독교여성단체와 연대

교회 내 성평등에 관한 두 질문에 대한 모순된 답변이 있었다. 원론적 차원에서 성평등은 매우 높은 인식을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다. Y활동가 대부분은 교회 일에 관심이 없거나 교회조직 구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금 한국교회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여성의 눈으로 보면 더욱 암담하다. 최근 연일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교회 내 성범죄 사건들은 교회야말로 성평등과 가장 거리가 멀고, 비민주적인 공동체임을 드러낸다. 교회를 이탈하는 젊은 여성들이 늘어나는 것도 이와 상관있을 것이다. 한국교회와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고착화되면, Y활동도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YWCA가 기독교 여성운동 단체라면 교회 내 성평등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YWCA는 기독교 여성운동 단체들과의 지속적 연대를 통해 성평등을 향한 한국교회 개혁을 견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 4) 우리 안의 불평등 성찰하기

YWCA의 성평등 인식이 70%대라면, Y 공동체가 민주적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지 질문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 성평등 인식과 민주적 공동체 운영은 서로 연동되어있기 때문이다. 자원활동가와 본부 실무활동가 사이, 본부 실무활동가와 부속시설 실무활동가 사이에 보이는/보이지 않는 위계가 있지는 않은지,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하는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희생과 봉사의 미명으로 감정노동은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안의 가부장주의 문화를 성찰하고 점검할 기

회가 필요하다.

이번 조사의 결과 중 하나는 YWCA는 우리 사회에 성평등운동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Y활동가들의 자체 평가이다. 굴곡진 근현대사에서 YWCA는 한국사회에 만연한 여성차별과 억압의 문제를 주목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운동을 해온 대표적인 기독교 여성운동 단체이다. 스스로 낮게 평가를 내린 이유가 평화통일, 대안교육, 탈핵 등의 Y주력운동이 '여성문제에만' 주력하지 않는다는 인식 때문이라면 이는 여성주의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더불어 Y목적문 교육을 통해 Y활동가들의 여성운동가로서의 정체성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전 연령층의 모든 활동가를 대상으로 기독교여성운동체인 YWCA 정체성 교육과 목적문 교육이 면밀히 실시되어야 한다.



## 편집후기

이숙진 이은영 최선화 최형미

## 이숙진

『여·세』 편집위원

“이혼 후 재혼은 간음이다”. 2017년 한국의 제일 큰 교단의 총회보고 중 하나다. 마태복음 5장 31~32절, 마가복음 10장 2~12절, 누가복음 16장 18절을 근거로 들었다. 이외에도 황당한 안건들이 성서에 기대어 교단총회에서 결의되었다. 한국교회에서 성서는 사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죄인을 만들어내는 율법책으로 전락해버린 듯하다. 성서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는 무관심하고, 불의와 결탁하여 탐욕만 부리는 죄를 일관되게 강력히 경고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이러한 불의한 죄에 대해선 침묵하면서, 왜 성, 사랑, 결혼 문제에 대해서는 거품을 물고 단죄하며 죄인으로 몰아세울까.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누구든 노력하지 않으면 언젠가 남성 지배문화의 공모자가 되기 쉽다. 그래서 여성주의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고들 한다. 여성주의자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자다. 희망적인 세상을 만드는 자는 절대로 순종적이지 않다. 이웃종교의 교황도 “순종적인 사람은 평화를 쌓는 사람이 아닌 게으른 그저 자신이 편하기를 바라는 사람에 불과하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제 교단 총회의 황당한 결의들은 교회, 신학교에서 교육지침으로 널리 퍼질 것이다. 방향을 잃고 침몰하는 한국교회를 누가 구조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갖춰야 할 것은, 약자를 죄인으로 만들어 억누르는 온갖 부정의한 권력을 알아차리는 여성주의 감수성이다. 기독교의 여성주의 감수성이야말로 한국기독교와 한국사회를 바꿀 것이다.

지난여름, 『여·세』 5호의 편집위원회로 함께 하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다. 이후 좌담과 총론 원고, 한국YWCA 활동가 성평등 인식 조사 분석 등에 관여하게 되면서, 『여·세』 출판을 위해 묵묵히 애써 온 분들의 노고를 알게 되었다. 이들이 만든 『여·세』야말로 여성주의 감수성을 계발하는 데 큰 지렛대가 될 것이다.

## 이은영

『여·세』 편집위원

한국사회에서 페미니즘이란 상당히 양극단의 평가를 받고 있고 일부 사람들에게 상당히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용어임을 최근 몇 년간 우리는 매우 다양하

게 경험하고 있다.

대표적인 여성운동단체이자 기독교여성단체인 YWCA의 오랜 역사를 통해 여성이 주체적으로 살고 스스로 자립을 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과 이로 인한 사회적 변화와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페미니즘에 대한 우리의 본질적 고찰을 한번 되돌아보는 좋은 시간이었던 같다.

여성의 ‘스스로 서기’로서 페미니즘, 내가 속한 사회와 집단에 대한 선한 영향력의 발원자로서 여성의 역할과 의식, 이를 통해 정의와 평화, 생명존중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존재로서 여성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의미 있는 글들로 채워진 듯하다.

특히나 교회 속에서의 수동적 여성관이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대한 도전을 통해 새롭게 변화되는 시작을 보여주는 좋은 원고가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같다.

## 최선화

『여·세』 편집위원

『우리는 모두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합니다』,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은 생명비전연구소가 진행한 ‘YWCA 기독교여성주의 연구모임’ 강의를 끝날 무렵 서점으로 달려가 구입한 두 권의 책이다. 이전에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는 나에게 너무 생소한 단어였고, 강의를 듣는 초반까지도 정확하게 정의 내리기 어려웠던 단어였다. 하지만 강의를 듣고 난 이후 내가 이해한 페미니즘은 ‘함께 살아가는 것’, ‘약자를 안아줄 수 있는 것’이다. 또 하나 달라진 점은 그전에 생각해보지 못했던 여성이 차별받는 부분, 여성혐오, 평상시에 여성으로서 억압받던 부분들을 찾아 보면서, 알아가고, 느끼고,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

내 경험에 의하면 밝은 대낮에도 남자들이 무리지어 있는 것을 보거나 골목길로 가는데 뒤에서 누군가 따라만 와도 흠칫하고 놀라거나 두려움을 가진 적이 종종 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에 가면 나도 모르게 어딘가에 카메라가 있는지, 옆 칸에 누군가 나를 훑쳐보려고 하지는 않을지 걱정하기도 한다. 보통 남자들은 느끼지 못하는 여자들의 일상 속 공포들이다.

이번 추석명절은 정말 긴 연휴였다. 『여·세』 독자분들에게 묻고 싶다. 친척과 가

족, 가족이 모인 추석 때 남성들은 과연 얼마나 일을 했는가. 우리가 여성단체이고 여성과 남성은 평등해야한다고 이야기 하지만 아직도 명절에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은 대부분 여성이다. 우리는 조금 더 작은 일부터 남성과 여성간의 차이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여성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남성도 함께 공부하고 알아가야 될 것이다. 가부장적인 사회 안에서 여성만이 차별로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남성 또한 피해자였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여성과 남성이 함께 이야기 나누고, 부딪히고 있는 문제점들을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 이번 『여·세』 5호는 그것을 위한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

### 최형미

『여·세』 편집위원

YWCA는 길고 긴 여성운동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전국에 걸쳐 가장 많은 회원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에 걸쳐 국제적인 연대조직을 갖춘 여성운동 조직이다. 대중들과 함께 걸어야 했기에 너무 급진적이지도 너무 보수적일수도 없었다. 함께 걷는 것은 언제나 조화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단 방향이 정해지면 파급력은 대단했으며 구체적이었다.

YWCA가 이제 '페미니즘'을 더 적극적으로 운동에 접목시키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그리고 기독교여성주의 신학적 성찰, 역사 되돌아보기, 한국YWCA 활동가 성평등 인식 조사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여·세』 5호를 발간하였다. Y의 활동가들은 스스로 '성평등'의식이 부족하다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마치 "우리는 성평등에 목마르다"라고 외치는 그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이 글들은 전국의 YWCA 조직으로 퍼져나가 공부자료가 될 것이다. 때로는 비판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성찰의 거울이 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새로운 생각과 의견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여·세』 5호 발간은 '우리가 이제 또다시 훈련을 시작할 때'임을 알리는 것발 같다. 날카로운 신학적 비판, 잡 못 이루며 치밀하게 살펴본 성찰, 새벽기도의 영감 속에 내놓은 이 글들은 우리를 바꾸어 놓을 것이다.



『여·세』는 여성의 꿈을 담아 여성의 힘으로 이웃과 세상을 살리고자 하는 갈망과 지혜를 수렴하는 장입니다.  
『여·세』구독 신청해 주세요.

## 구독 신청서

### 신청하시는 분

이름: \_\_\_\_\_

전자우편: \_\_\_\_\_

주소: 우편번호( ) \_\_\_\_\_

\_\_\_\_\_

유선전화: \_\_\_\_\_

휴대전화: \_\_\_\_\_

### 책 받으실 분

위와 동일할 경우 체크

이름: \_\_\_\_\_

전자우편: \_\_\_\_\_

주소: 우편번호( ) \_\_\_\_\_

\_\_\_\_\_

유선전화: \_\_\_\_\_

휴대전화: \_\_\_\_\_

**연락처** TEL 031-313-9315 FAX 031-311-8455  
(우) 14900 경기도 시흥시 하우로 167 한국YWCA연합회 생명비전연구소 『여·세』편집팀

**정가** 12,000원

**계좌번호** 농협 386-17-000052 예금주 한국YWCA연합회  
'여세○○○'의 형태로 입금해 주세요.

팩스, 우편으로 보내주시거나 전자우편(ywcapr@hanmail.net)으로 보내실 때도 양식을 참조하여 주세요.

